

제278회-국방제9차

○수석전문위원 기노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의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동전력사업에 차기전차인 흑표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9년부터 2019년간 5조 7573억 원을 투자해서 화력, 기동력, 방호력이 보강된 차기전차 ○○○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 전차에 대해서는 모든 성능 면에서 주변국 최신 전차보다 우위의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90%의 국산화율로 전차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터키와 3억 3000만 달러에 이르는 기술 수출을 달성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킨 연구개발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조 7000여억 원의 순수 양산비용과 부수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6조 원이 훨씬 상회하는 획득비용, 수명 주기 동안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동 전력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남북 간 전차전력의 수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한의 보유대수에 비해서 북한은 3741대로 수적 열세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차만의 교전은 실제 희박한 상황인바 헬기 및 근접항공지원인 CAS 전력의 지원을 받는 아군의 전차전력은 북한의 양적 열세를 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사 M 계열 전차 도태로 인한 공백을 고려한다면 80억 원대 고가의 차기전차 도입보다는 흑표 개발을 통해 습득된 기술 일부를 현용 전차에 접목한 성능개량형 전차의 추가 생산과 K1전차의 성능 개량 등 저비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旼

심대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武星 委員 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전차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문가들 주장이 있습니다. 전차라는 것이 돌격형 작전 개념인데 방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우리 형편과 방위충분성 개념을 놓고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개발 중인 흑표의 경우에 내년까 지 파워 패키지의 국산화가 양산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파워 패키지 개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성공이 확실합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언제까지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2010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이게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실패할 경우는 현재 외국산 시제를 도입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武星 委員 2010년까지 개발한다면 내년도에 양산 예산 144억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예.

○金武星 委員 그러면 이것은 불용되는 것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내년도 예산은 양산 착수금이고 실제로 전력화는 2011년에 됩니다.

○金武星 委員 파워 패키지가 2010년에 개발된다면서요?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예, 10년에 개발 완료하고……

○金武星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양치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간 중간 확인한 결과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최재관

기동전력사업부장 육군준장 최재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관리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산 장비의 부품과 구성품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이 되고 난 후에 국산화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획득 프로세스는 그와 같은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차기전차의 본체들 양산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모든, 그런 하나의 내부 부품들과 원자재가 다 발주된 가운데 2011년이 되었을 때 별도로 이 파워 팩이 들어와서 전투용 적합을 받았을 때, 그때 2011년도에 국산으로 결합해서 전투용 사양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업을 못 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내년도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2010년 6월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 이 파워 팩의 성공 가능 여부는 그때 진단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가고 있고 그 파워 팩의 개발도 지금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과 내후년 6월까지 되면 저희들 국산품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야간 거기에 대해서 사업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설명은 잘 들었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흑표전차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2009年7月9日(木)
283회-국방제2차 1

○劉承旼 委員

K-2 전차 계약에 대해서 언론에 난 의혹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2008년 12월 19일 날 방사청장께서 터키의 방위사업 구매 담당자, 차관보입니까? 언더세크리터리(under secretary)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한테 편지 보낸 게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그 편지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항이 흑표전차의 파워팩(Power Pack).ISU.오토로우더(Auto Loader)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 아마 제3국에 하는 기술이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 기술이전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이 편지를 우리 방사청이 터키 차관에게 보냈는데 터키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답은 안 받았습시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방사청이 이 중요한 편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터키에 기술수출을 한 3.3억 불은 체계.주포.장갑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파워팩하고 ISU하고 오토로우더는 우리가 기술수출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부구조인데, 이것은 현대로템하고 터키의 오토카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서 이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방사청에서 식별을 해서 이 기술은 우리가 체계.주포.장갑 기술이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수출.이전 할 때도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편지를 보냈는데 통상……

○劉承旼 委員

자, 그러면요, 로템하고 오토카 사이의 계약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문제점을 발견을 하신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 계약이 언제, 현대로템하고 오토카 사이 계약은 언제였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 날짜는……

○劉承旼 委員
2006년이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 날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방산진흥국장입니다.
2008년 7월 29일 날 했습니다.

○劉承旼 委員
2008년 7월 29일 날 로템하고 오토카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까지도 방사청과 ADD가 터키에 출장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예, 같이 다녔습니다

○劉承旼 委員 거기 계십시오. 제가 청장님한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같이 다녔는데 문제점은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하신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방위사업청이 로템하고 오토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 일에, 업무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가 계약서를 체결하는, 2008년 7월이라고 그러셨어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2008년 7월까지의 그 문제를 모르고 로템과 오토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을 하고 2008년 12월 19일 날, 한 5개월 후에 터키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제 말 사실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방사청의 책임도 있는 거네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방사청하고 현대로템하고 ADD하고는 앞에 말씀드린 체계.주포.장갑만 기술이전에 대해서 체결을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파워팩.ISU.오토로우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여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劉承旼 委員
청장님, 관여할 내용이 아니시면 왜 뒤늦게 12월 19일 날 이런 편지는 보내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 내용에 보니까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ADD하고 방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8년 7월에 맺은 로템과 오토카 사이의 계약이 잘못된 것을 그 계약 때까지도 방위사업청하고 ADD가 계속 관여를 하면서도, 뻔히 관여를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런데……

○劉承旼 委員 그리고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둘 사이의 계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파워팩.ISU.오토로우더는 그 계약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저희들하고 ADD하고 현대로템하고 터키하고 계약에는 그게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

니다. 기본 계약에……

○劉承旼 委員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는데 그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자, 제가 방사청에 이것을 질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2월 19일 날 우리 국방 제2차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터키 정부에다가 편지를 보내 가지고 당신들 기술이전하려면 우리 한국 정부 승인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받았느냐, 터키의 답장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서신 발송 시 별도의 답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터키 측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게 방사청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편지를 쓸 때 당신들 답장해라라고 요구 안 했으니까 답변도 없었다, 그러면 답변 없으면서…… 지금 ‘선수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에 대해 성실히 이행 중에 있으므로 동 서신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사청 방산진흥국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술이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터키 정부에서, 12월 19일이니까 지금 거의 한 7개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7개월 후에,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답장도 없는데 우리 방사청에서는 우리가 답장 요구 안 했으니까 답장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방사청은 판단한다. 진짜 방사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방사청, 우리 방사청장 명의로 터키 차관한테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안 오니까 답장 안 오는 것 보니까 뭐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게 아마 답변서에 확실하게 이해를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터키 측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劉承旼 委員

언제요? 언제 이해하고 수용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것은 제가 5월 달에 터키 갔을 때 지금 편지 수신한 바야르 차관에게도 설명을 했고 그것은 터키 측에서 충분히 수용을 했고, 국제적으로 통상 그런 레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의가 있으면 그쪽에서 반드시 다시 이의를 제기하든가 편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劉承旼 委員

제가 변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계약의 상식으로는 로템하고 오토카 사이에 서명하고 한국 정부가 승인했던 그 계약서가 지금 파이널리(finally) 유효한 것이지, 이 편지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장도 없는데 그냥 청장님께서 터키 출장 가서 가지고 말로 들은 것 가지고 지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리고 실제로 지금……

○劉承旼 委員

터키에서 이것 괜찮다고, 자기들이 동의한다고 무슨 서류로 받으신 것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동의한다는 서류는 안 받았습시다. 안 받았는데……

○劉承旼 委員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문제가 생기면 로템과 오토카 그 사이의 계약서대로 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현대로템에서도 이 사실을 터키 측에 편지를 보냈습시다, 저희들하고 같이.

○劉承旼 委員

로템은 답장을 받았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로템도 답장은 안 받았는데……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요. 터키 정부가 이 편지 받고 나서 이제까지 답장도 안 해 주고 가만있으니까, 제가 터키 정부라면 우리는 그때 사인한 계약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내부,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劉承旼 委員

아니요. 저는 오늘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바로 오늘 방사청이 낸 이 방위사업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편입니다. 이 입장에 보면 방위사업청은 기술이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터키 측하고 계약도 맺은 사실이 없고, 그러면 뭐 당사자가 아니고 맺은 사실이 없고 계약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런 레터도 안 보냈어야 되고 이런데 레터는 보내고 답장은 못 받고, 답장은 못 받았는데 구두로는 괜찮다 그리고 지금 설명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방사청장 계실 때 보낸 편지이고 지금 이것을 담당했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동안 잘못된 것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터키로부터 레터에 보낸 2항에 대해서 뭔가를 담보하는 서류라도 한 장 받아 놓으셔야지 그것 안 받아 놓으시고 아무 문제없다, 괜찮다,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복잡할 것 뭐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로템하고 터키하고 서로 교환한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劉承旼 委員

그 편지가 해결책이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해결책이 됩니다.

○劉承旼 委員

어떻게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우선 담당 국장이 더 상세하게……

○劉承旼 委員

좋습니다.

제가 계약서 얘기 꺼내 가지고 시간을 너무 써서……

그러면 현대로템과 오토카 사이에 왔다 갔다 한 편지가 지금 해결책이 된다고 방사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해결책이 된다는 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멘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K-2 차기 전자 흑표 관련해서 원가산정을, 원가검증을 철저히 하고 대당 단가 인하를 하라고 우리 국회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안 의결할 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원가산정단이 서른다섯 분입니까? 총 35명으로 구성된 원가산정단 T/F가 현장에 나가서, 로템에도 가보고 로템의 하청업체 벤더(vendor)한테도 가서 막 이렇게 단가를 검증하고 원가를 검증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업계로부터 듣는 불만은 이것입니다.

국회에서 쓸데없는 소리해 가지고 35명이 와 가지고 이 잡듯이 뒤지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충 눈대중으로 ‘당신들, 원가 이것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해 보니까 얼마 후려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업체는 지금 국회가 이 부대조건을 다는 바람에 자기들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국회에 이것 언제쯤 보고하실 겁니까? 원가산정단의 원가검증 결과를 언제쯤 보고를 하실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8월 말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8월 말 전예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국방위가 열려서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미리 걱정이 돼서 주문을 드

릴 것은 만약 원가를 산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그때 칠십몇 억에서 백몇 억 사이에 1대 가격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6조에서 4조 왔다 갔다 하고 대수도 많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대조건을 단 것인데 이번에 그것을 보고를 하실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뭔지를 분명히 밝히셔서 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원가 인하를 할 여지가 있더라’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래 놓고 저희들이 업체한테 듣는 것은, 저는 방산업체 사람들 거의 안 만났고 K-2 흑표전차 이것 때문에 하도 원성의 소리가 높다고 그래 가지고 제 사무실에 여러 업체분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봤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원망해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알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아까 K-2 계약서 관련은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鶴松

K-2 전차에 대한 터키하고의 그 유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이미 언론에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다 의아스럽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위원님 혼자한테만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하시든 본부장이 하든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본부장, 일단 앉았다가 나중에 말미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

청장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김장수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것인데 그동안에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의 의견 수렴을 했고 또 전문가들 검토도 끝났고 관계 실무자들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를 했는데 현재의 국방정보화 체계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전장정보체계, 여기에는 무기체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자원관리체계 이것은 비무기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체계 간에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중복투자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기술 특성을 반영한 국방정보화 관련 제도와 절차가 미흡하고 또 국방정보화사업의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 등 각 단계의 조정·통제 기능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의 정보화기획관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화 정책 수립과 소요 결정을 연계시키고 또 사업 관리하고 유지 보수 이원화 문제를 개선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방사청에서 염려하고 있는 정보화기획관실이 정보화 관련 획득사업을 전부 주관한다는 뜻은 아니고 방위사업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현행 절차대로 하고 국방부의 정책적 조정·통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래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방부에 정책·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또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정보 관련 표준화정책 수립, 민간 첨단기술의 우선 적용을 제도화하고 지나친 군사표준 적용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또 기술적 진부화를 막기 위해서 진화적인 개발절차를 강조하고 개발·전력화 시간을 단축하자 또 사이버 침해 대응수단도 강구하자라는 것이 주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김장수 위원

문제는 방사청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법률과의 관계인데 그동안에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방위사업법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서 국방정보화에 관한 조항이나 근거를 포함하는 법률 자체는 없습니다. 전부 무기체계나 비무기체계나 그렇게만 분류가 되어 있지. 그래서 방위사업법에 다루고 있지 않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또 정보화사업을 위한 체계 등을 규정해 주자…… 그래서 일반 무기체계 획득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에 관한 한 앞으로 제정되는 이 법이 타 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제 방사청하고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타 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3조에다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해 가지고 법률안 조문작성 과정에서 타 법률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조화시키는 작업을 충분히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행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획득절차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도록 하고—그 예가 그렇습니다—“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소요결정 이후 사업추진절차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또 “국방정보화사업의 평가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그렇게 뒤에 법조문을 붙여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정보화법이 타 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했다고 해서 현재 방위사업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법과 충돌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저도 보고받고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법 상충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해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법안과 방위사업법은 규율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충되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기 전에 국회 법제실에서도 의견을 다 들었고 또 만일 상충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충분히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뺏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국방정보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 협력한 내용에 대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인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부터 기술이 우리나라 현대로템으로 이전될 때 저희 방사청이 기술이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전 승인해 줄 때 지금 보고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승인해 주었고, 로템은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터키하고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터키 업체와 한국 로템이 계약한 내용은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작년 12월 9일 날 허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 저희가 ADD로부터 로템에 이전 가능한 기술 세 가지 승인했던 내용 외에 파워팩(Power Pack)에 대한 기술과 ISU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터키의 방산청(SSM)이 요구를 하면 기술이전을 하도록 이런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허가를 하면서 이 조항은 정부가 업체에 기술이전 승인할 때 승인하지 않았던 별개의 조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출허가를 했습니다.

그 허가한 내용을 로템에다가, 허가 신청했던 회사에다가 답을 주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제외해라, 그리고 그때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서한을, 터키 방산청장한테 보내는 서한을 같이 부쳐 줬습니다. 그래서 로템이 터키 정부에 한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았던 그 허가서를 제출해서 사업에 착수할 때 제출할 그 당시의 우리 방위사업청장의 서한도 같이 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 그것을 받고 사업을 착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터키 정부가 관련된 예산을 터키의 체계 업체인 오토카에 주고 작년 연말에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사업착수금이 전달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답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지금 유승민 위원이 지적한 대로 터키 정부 측에서 답변이 없었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위원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세 가지 이전 승인을 했던 기술 말고 지금 문제가 되는 파워팩, ISU, 그다음에 자동장전장치가 있습니다.

터키가 자기들의 전차를 체계 설계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협력하는 범위 내에서는 두 가지 기술은 제외가 됩니다. ISU 유기압 현수장치는 토션바 기계식 스프링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터키가 이전받을 이유도 없고 또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파워팩과 관련해서는 우리 K-2 전차가 개발될 때 독일의 MTU 엔진을 썼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변속기도 독일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수출할 때, K-9 케이스도 이런 파워팩이 주요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그 당시 예산을 받아서 동력장치 엔진과 변속기를 별도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계획에는 우리가 양산 전력하는 차기 전차에도 우리 국산 엔진을 집어넣을 것이고 가능하면 터키에도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개발한 엔진을 넣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터키 정부와 터키 회사가 우리의 파워팩 시스템을 선정할 때 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면 단순한 하드웨어를 공급한다면 물자 수출에 따른 기술료만 받으면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술이전을 원한다면 기술이전료를 받고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지켜보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넘겨주든지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입니다.

○委員長 金鶴松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劉承旼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현대로템과 오토카가 계약을 맺을 때까지는 방위사업청하고 ADD는 완전히 손놓고 몰랐고 참여도 안 했던 것 같이 말씀하세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그렇지는 않고 같은……

○劉承旼 委員

출장도 다 같이 다니시고 로템하고 터키 사이에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계약서 초안이 나오고 하는 과정을 방사청과 ADD가 다 알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일부 내용은 주로 이전 승인 대상이 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 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전 승인 밖에 있었던 그런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은 못했지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할 그 당시를 보면, 작년 7월인데 상당히 시간에 쫓기면서 드래프팅(drafting)을 했기 때문에 저희 방사청 요원 실무자가 1명 동행은 했습니다마는 최종 문안 작업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언론 보도에 파워팩, ISU, 오토로우더(auto loader)는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레터를 보낸 것 같이 보도가 된 것인데 그 보도는 그대로 사실 아닙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최종적인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은 저희가 수출허가를 할 때 계약서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식 수출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 발견했고, 지금 보도된 내용은 적혀 있는 사실 자체로 보면 내용상은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방위사업청이 계약을 잘못해서 주요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기에 있어서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정 요청을 하는 등' 이런 표현들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과정과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 볼 때 조금은 왜곡된 표현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이 문제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제283회-국방제2차(부록) 7

(유승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K-2 관련 현대로템과 터키 간의 편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김학송 국방위원장 : 전 국방위원에게 제출 바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현대로템과 터키 오토카사간의 서한”을 별지와 같이 제출합니다.

별지 : (주)현대로템 및 (주)오토카 서한 사본 및

번역본 각 1부

발 송 : SSM (터키 방산청)

공문번호 : 72

날 짜 : 2009년4월13일

수 신 : 현대로템 박경득부장

참 조 : OTOKAR AS

제 목 : ALTAY Project

Ref. : a) 2008년 7월 29일자 SSM OTOKAR 간 ALTAY Project 계약

b) 2007년11월20일자 현대로템 서신

친애하는 박 부장님,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9년1월15일 사업수행일정(PIS)이 착수되었고, 현재 참조(a)의 개념설계 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SSM과 OTOKAR는 설계활동과 병행하여 ALTAY Project를 위한 적절한 부체계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wer pack과 Suspension Systems은 SSM이 고려하는 주요 부체계 중 일부입니다.

반면에 귀사의 기술이전 제안서의 유효기일은 2009년 5월 30일자로 만료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계약협상 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계약이 예상보다 늦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 결과로, 사업수행일정의 시작과 현대로템 제안서의 유효기일 간의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현재의 설계활동 상황을 고려할 때, 상기에 언급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체계(Powerpack, ISU 및 Auto Loader) 기술이전 제안서의 유효기일을 Ref(b)와 동일한 조건으로 Ref(a)의 PDR(2010년10월 15일)까지 연장해주시길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구,

M. Levent SENEL

지상장비부장

발신 : 현대로템

공문번호 : Hyundai Rotem-09-79

날짜 : 2009.5.22

수신 : SSM(터키방산청) 지상장비부장

제목 : Altay Project - SSM의 2009년 4월13

일자 공문번호 72관련

당사는 Otokar의 기술자들과 잘 화합하며 Otokar의 시설에서 4개월 이상, SOW에서 명시된 대로기술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현대로템의 Power Pack, ISU 및 Auto Loader기술 이전 제안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기술이전 제안서의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심각한 변동 및 불확실성을 야기한 세계 경제 위기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하여 유감스럽게도 유효기간을 연장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약 Otokar가 부체계 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결정한다면, 당사는 Otokar와 체결한 하청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부체계 시스템을 문제없이 공급할 것임을 재차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박경득 부장

현대로템

K-2 차기전차 원가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회에 결과 보고할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K-2 차기전차에 대한 원가산정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위주의 원가산정단(총 35명)이 충실히 원가산정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금년 8월 말에 국방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우선 이것부터 하지요. 아까 K-2에 대한 유승민 위원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방사업청장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최창곤

방산진흥국장입니다.

터키 전차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터키가 자기 나라 고유 모델의 전차를 개발하는 데 부족한 기술을 해외에서 협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터키가 부족해 하는 그 기술의 협력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분야가 체계종합기술, 주포기술, 장갑기술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협력을 해 주는 대가로 작년에 3.3억 불의 대가를 받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09年11月27日(金) 284회-국방제12차

30. 흑표전차 관련 현안보고

(15시32분)

○委員長 金鶴松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흑표전차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흑표전차 개발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흑표전차사업 추진 간 문제가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예산안 심사 소위에서 제때 상황보고가 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사고의 경중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관계로 문제발생 사실만을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금번 K-2전차, 흑표전차 엔진.변속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도 핵심 연구개발 사업 자체가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하여 완성되는 험난한 과정을 십분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도록 사업관리와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사업추진 간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개요부터 현재까지 분석.검토한 내용과 향후 대책을 이용대 기동전력사업부장이 보고드리고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는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 5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鶴松

이용대 기동전력사업부장, 보고를 하는데 사업개요는 빼고 결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기동전력사업부장 이용대 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워팩은 크게 엔진과 변속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엔진에 해당되며 변속기는 현재 정상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워팩 개발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설계 및 시제를 제작하여 금년 2월부터 시험평가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7월 3일 기동 성능시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는 등 약 4건의 결함이 발생하였고 설계변경 및 부품교환

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반면 최초 7월 28일부터 발생한 엔진 구동계의 베어링 손상은 보완조치를 취했음에도 동일 결함이 계속 발생하였고 11월 15일에 재발생하여 현재 정밀 원인분석 중에 있습니다.

손상된 베어링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 구동계의 메인 베어링과 콘로드 베어링으로 주요 손상 원인은 내부 부품의 불안정한 회전으로 인한 윤활유막 파괴, 윤활 능력 저하, 크랭크축의 변형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쪽 개선 방향입니다.

정확한 문제 식별 및 원인 분석을 위해 현재 국내외 전문기관과 기술협력으로 현장 기술 지원에 착수하였으며 추가 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정으로 업체는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보완 추진 일정은 원인 분석, 보완설계, 제작 등을 통해 최초 계획과 대비하여 약 10~15개월의 사업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최장 2012년 3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원인분석 및 대안해석 결과에 따라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K-2 전차 양산 추진방안입니다.

엔진 개발이 10개월 지연 시에는 사업을 1년 순연하여 2010년에 양산 계약 후 2012년에 초도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면 개발이 15개월 지연될 경우에는 최초 계획 대비 2년이 순연된 '13년 전력화 방안과 최소 물량을 해외 도입하여 '12년 우선 전력화 이후 2013년 물량에 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최초 계획 대비하여 1년이 지연된 '12년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사업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은 '10년도에 착수, '12년부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6쪽 양산 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영향입니다.

K-2 전차에 연관된 약 1400여 개의 협력업체의 가동을 저하로 경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K-1 중구난차량의 초기 생산물량 조정 등 업체 가동을 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협상 중인 3개국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며 기계화된 대터키 기술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추가적인 수출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상대국에게 파우퍽 국내 개발 가능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기갑부대 등의 군구조 개편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군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업체는 엔진 개발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이 부분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질의가 계신 분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이진삼 위원 용대 장군 진급 축하합니다. 날에 내 부관 했는데 질의하기가 참…… 내 전속부관이었어요, 내 가방 들고 다녔는데…… 금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특히 엔진 개발이 15개월 지연된다는 것은 굉장한 지연이 된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지연됨에 따라서 전력화도 지금 최초 계획보다 한 2년 지연됐지요?

또 지금 터키를 위시한 각국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장관께서 국방위원들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해서 또 아까 여기서 보고된 대로 실제 전력 차질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업체에 가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제안하는데 국방위원회 시간을 조절을 해서 가지고 한번 방문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1만 5000명이 일자리 잃느니 뭐니 해 가지고 그때 7조 중에 3조도 해 주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늘 불만 가진 것이 지금 모든 사단을 병력은 줄이면서 기계화사단 되는 데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4, 5년 지나면 그것에 대한 유지비 등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 등……

또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도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모든 전력이, 전차는 공격형 무기인데 사실 우리는 1일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진삼 위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한강 이남에는 병력이나 우리 장비가-전차는 모든 전투장비가-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등등 우리가 따져야 될 전술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는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현장을 직접 보시고 하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가 아마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鶴松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방사청장님, 그러면 파워팩의 개발 성공을 전제로 해 가지고 다른 부품업체랄지 다른 업체에 선 생산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없고요. 제가 어제도 주 체계업체 현대로템 부회장을 만났는데 협력업체에서 미리 알아서 금년에 계약될 것을 생각하고 미리 부품을 조금 확보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저는 방사청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하여튼 다른 데서 선 생산 지시를 내려 가지고 여러 협력업체에서 많은 양을 미리 생산해 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현대로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K-1 중구난전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한 50% 이상이 저희 K-2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조금 조정해 주면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K1A1 전차의 엔진을 개발한 업체하고 이번엔 흑표전차하고 개발업체가 틀립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틀립니다.

○김장수 위원 그것 참……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저희가 보면 지금까지 K-1 계열은 대략 1200마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1500마력으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저희 기술능력을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1500마력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장수 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군전력 증강사업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외국에도 우리 군의 위상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는데 제재 수단이나 변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계약 규정에 돼 있습니다. 10%까지 변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엔진 값의 10%입니까? 전 체계의 10%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체계 개발비의……

○김장수 위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대신하는 방법은 없고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게 아까 보고드린 제3안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 문제는 지금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력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10개월 내로 시정이 되면 1년이 연장되는데 그 방법을 택하더라도 어차피 1년은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최초에 우리가 내년도에 또는 전년도에 생산하게 된 물량이 있으면 그 물량은 외국에서 도입해서 쓰고 도입하는데 따른 추가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은 실패한 업체에서 다 대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런 계약 조건은 지금 돼 있지를 않은데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가 방사청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전력증강 계획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것으로는 외국에서 수입해 올 경우에 대략 이것보다…… 지금 이 가격이 대략 5.8억

정도인데 그렇게 될 경우 한 13억 정도 됩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13억에서 5억 빼면 한 8억 드는데 개당 8억은 실패한 업체에서 다 대라, 변상을 해라 그것 안 돼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법규정하고 계약조건을 즉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흑표전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산 개발을 하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는 여차피 점차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흑표 문제도 제가 어떻게 보면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추진이 됐었는데 방금 K1A1 전차 질문에 전차 개발했던 데하고 흑표전차 엔진을 개발했던 회사가 다릅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틀립니다.

○서종표 위원

왜 틀리게 했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K1A1 전차는 기술도입 생산입니다.

○서종표 위원

엔진도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엔진이 그렇습니다. 엔진이 그렇고 마력수도 틀리고요.

○서종표 위원

마력수도 틀린 것은 아는데……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리고 이것은 순수 우리 핵심기술 개발과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완 국방제12차전히 틀립니다.

○서종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K1A1 전차가 마력도 적고 그런데도 기술도입을 했는데 흑표전차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국산 개발로 결심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흑표전차는 1500마력입니다. 이 1500마력을 우리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기술도입 생산하는 그보다 적은 모든 엔진은 다 국산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수용에서 쓰는 디젤도 다 기술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종표 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기술이라는 것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은 단계별로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돼서 발전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최초부터 이 흑표전차는 벌써 마력 수도 많고 그다음에 무게 여러 가지 성능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세대가 업그레이드돼서 되는 전차를 그렇게 성급하게 결심을 했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최초부터 너무 과욕한 결심에 의해서 파생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병사들이 전투를 아무리 잘해도 지휘관이 취약 지역에, 사지에다가 병력을 투입하면 그 부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그런 결심 요소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단순하게 엔진, 베어링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의심나는 것이 엔진을 몇 대를 시험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생산했던 엔진이 약 몇 개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희 시험은 단계별로 기본 모델, 완성 모델 이렇게 나가면서 이번 시험에 했던 것은 1대씩

단계별로 시험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별로 보고드릴, 최종적으로 15일날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은 1대의 시험입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이어를 바꿔 가지고 주행을 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타이어 회전 속도를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자에다가 올리기 전에 엔진 시험을 최대 마력 속도로 해서 시험을 한 다음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 탑재해 가지고 운행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현재 운행했을 때 일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지금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RPM이 3200 정도가 맥시멈 RPM으로 저희가 개발목표를 잡고 있는데 3000 미만에서는 정상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크리티컬 포인트(Critical Point)에서 기술적인 어떤 달성도가……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시험을 할 때 그 부품이 완전히 성능을 발휘했을 때 조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립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몰라도 조립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조립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요. 조립을 해서 성능시험을 해서 문제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연구를 하고 그런다지만 조립을 해 가지고 좋다, 이것은 성능이 완전하다 했을 때 전자에다가 조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험운행 중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엔진 자체 테스트에 문제가 있었다고 나는 지적을 한다 이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개발과정상에서 엔진 단품 상태 그러니까 전자에 탑재하기 전에 엔진 자체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실제 변속기하고 결합을 해서 전자 상태에서도 완전한 시험이 아닌 상태지만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베어링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은 엔진 상태에서의 시험 결과입니다.

○서종표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엔진을 몇 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어 났으면 만들어 놓은 대로 전부 한번 테스트를 해 보

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운이 좋은지 안 그러면 잘 만들어 가지고 이상 없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엔진을 가지고 빨리 전부 풀 가동을 시켜 보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劉承旻

다음 김옥이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하시고 안규백 위원님 하시고 김무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金玉伊 委員

김옥이 위원입니다.

흑표 전차의 파워팩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7월에 심각한 결함도 있었지만 또 우리 국방부가 별도로 언론사하고 보도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국방부와 두산은 다 거짓말을 했더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으면서 그동안 터키를 비롯한 수출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 또 그것에 걱정이 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지금 터키는 저희들이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 수출을 했고 거기 기술 수출 내용은 체계 개발하고 주포하고 장갑이구요. 지금 보고드리는 이 파워팩은 기술 수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터키에서는 우리가 파워팩을 개발하고 흑표 전차를 전력화 시킬 때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우리 파워팩을 추가로 도입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터키를 잘 설득해서 앞으로, 아직도 터키는 14년 돼야 우리 전차 기술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터키를 잘 설득해 가지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수출, 요르단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페루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대수나 연도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잘 설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玉伊 委員

하어튼 장관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金玉伊 委員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방사청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 사실 작년에 이상희 장관 계실 때부터 방사청의 운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 이것은 좀 바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도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이랬을 때 이것은 방사청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방사청이 지금 체제보다는 오히려 전 체제로 획득 체계, 소요 제기 같은 여러 가지 해서 투명성이라는 것은 지금 장관님 같은 경우 장관님이 계속 된다면 투명성 가지고 걱정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투명성 때문에 방사청이 별도로 분리해서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委員長代理 劉承旼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委員

흑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엔진 구동계의 베어링 손상이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엔진의 실린더……

전문가, 누구입니까?

엔진에 이상이 생긴다면 실린더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플러그 샤프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플러그 샤프트를 잡아 주는 베어링 두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면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이 원인은 찾아내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일반 엔진에 비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엔진이 엔진 단위무게당 파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RPM도 3240RPM 까지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2700RPM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맥시멈에 가까운……

그게 최대회전속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전차를 시속 70km/h로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성능이 요구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윤활계라든지 또는 구동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의 힘을 마치, 세탁기에 빨래를 넣었을 때 밸런스 있게 잘 돌아가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쏠리고 균형이 안 잡히면 굉장히 충격하중이 가해지면서 무리가 많이 갑니다. 현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런 정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金武星 委員

그러면 엔진설계의 미스네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부족한 상황,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중심이 안 맞거나 아니면 냉각 또는 윤활유 공급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린더 간에 힘의 균형이 안 잡혀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엔진설계의 미스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위원님, 그 부분은 설계가 최적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활계의 윤활유 유막이 파괴가 돼서 메탈 투 메탈로 컨택이 되면서 무리하게 소착이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엔진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엔진설계는 현재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했습니다.

○金武星 委員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런데 마력이 1500마력이면 가히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선박엔진이 전부 다 국산화되어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선박엔진은 보통 쓰는 것이 1500RPM 정도 수준으로 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RPM에 차이가 많습니까?
 ○金武星 委員
 RPM은 낮지만 마력수야 뭐……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마력 자체는 엔진을 크게 하면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金武星 委員
 4500마력 이상 다 생산하고 있는데……

개발하다가 이런 사고는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1안은 엔진 개발을 새로 해 가지고 국산화 기초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2년 지연된다. 2안은 우선 외국산 엔진을 도입하고 국산은 계속 개발해 나가서 나중에 대체한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1년 지연된다 이 말이지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1500마력 정도 엔진의 국산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1안을 선택하는데 지금 결국은 2안을 선택한 거네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안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장기간을 15개월 잡은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10개월 내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제일 앞에 있는……

○金武星 委員
 아니, 소결론에 1년이 지연된 것으로 한다 한 그것은 2안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1안을 보시면……

맨 위의 안도 10개월 지연될 경우에는 2012년에 초도전력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령 15개월이 될 경우에는 2년 지연될 수가 있고, 아니면 첫째의 것을 국외 도입할 경우에는 1년 지연으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武星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국회 상임위 속기록을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장관하고 청장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때 두 분 다 장관, 청장이 아니었는데.
 ‘현재 개발 중인 흑표의 경우에 내년까지 파워 패키지의 국산화가 양산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파워 패키지 개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성공이 확실합니까?’ 하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장이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2010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

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할 경우는 현재 외국산 시제를 도입해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전력사업부장 최재관, ‘내년도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2010년 6월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 이 파워 팩의 성공 가능 여부는 그때 진단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상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가고 있고 그 파워 팩의 개발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파워 팩 개발의 과정에서 조금 미심쩍다 하는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문제없다고 답변이 나왔고 방사청에서 보도자료까지 내 가지고, 아무 문제없다고 보도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다 낭독을 안 하겠는데.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예산소위에서 유승민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도 이렇게……

사실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요, 청장?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큰 문제가 생겼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별문제 아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볼 때는 방사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시험가동 중에 연기가 나고 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되고 거기서 난리가 났다고 이미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별문제 없다고 말이지, 그래 놓고는 3일 만에 청장이 와 가지고 큰일 났다고, 내년도 예산

취소해야 되겠다고…… 이게 방사청의 오늘의 현실이다 생각을 하고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유승민 간사, 안규백 간사와 사회교대)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잘 알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리고 아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이 엔진을 개발한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 있지요? 이 회사에 377억이라는 핵심기술 개발비를 들여 가지고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 개발이 2010년까지는, 그것도 연기돼 가지고 2010년 8월에는 다 끝나도록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그러면 이 회사가 책임져야 될 게 됩니까? 아까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기한 내에 자체 개발에 실패하면 제재수단이나 배상 이런 것 없나라고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계약 규정에 10% 변상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데……

○劉承旼 委員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내년에도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제재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劉承旼 委員

계약 조건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계약 조건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청장님이라면 그것부터 제일 궁금하겠는데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계약 조건은 최대 계약금액의 10분의 1 이내로 변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계약금액의 10분의 1이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그것 어떤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이것은 지연일수 1일당, 하루 미납품분의 해당 금액……

○劉承旼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게 언제까지로 계약돼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계약은 내년 12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내년 12월 30일이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2010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현재 계약 조건으로는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그 이후에는 하루당 계산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하루당 1000분의 1.5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대 한계가 10분의 1입니다.

(안규백 간사, 김학송 위원장과 사회교대)

○劉承旼 委員

최대 한계가 10%라고요?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사람들이 377억이라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결국 파워 팩 엔진 개발에 실패하면 10%만 배상하면 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계약 조건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모르시면요, 분명히 아서 가지고 계속 실패할 경우에, 지금 1안.2안.3안도 한 10개월 정도 늦어지고 결국은 성공하는 것을 전제해서 다 가지고 오신 안이에요. 계속 실패할 경우에, 그리고 계속이라는 게…… 도대체 기다려 주는 것도 1, 2년이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두산인프라코어에?

저는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몰라도 요즘 엔진이라는 게 자동차회사, 선박회사 또 K1A1인 경우에 STX라는 회사가 있지요? 또 이것 외에 K-2 할 때는 회사가 달라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회사에다가 우리가 제대로 제재를 할 수 없다, 배상을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 이런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계약서와 계약 조건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알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우리 위원회도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내년의 양산 1차 중도금 882억을 전액 삭감하고 계약금만 타면……

아까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사청은 선 생산지시를 안 하셨다 이랬지요? 그렇지요,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현재는 안 했습니다.

○劉承旼 委員

예컨대 삼성탈레스가 협력업체들하고 K-2 흑표에 들어갈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면, 방사청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금년에 계약할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아니, 거기에 방사청이 개입을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개입은 안 했습니다.

○劉承旼 委員

안 했으면 방사청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책임이 없다가보다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劉承旼 委員

아까 말씀은 청장께서, 협력업체에게 먼저 생산하라는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청장 말씀이 협력업체가 자기들이 미리 알아 가지고 부품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방사청은 지시한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맞다면 이 뒤 추진방안…… 영향분석.대책에 국내 방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K-1 중구난차량 초기 생산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이 업체들한테 K-2 흑표가 아닌 K-1 중구난차량 물량을 더 늘려 줘 가지고 먹고살도록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방사청이 책임이 없는데 이 일을 왜 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어제 현대로템 부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에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劉承旼 委員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책임을 지시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요. 왜 업체들을 아무 근거 없이 도와줘야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劉承旼 委員

아니, 여기 대책에다가……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이것은 예를 하나 들은 것인데요, 물량 조정도 금년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2011년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劉承旼 委員

이런 말씀을 들어 보면 방사청의 행정이 정말 어정쩡하기 짝이 없다,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똑바로 해 가지고 배상책임을 물릴 것은 두산인프라코어한테 물려야 되고, K-2 흑표의 협력업체들이 K-2가 내년에 양산될 줄 알고 미리 부품을 확보하려고 자재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해 가지고 생산했으면 그게 방사청 지시가 아니면 책임이 없는 것이고 지시나 계약에 의해 했으면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지 이 대책 갖고 온 게 왜 이렇게 영정쩡하냐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劉承旼 委員

아니, 현실은 무슨 현실이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왜냐하면 작년에 이 문제를 계약금을 예산에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들은 금년에 계약하는 걸로 알고 좀 물량 확보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면 흑표가 아니라 다른 무기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내년에 예산 태워 줄 줄 알고 양산 들어가는 줄 알고 업체들이 미리 전부터 알아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방산업이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아니, 이 문제는 작년부터 상당히, 거기다가 저희 자체 국산 개발이고 상당히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劉承旼 委員

하여튼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두산인프라코어의 책임 부분하고 다른 부품업체들에 대한 대책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鶴松

마지막으로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委員

ADD에 질문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엔진 개발하는데 ADD에서 부담한 예산이 있습니까, 개발비?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지금 저희가 개발 형태를 두 가지로 해 가고 있습

국방제12차니다. 하나는 ADD 주도고요……

○金武星 委員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비……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개발비 전체를 청으로부터 ADD가 받아 가지고 ADD가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ADD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377억 전액이 다 방사청에서 ADD를 거쳐 가지고 갑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전액이……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ADD 예산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金武星 委員

전액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게 실패했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연구개발의 특성상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약 95% 정도는 목표 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최적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보고서 5페이지 최종결론 이것 잘 감안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장관이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鶴松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저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기계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인데, 김무성 위원님도 이 분야를 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500마력짜리의 엔진 만드는 데 크랭크축하고 센터하고 안 맞아서 결국 버려지는 원인이, 베어링이 마모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센터가 잘못됐든지 축이 잘못됐든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의 10위까지 해서 6개, 7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엔진을 만들어 내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베어링이 마모된다는 것은 대단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처음에 계약을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방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ADD에서 두산인프라코어하고 한 겁니까? 두산하고는 누가 계약을 한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ADD 하고 했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ADD가 합니까, 로템이 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로템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鶴松

로템이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이것은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로템은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그러면 ADD하고 두산하고 같이 계약이 된 거네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委員長 金鶴松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K1A1을 기술 도입하면서 엔진 개발하는 것은 STX엔진에서 했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그 엔진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委員長 金鶴松

그러한 경험이 있고……

지금 STX가 만드는 것은 1200마력짜리입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그러면 이게 1500마력짜리인데 그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자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지금 우리 국내 디젤엔진 전문, 하여튼 우리 국내 기술은 최대한 다 동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 기술까지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委員長 金鶴松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金武星 委員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선박 엔진을 만든 나라예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외국에 기술 자문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지금 이렇게 고성능의 전투기능에 쓰는 고RPM의 엔진하고 아까 말씀하신 낮은 회전속도로 도는 엔진들하고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수준이 RPM을 비교했을 때……

○委員長 金鶴松

지금 이게 RPM이 얼마입니까? 최대 속도 났을 때 RPM 몇으로 해 봤어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324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지금요……

○이진삼 위원

3420이라고 그랬잖아.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3240이요.

○이진삼 위원

반대인데? 아까 3420이라고 했잖아요.

○金武星 委員

아니에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3240입니다.

○委員長 金鶴松

지금 RPM 3000 정도 같으면 기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ADD에서 더 잘 알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어쨌든 저희 엔진 국내 기술력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鶴松

그러면 K1A1에 들어가는 전차는 RPM이 몇 입니까, 1200마력짜리?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유사한 수준입니다.

○委員長 金鶴松

그런데 왜 이게 거기에 맞추지를 못해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지금 저희가 크랭크샤프트(crankshaft)를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오더 메이드(order made)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리드 타임(lead time)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축이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멍하고 축하고의-직진도라고 하는데요-그 구멍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을 해서 저희가 검사를 정밀히 해서 정밀하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스티프니스(stiffness)가 좀 약해 가지고 크랭크샤프트 자체가 좀 이렇게 변형,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크랭크샤프트는 독일에 같이 납품하는 회사입니까,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저희 사이즈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가 유니크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委員長 金鶴松

설계한 겁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규격 변경을 좀 하다 보니까-금형이라든지 등등 딜리버리(delivery) 이런 것을-그래서 비용의 10배를 주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도록 스케줄링을 해서 10개월 슬리피지(slippage)를 저희가 방안을 낸 겁니다. 이것은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K1A1의 RPM도 이와 비슷하다면 원리는 비슷합니다.

내가 어느 업체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의 굉장히 미래가 담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나 이런 데 국한되지 말고……

이 전차가 제대로 돼야 우리가 수출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시기를 한 1년 내에 빨리 못하면 수출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개발할 수 있는 데를 확대를 해서 얻을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7회-국방제2차 1

2010년2월19日(金)

○劉承旼 委員

파워팩(Power Pack) 관련해 갖고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6월이 되면 중간 단계 확인 시험을 하실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여기서 개발 가능성을 최종 판단하겠다 이러셨거든요. 여기에서 최종 판단할 때 '두산인프라코어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방사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우선은 그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개발한 변속기하고 외제 엔진하고를 결합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봐서는……

○劉承旼 委員

제 질문은 6월 달에 중간 단계 확인 시험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최종 판단이라고요. 그때 최종 판단해서 잘되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만약 안 되면 그 이후의 계획이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차, 차선으로 하고 있는 지금 변속기하고 외제 엔진을 결합해서 하는 방향은 계속 추진하고 개발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劉承旼 委員

4월 달에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기대하고 그 정도로……

○委員長 金鶴松

그럴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제도라는 것은 잘못 고치기 시작하면 방사청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해가 아니라 국민의 손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K-2 전차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K-2 전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크랭크 설게 다시 했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委員長 金鶴松 그러면 그게 이태리 쪽에…… 아, 스페인 쪽에 발주가 나갔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나갔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현재 진단이 나왔으니까 해 나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변속기하고 수입한 엔진하고 해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세요, 나중에 또 변속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鶴松

그렇게 하고 엔진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면 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되, 아까 청장 답변했다시피 만약에 그것이 기한 내에 안 될 때는 수입으로 일부분 대체를 하고,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거 우리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잘 알겠습니다.

제291회-국방제3차 2010년6월23日(水)

○金鶴松 委員

아까 비공개회의에서 제가 죽 보고 이것을 공개해도 괜찮다 해서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K-2전차의 지금 현재 엔진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러면 변속기를 기존 수입했던 엔진하고 같이 해서 실험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주 체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金鶴松 委員

문제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金鶴松 委員

청장, 여기서 한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제가 이틀 전에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하고 체계업체 기업하고 ADD 다 모아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렇다면 뭐 우리가 손뼉을 치고 좋아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종표 위원

K-2전차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사청에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국회 국방위에서 표결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일부 확보시켜 줬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서종표 위원

그런데 2009년도 70억 원이 불용처리됐죠?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리고 금년도도 38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현 상태로 가면 이거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지금 개발하는 과정으로 봐서 9월 말 되면 최종적으로 개발이 거의 성공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정상 뭐 1년 연기됐지만 개발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되지 않고 금년 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종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2009년도에 양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K1A1전차가 이제 전환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2009년도 양산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양산이 되지 않아도 부대 전력에 어떤 전혀 차질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런데 그게……

○서종표 위원

양산 시기를 너무 무리하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고 또 엔진가속기도 고장이 나고 뭐 9월 말에 이제 된다는데 그것도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이런 사업이 추진됐다.

충분한 검토와 또는 시험평가 이런 걸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 했어도 되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또 시기는 늦어지고 또 예산이 불용처리됨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도, 시급한 전력화 요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도? 그런 것도 저해시켰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연구 개발 기간을 5년을 줬습니다. 5년을 줬는데 사실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00마력 디젤엔진, 고속디젤엔진은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독일밖에 없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데 5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짧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계획 단계가 조금 그런 문제도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장비를, 더군다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전투장비인데 장비를 개발하고 또 양산한다고 했을 때 그런 충분한 검증이 끝난 다음에 양산이 돼야 되는데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는 이것을 접근할 때 처음에 독일식 엔진을 장착을 해서 전력화를 시켜 가면서 우리 국산 개발을 병행했으면, 병행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충분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됐을 때 두 트랙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전력 공백도 메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충분한 시간과 이런 검증을 거쳐서 양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최초부터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 아까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디서 결심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TICN 문제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꼭 어떤 문제가 터지도록 모든 것이 되어 있어요. 원래 100개 중에서 99개를 확인하고 딱 하나 확인 안 하면 확인 안 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처리도 한번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유철
서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劉承旼 委員
청장님 K-2는 올해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그렇습니다.

○劉承旼 委員 올해예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정상적으로 가면 금년 12월에 양산 계약을 체결할……

○劉承旼 委員
9월 말에는 성공적으로 개발할 걸로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劉承旼 委員
그런데 이 성능시험이라는 게 성능시험평가 이게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이게 한 1년 이상 뭐 1년 반 정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 가지고 무슨 동절기, 하절기 평가 이런 걸 다 거쳐야 되는데 그 성능시험평가가 다 안 된 상황에서 양산 계약을 체결해도 관계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청장 생각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지금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아니 그런 걸 감안해서 한다는 게 올해 말에 양산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 말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고려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劉承旼 委員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그러면 좀 보도록 하고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동성 위원

그다음에 K2 파워팩 같은 경우에 그 개발 가능성 최종 판단을 6월에 한다고 그러셨지요?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예, 6월 말에 엔진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성 위원 이거 이번에도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거 결국 독일에서 사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 2월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산 변속기하고 외국제 엔진하고 결합해 가지고 지금 수행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엔진 개발이 지연된다면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대처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겠습니다.

293회-국방제1차 2010年8月24日(火)

○金鶴松 委員

흑표 전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흑표는 아마 금년, 지금 1년을 우리가 순연을 시켰는데 1년 순연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그건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은 저희가 7월에 의원 보좌관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해서 그 이후에 한 두 달간 즉 추진이 돼서 그것은 이상 없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학용 위원

파워팩(Power Pack) 수입대체 해야 된다는데 실패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K-2 전력화 예산 편성에 대한 대비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내지 그동안 굉장히 국방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요. 이것이 파워팩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화가 되지 못할 경우 여기에 대한 양산 계획 시나리오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실패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지금 현재 엔진하고 변속기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올해 내에 엔진이나 변속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012년부터 계획된 초도 양산화 계획은 차질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학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2007년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미 흑표전차에 대한 예산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 2009, 2010, 3년 동안 계속 배정만 되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세 번이나 연기되면서까지, 지금 또다시 이번에 연말까지 이게 안 된다면 수출 문제도 있고 기술료 문제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잘 될 거라는 그것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3년째 이렇게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원인,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 이것 분명히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remind)시키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파워팩 제조업체인 두산DST와 SNT대우와 엔진변속기 개발 완료 일정과 품질 조건에 대한 약속서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예, 이게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그렇다마는 앞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응징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이게 장관하고 청장한테 같이 물어야 될 부분인데 오전에 제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흑표전차 문제요, 조금 전에 신학용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엔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엔진에 대해서는 방향이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 했지요? 엔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엔진을, 수입한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 엔진으로 변속기에 대한 것을 미리 시험을 하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엔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변속기 문제가 생기면 또 시간…… 전력에 차질을 빚으니까 변속기에 대한 시험을 수입한 엔진으로 대체해서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변무근 청장의 당시 얘기는 하고 있었답니다.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데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또 이제 변속기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기 때문에 9월까지의 해결이 된다는데, 해결이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장수만

지금 현재 보고받은 바로는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결합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보완이 돼 가지고 9월 중순부터는 전체적인 시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제가 보고를 받은 것하고 청장님 견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장관님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전력화 시기, 중요합시다마는 복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 전력화 시기 1~2년이 좌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서 국산화로 만들어 간다면, 이것을 충분히 다시 개발을 하고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전력화 시기에 쫓겨 가지고 또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장관님하고 청장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294회-국방제4차(부록)(2010년11월11일)

K2 전차는 2010년 382억 224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1년 예산안은 409억 8100만원.

2010년 9월 ~ 2011년 8월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

○방위사업청이 정부안으로 제출한 총 34개 핵심부품 개발 과제 이외에도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30여 신규과제 지원소요를 산출하였다. 이 30여 개 신규과제에는 해외 도입 부품의 단종 예상품목과 T-50 고등훈련기, K-2 흑표전차 등의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장수 위원이 흑표전차의 경우 엔진 제어장치인 ECU변속제어장치 TCU의경우 내장형 소프트웨어 기술의 부족 때문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조치안로 후 정상추진 중인 장비 - K2 전차 : 정상적 개발 추진 중(파워팩 통합 시험평가, 11. 9~12. 4)
(청장답변서)

FY2011

제298회-국방제2차(2011년3월7일) 1

○정세균 위원

원래 이 K-2 전차가 세계적인 명품전차다,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내놓은 그런 제품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렇습니다, 예.

○정세균 위원

이게 연구개발이 2003년도부터 8년까지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이 끝났을 때는 이 전차의 성능이라든가 국제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명품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당시 2008년에 연구개발을 끝냈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워팩 이게 국산이 아니고 독일제 그것을 장착해서 연구개발을 완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기는 문제는 파워팩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것입니다.

○정세균 위원

그런데 엔진은 2005년도부터 개발하신 것 아닙니까? 파워팩도, 우리 국산도?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게 좀 늦게 착수가

됐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 그래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정세균 위원

그러면 늦게 착수를 했는데, 결국 양산할 때는 국산을 장착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한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의사결정이 초도분은 수입 파워팩을 하자고 당초에는 결정이 됐던 것인데 그게 중간에 초도 양산분부터 국산을 쓰자 이렇게 의사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국산 개발을 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세균 위원

K-2전차가 일부에서는 과잉 전력이고 원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또 향후 미래전에서 지상무기의 비효과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증 후에 완전 국산화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으셨다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니,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런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이 있다면?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까지는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소요 문제, 전차의 적정 성능 문제라든가 소요 문제는 저희 방위사업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물량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 청에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없습니다.

○정세균 위원

지금 파워팩에 품질 문제가 생긴 게 이번이 첫 번이 아니고 재발된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2009년에 문제가 돼서 그간에 결함을 즉 시정을 하고 소위 개발시험평가라는 것을 진행하다가 작년엔 이 엔진 과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나온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균 위원

방위산업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다 면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현재는 K-2전차를 양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파워팩 문제는 엔진과 변속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진 변속기의 정상적인 계약에 나타나 있는 납품 시기 이후부터는 지체상금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성공할 때까지.

○정세균 위원

오늘 현재 변속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그전까지 엔진 변속기 문제를 해결해 오다가 작년에 엔진 과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시험평가를 진행해 오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그 문제를 시정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직 그 결과 검증은 안 했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지난 3월 2일, 3일 양일간에 실제 그 생산업체를 기술진이, 외부 교수, 전문가, 전부 내려가서 성능 입증 을 해서 엔진 과열 문제가 해결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직 그 결과 검증은 안 했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지난 3월 2일, 3일 양일간에 실제 그 생산업체를 기술진이, 외부 교수, 전문가, 전부 내려가서 성능 입증 을 해서 엔진 과열 문제가 해결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

다시 검증을 해 봐야 되겠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외국산과 비교도 하면서 아주 정밀 하게 성능을 재검증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파워팩을 해외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네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 그 문제는 국산 개발을 전제로 시험평가를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시험평가가 다 끝나고 성공적으로 개발 이 되면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화 시기를 당초 예상한 대로 12년으로 맞추려면 수입 파워팩을 써야 되고 다소 늦춰서라도 가자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고……

○정세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K-2전차와 관련해서 협력업체나 그 협력업 체에 종사하는 종

업원들이 매우 많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한 1500개 업체 정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러면 이 협력업체들이 다 미리 선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정세균 위원

이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산이 지연될 경우에 협력업체들의 경영에는 별문제가 없 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일단 양산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을 검토할 때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 가동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를 해서 대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협력업체들의 경영에 주름살이 가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사청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로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아마 협력업체들을 육성하는 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력업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금년 전반기에 방산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방사청에서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건지 실제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사실 청이 가지고 있는 지원수단이 그렇게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산육성자금 이것을 지금 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 용자 규모가 한 350억 됩니다. 저희가 이 방산육성자금 신청을 현재 3월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2전차 관련된 협력업체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전부 홍보를 해서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이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지연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기계화사단이 트럭만 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온 이번에도 실패하면 방위사업청이 정말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그런 각오로 사업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太平 委員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방사청장도 같이 듣고 연구해 달라는 말씀으로 ADD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사청장에게 아까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를 해 준 내용입니다마는 K-2전차와 관련해서 아주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계약체결을 했대요. 무엇이냐 하면 K-2전차의 초도양산 계약에 대한 방추위 심의가 2010년 12월 17일에 있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沈太平 委員

그리고 K-2전차 초도양산에 대한 계약은 12월 24일에 완료가 되었지요?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그렇습니다.

○沈太平 委員

그런데 그 안에 2010년 12월 6일 날 엔진 손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합동조사팀이 8일 날 구성이 되어서 12월 8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沈太平 委員

그런데 어떻게 K2-전차의 양산계획에 대해서 방추위 심의와 초도양산 계약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것은 방추위 보고 내용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산 파워팩이 성공을 하면 전력화 시기를 늦춰서……

○沈太平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무슨 가정을 가지고 양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국방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추위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적어도 계약 책임을 맡고 있는 방위사업청에서 이런 양산계약을 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걸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12년 전력화 시기를 정해 놓고 국산 파워팩이 진행이 안 되면 수입 파워팩을 하되 12년 초도양산을 한다 이런 의사결정이었고 그런 사실이 방추위에서 의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파워팩을 쓰더라도 국산은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 검토도 하고 그게 문제 해결이 되면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런 과정이 의사결정이 된 것입니다.

○沈太平 委員

지금 실제로는 이 파워팩 연구개발은 실패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니, 아까……

○沈太平 委員

아직은 그래도 미련이 남았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다른 위원님 보고 과정에서 지난 3월 2일, 3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으로 난제인 이 문제 검토를 했습니다.

○沈太平 委員

일단 아까 비밀 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초기 개발계획에 투자되는 것은 해외에서 파워팩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그 자체에 대한 것을 한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沈太平 委員

지금 현재는 그런 쪽에서 초기양산에 대한 파워팩 조달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지금까지는 그렇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 검토를 해야……

○沈太平 委員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재정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아직은 정확히, 수입 파워팩의 구매가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 견적가로 보면 한 300억, 5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太平 委員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파워팩이 국산화되고 고급기술이 개발돼야 다른 방산업체의 제품이 해외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K계열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무기에 대해서 믿고 구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파워팩을 어떤 형태로 탑재하든지 간에 반드시 국내개발이 성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에서 연구개발한 투자가의 70% 이상은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대는 돈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체상금을 물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상금을 물면서 생길 수 있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검토한 게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저 방사청에서 방위산업에 어떻게든지 계약만 하면 돈 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을 잘못하면 업체가 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단순한 신뢰 실추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沈太平 委員

더 필요한 자료는 내가 서면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鶴松 委員

김학송 위원입니다.

박창규 ADD 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방사청 차장님, 우리 위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K계열, 우리 명품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무기 연구개발 주관하는 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서 신뢰도 회복하고 우리 군의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鶴松 委員

더 큰 문제는요, 저는 조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한, 그게 명품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계약만 했는데요, 나는 이것만 담당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청장이 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져야, 앞으로 책임을 반드시 진다는 그게 있어야 문제점이 없도록 계약도 하게 되고 개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청 자체가 그렇게 그 기능을 서로 분담을 하는, 투명성 차원에서 어느 한쪽에 다 지우지 않는 그런 조직 출범 자체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희 기업 또 저희 청 이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에 문제를 규명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부는 있고 사업이 종료된다면 규명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劉承旼 委員

차장께서 기재부 계시다 오셔 가지고 무슨 수출 경쟁력,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광승준인가요, 미래기획위원장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도 보면 자료에도 보면 무슨 뭐 방산을 수출산업으로 만들고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방산의 M&A를 하고 어찌고저찌고 이런 꼭 어디 기재부 문건에 보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두 가지 목표도 아니고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기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능이 좋고 고장이 안 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유일한 목표고, 수출산업이니 뭐 방산으로 지금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K계열의 고장이 그만큼 열심히 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디 무기를 팔아먹어요?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그런 영터리 무기를 만들면서 무기를 누구한테 팔아먹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차장께서 담당자는 아니지만, 흑표 이것도 보세요. 흑표 파워팩 가지고 전임 3명의 방사청장이 국회에 와 가지고 3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양치규.변무근.장수만 방사청장 3명이 국회에 와 가지고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 계속 '파워팩 곧 다 됩니다. 곧 해 가지고 곧……' 3년 동안 거짓말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이게 뭘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하여튼 그런 국산장비의 결함이 없도록 하고 결점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경쟁력 갖춰 간다 그런 말씀……

○劉承旼 委員

그러니까 무슨 K계열이니 국산화니 국내 개발이니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미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기는 어느 나라에서 구입을 하든 성능이 좋고 고장이 안 나야죠. K-11, K-21, 무슨 K-9, K-2…… 이거 전부 다 뭘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제까지 K계열로 이렇게 실컷 정말 영터리로 개판을 쳐놓고는 이제부터 또 하는 게 전부 다 또 국내 개발이에요. 글로벌 호크 빼놓고는 차기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도 국내 개발, 공격형헬기도 국내 개발, 보라매도 국내, 다 국내예요. FA-50도 또 T-50을 갖고 연구 개발을 4000억이나 해 가지고 또 2조 8000억 들여 가지고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국내 개발이에요.

그래 가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전쟁이 나 가지고 북한군은 재래식 무기 가지고 빵빵 쏘는데 우리는 첨단무기 가지고 전부 다 고장 나 가지고 전쟁 못 치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통령께서 왜 T-50 수출에 그렇게 목을 맬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국방부고 방사청이고 전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그 돈으로 수입하겠어요, 수입. 고장 안 나는 미제 무기 수입하자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金鶴松 委員

김학송 위원입니다.

K-2 전차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방사청에서 사소한 문제가 몇 개 있으나 그러나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냉각팬 rpm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고 다행히 지난 3월 3일 날 S&T 현지에 가서 5400rpm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해소가 됐다 하니까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계속 구동장치 연결하고 시험운용평가하고 하는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군에서도 전력화의 차질 문제가 따라지고 나중에 방추위에서도 심의를 할 적에 이것이 국내 개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해외 직구매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리로 가지니까 국내 개발한 중소 업체들까지 부담이 가고 저리로 가지니까 또 전력화에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만약에 냉각팬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어때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가 판단할 때는 냉각팬, 엔진의 과열 문제 해결하는 냉각팬 적정 속도 문제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부딪힌 기술적인 최대 난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앞으로 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개발시험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결함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金鶴松 委員

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지 모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하여튼 아주 큰 위험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래서 문제없이 우리 국내 개발로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저는 방사청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K-1 전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역시 1200마력짜리에 대한 엔진을 우리 실력으로는 개발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구매를 하기로 하고 후에는 우리가 양산하는 체계로 기술이전 요구를 해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K-1 전차는 지금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개발해 가지고 1200마력짜리가, 기술이전도 완전히 되었고.

그런데 K-2 전차 1500마력짜리를 계약함에 있어서 역시 처음에 구매를 하면서 이것을 기술이전 조건으로 MTU사와 계약이 되었으면 될 텐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 그냥 개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저희가 국산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수입 파워팩을 초도양산까지 쓰고 2차 양산부터는 국산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것이 특정 계기가 있어 더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략을 세울 때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저는 기술이전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500마력짜리 MTU사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사청, SSM에서 공문 온 내용 차장 알고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알고 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추가 기술지원 요구와 함께 4500만 불에 달하는 계약의 일부를 파기하고 경험 있는 제3자의 기술 지원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용을 죽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金鶴松 委員

그렇다면 결국 MTU사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관련이 직접 있는 문제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제298회-국방제2차(부록)(2011년3월7일) 1

(질의서)

.정의화 위원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 관련

○'명품무기'로 꼽히던 차세대 전차 K-2 (흑표) 전차의 양산이 반복되는 엔진과 변속기 결함으로 수입이나, 국산 개발이냐의 기로에 서 있음.<사업개요>

: '05~'11년간 725억 원을 투자하여 K2 전차양산 시 탑재할 1500마력 엔진/변속기를 업체

주관으로 각각 연구.개발하는 사업

* 엔진 : 511억 원(정부 : 378억 원, 업체 133억 원), 변속기 : 463억 원(정부 : 347억 원, 업체 116억 원)

<사업 추진 경과>

- 엔진/변속기 시험개발계획 승인(국방부 연구개발관실) : '05. 2

- 설계, 시제개발(예비→기본→완성) : '05~'08

- 개발시험평가('09. 2~'10. 8) 착수 : '09. 2

.엔진결함(구동계 베어링 소착) 발생/ 시험중단 : '09. 11

.엔진 보완 개발 : '09. 12~'10. 9

.변속기 성능 검증 시험 : '10. 1~9

- 개발/운용시험평가('10. 9~'11. 8) 재개(국산엔진+변속기) : '10. 9

.파워팩 시험 중 과열에 의한 엔진 손상 발생 : '10. 12. 6

차장, 지난 3월 4일 시험평가에서 문제가 되었던 변속기의 냉각 기능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아는데, 비록 파워팩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남은 평가 항목들(기동성 시험, 9600km 내구도시험, 운용시험 평가 등)에서다시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음.

만약 다시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청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K-2 전차는 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무기로 핵심 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방산 수출의 기대주로 촉망받아 왔음.

실질적으로 우리는 터키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터키와 약 3.3억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음. 하지만 파워팩을 수입할 경우 흑표 전차는 결국 '반쪽짜리 국산'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이는터키와의 수출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러한 우려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내일신문, 2011년 2월 16일), 결국지난 3월 4일 이러한 우려대로 터키 방사청이 최근 우리에게 K-2 전차에 대한 계약 내용 일부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음.

차장, 터키 방사청의 계약 내용 일부 파기가 파워팩 국산 양산 실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인가?

만약 향후 국산 파워팩에 다시금 문제가 되어 수입을 해야 한다면, 협상에서 해외 업체 주도권 보유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 방사청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터키 방사청(SSM)이 최근 한국이 터키에 수출기로 한 흑표전차에 대한 계약내용 일부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터키 측에 추가 기술이전 등을 제안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SSM은 지난 1월 17일 방사청에 흑표 기술 이전 계약 중 일부를 수정하고 싶으며 동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또 성공적인 전차 개발사업을 위해 제3국의 기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측 전차관련 기술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방사청은 터키에 수출기로 한 흑표의 개념설계(제품 본설계 전 제품의 전체적 구조와동작메커니즘, 대략적인 크기 등을 정하는 작업)를 지난해 4월 15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전차의 생존성 분석 및 전면방호 문제해결이 지연되면서 9월 24일에야 개념설계를 마쳤다.

이에 터키 측은 제3국을 통해 생존성 분석, 동력장치, 전자장치, 현수장치,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아

고 제안했다. 터키는 독일의 MTU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정부는 2월 10일 터키에 합참과 방사청, 방위사업체 관계자 등을 파견해 미흡분야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2월 말까지 제출키로 했고, 터키 측이 동의하면 현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세부 지원계획이 완성돼 터키에 보내졌고, 터키 측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민일보, 2011년 3월 4일 기사 중>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K-2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조립한 파워팩의 동력장치를 시험평가했음.

이때 엔진은 과열 시 엔진보호 온도 설정 오류로 엔진 보호에 실패했고, 변속기는 엔진 최대속도에서 변속기 냉각팬 회전수 부족(5400rpm 필요하지만 실제 2500rpm)에 의한 냉각기능 미흡으로 엔진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음. 차장, 이 과정에서 지난 12월 시험 평가에서 변속기 생산 업체인 S&T 중공업에 당초 계약서에 없던 규격 외 시험평가항목을 추가했다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왔는데, 사실인가?

파워팩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흑표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를 조립한 파워팩의 동력장치 시험평가다. 이때 엔진은 과열시 온도 설정 오류로 엔진 보호에 실패했고, 변속기는 엔진 최대속도에서 냉각팬 회전수 부족으로 냉각기능이 미흡해 엔진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다.

원인분석팀을 구성해 엔진 과열의 원인을 진단한 방사청은 엔진 생산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엔진 자체 온도제어장치를, 변속기 생산 업체인 S&T중공업에 대해서는 냉각팬 속도제어를 원활하게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S&T중공업에 당초 계약서에 없던 규격 외 시험평가항목을 추가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엔진 회전수 3000rpm 에서 오일 최대유량 급속 공급 시 냉각팬 최대속도를 확인하는 비규격 시험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독일도 채택하지않고 있다.

<내일신문, 2011년 2월 23일 기사 중>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K-2 전차의 문제가 국방위에서 언급될 때마다 방사청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국내 기술로 충분히 양산 가능하다고 자신해 왔다는 것임.

하지만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꿔서 수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입장이 바뀌었는가?

(방사청은 작년 10월 'K-2 전차 중간평가보고서'에서도 K-2 전차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문제가 된 전차의 파워팩이 이상 없이 작동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파워팩의 엔진과 변속기 기능에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전력화 시기를 고려한 수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방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방사청의 문제점 개선 가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결국 전력화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음.

○본 위원은 정부의 정책, 특히 국방 정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음.

K-2 전차의 경우도 지금까지 방사청은 국내기술로 양산 가능함을 주장해 왔고, 정부가 내세워온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무기체계 국산화 정책을 위해서도 K-2 전차의 성공은 중요함을 강조해 왔었음.

뿐만 아니라, 3월 4일 시험평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나왔기에 성급히 파워팩의 해외 도입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

다만, 파워팩 국산화가 실패했을 경우 수입 파워팩을 들여오는 경우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산 파워팩과 수입 파워팩에 대한 정밀하고도 반복적인 비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당초 계약서에 없던 규격 외 시험평가항목을 추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는데, 사실인가?

○이 시험 항목은 국과연과 업체가 합의하여 반영된 항목으로, 개발 계약 시 파워팩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차장 주관('11. 2. 20.)으로 국과연, 개발 업체가 참석한 토의를 통해 반드시 입증필요한 시험항목을 재확인하였고 업체가 동의 하였으며

○이에 따라 3월 2일~3일간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파워팩 시제 개발 계약('05. 8. 31)의 계약일반조건(제25조 기타 가항)

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조건, 적용규격, 세부사업수행계획서상 기술되지 않은사항이라도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 “을”은“갑”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독일 파워팩의 5400rpm 도달보고서('06. 3. 8) : S&T중공업 「차기전차 동력장치 성능시험 평가지원 결과 보고

서」(용역결과 보고서)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꿔 수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입장이 바뀌었는가?

○작년 12월 6일 파워팩 결함 발생 이후 청에서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해외 파워팩을 추가적인 대안으로 검토해 왔으며

○작년 12월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도 국산 파워팩 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2년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한 대안으로 해외 파워팩 도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산 파워팩 개발 가능 시기, 전력화 시기, 성능 발휘 보장, 업체 경영난 최소화 등을 고려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시험평가에서 문제가 되었던 변속 기의 냉각기능 문제가 해결이 된 걸로 아는데, 만약 다시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청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국산파워팩 개발은 총 7단계 중 3단계를 진행 중인데, 금번 시험결과는 중단되었던 3단계 (파워팩 개발시험 : DT)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지적하신 대로 향후 개발과정에서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터키에서 기술 수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파워팩 국산 양산 실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가?

○터키의 기술 수출 파기는 사실이 아니며,

○터키 측에서 자국 시제전차에 제3국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국산 파워팩이 다시금 문제가 되어 수입을 해야 한다면, 협상에서 해외 업체 주도권 보유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이에 대한 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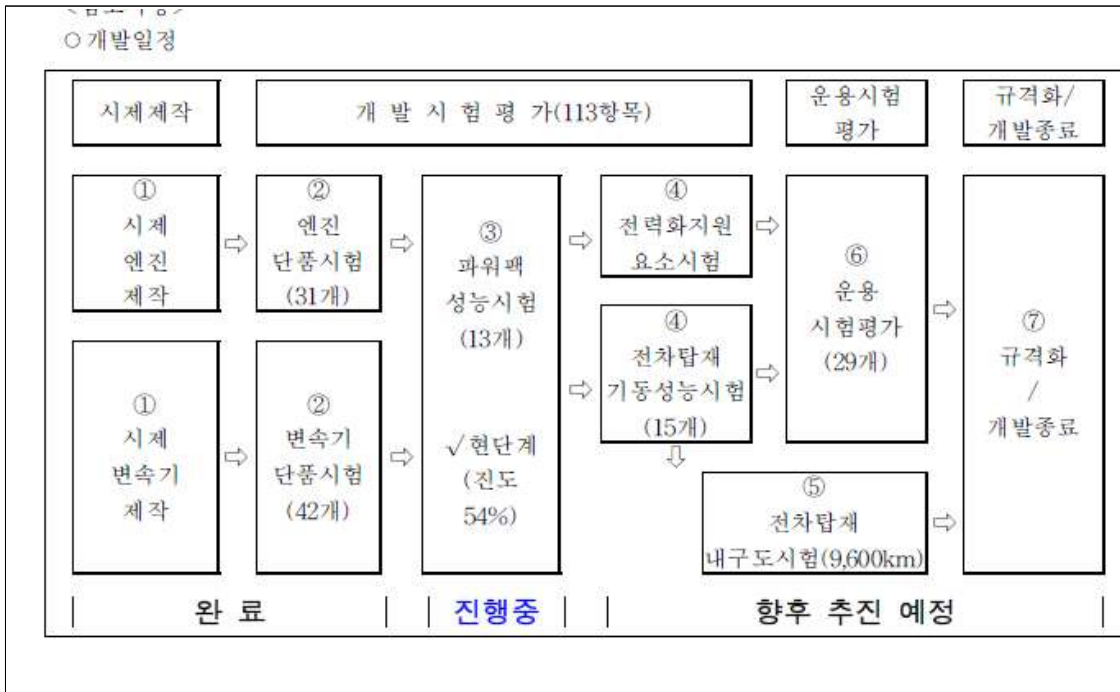
○국산 파워팩 개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만약 수입을 해야 한다면 협상 전문가를 활용하여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산 파워팩과 수입 파워팩에 대한 정밀하고 반복적인 비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해외도입 파워팩은 K2 전차 개발 시에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이 입증된 바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3월 중순에 국산 및 해외 도입 파워팩의 비교시험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하여 국산 파워팩의 개발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제299회-국방제2차(2011년4월13일) 1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2 전차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2 전차 사업입니다.

K-2 전차는 파워팩 결함이 발생해서 양산사업이 순연된 이후에 2011년 3월 파워팩 냉각 성능팬 제어 성능 결함을 보완해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고, 초도양산 계획 수정안에 대한 방추위 심의를 거쳤습니다.

방추위 심의 시에는 국산 파워팩을 계속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하되 금년 10월에 다가오는 개발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내년 3월에 실시하는 운용시험평가 시 중대 결함이 발생할 때에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부기하였습니다. 향후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라이브한 거 같아요, 보니까. 언제까지 전력화가 안 되면 해외 도입을 하고 국산화하겠다, 이렇게 너무 라이브하게 하다 보니까 일의 진척이 좀 더디다고 그럴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이번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그쪽에서 국회에서 나와서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난 개발하는 업체가 문제를 지적했던 거는 해결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파워팩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해서 10월까지 한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때 하는 추진 상황을 또 보자 그래서 국내 개발을 최대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해외 도입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제 파워팩 개발은 꼭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009년 10월 달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미, 청장님. 2009년 10월 달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전력의 공백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발생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도 위원회 할 때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참하고 군에서 지금 한 1년 정도면 국산 개발을 하는 거를 좀 용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안규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유철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沈太平 委員

본 위원이 지난 3월 7일 방사청 전체 보고를 받을 당시에 K-2 전차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관련된 방산업체의 행태를 주목해 보면 연구 개발 성공 여부와 성공 시점에 대해서 확신 드는 게 없다. 뭘 하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몇 번씩 연기가 됐으니까.

두 번째, 파워팩 국내 연구 개발과 이에 따른 K-2 전차의 초도양산 계획이 실패한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지적이었고.

세 번째는 이러한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최적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보고 받았습니다.

○沈太平 委員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沈太平 委員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1200개에 달하는 K-2 전차 양산에 참여하는 업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계속 지연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보완해 줄 생각은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소기업체라든지 이런 관련 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능이 검증된 해외 도입 파워팩을 먼저 적용해서 계획된 물량을 전력화하고 그다음에 300여 개의 파워팩 개발참여업체의 경우에 개발시험평가 기준과 운용시험평가 기준에서 충족이 되면 초도양산에 참여를 시키자,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추위 심의가 사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심의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2010년 12월 8일 날 국과연하고 기품원 그리고 학계.전문가.업체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2011년 1월 11일 방사청에 결함원인 조사보고를 했는데 이때 개발기간 20개월 연장안을 건의한 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산 파워팩 적용을 아주 쉽게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방추위에서.

그리고 시점도 맞지를 않아요. 방추위 결정 시점이 이런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3월 24일 방추위 시에 국과연에서 소장의 의견을 제시한 것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沈太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흡한데, 우선 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데 대해서 방사청장 의견을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냉각팬이니 이런 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런데 3월 달에 테스트 기간을 줬는데 3월 달에 보니까 그게 성능기준을 또 만족한 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沈太平 委員

왔다 갔다 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함의 주요 원인이 해소됐는데 지금 해외 도입으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해 버리면 이게 논리가 맞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다음 그 후속까지 해서 10월까지 최종적인 개발시험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고 그게 바람직하겠…… 아마 방추위 할 때도 위원들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沈太平 委員

왜냐하면 합동조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방추위가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조사가 금년 1월 11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방추위가 12월 24일 날 초도양산을 계약을 완료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沈太平 委員

이건 누가 봐도 상식 밖의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파워팩의 결함이 재발된 것이 금년 들어와서 몇 번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개발시험과 운용시험에서 통과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방추위가 또다시 이런…… 물론 조건부라는 것을 달아서 10월까지 했지만 만약에 그때도 또다시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다음에 1년을 허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이번에 부가한 조건은 해석의 조건이 아니고 그때 합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조건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조건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沈太平 委員

그러니까 방산업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제가 볼 때는 개발하는 데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결함을 다 해소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 세금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건데 긴급적이면 국내 구매로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沈太平 委員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양산체제로 갈 때에는 국산 파워팩이 개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업체의 신인도가 떨어져 있고, 이런 방산업체가 방위산업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체상금이나 계약해지나 이런 문제가 별로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위사업청의 업무 추진이 아니면 이런 관행을 쉽게 깨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오늘 보고한 현안과제라고 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다 걸쳐서 이루어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밖에서 보는 경제성 평가하고 안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평가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沈太平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沈太平 委員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정의화 위원

노대래 청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중략)

제가 오늘 보고를 보니까 초도양산 분에 대해서는 K-2 파워팩 적용을 10월까지 개발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는 2012년 3월 한 운용시험평가 중간점검 결과 중대 결함 발생하게 되면 해외 도입을 고려한다 뭐 이런 전환을 추진한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어떤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군의 전력화 시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개발할 때는, 전력화 시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전력화를 하려고 해도 개발할 능력이 안 되면 전력화가 못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지금까지 진행될 때 참여한 업체들의 경제적인 이것은 뭐 주변 사항으로 고려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는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다 믹스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화 위원

경제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점검을 하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R&D 투자를 엄청 해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우리의 수요의 양이나 또는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수출의 전망이나 이런 등등을 보고 판단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처음에 무기소요 판단할 때, 경제성 문제는 그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국내 개발할 거냐, 국외도입할 거냐 이런 판단을 할 때 국내 수요도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해외 수출 수요도 별로 없다든지 그런 경우는 국내 개발보다는 오히려 국외도입 쪽으로 결정하고……

○정의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판단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기존에 개발된 다른 어떤, 같은 K-2전차라면 그 유사한 다른 전차보다도 성능이 떨어진다면 전쟁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성능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능에 대한 자신이 확실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게 개발하려면 사실은…… 언론에서 보면 ‘군에서는 너무 높은 수준의 성능을 요구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기 맞추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들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에서는 필요한 희망 성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방위사업청 이런 데서 사업 관리를 할 때 ‘이 정도는 지금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정의화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게 부족해서 이런 문제……

○정의화 위원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파워팩 만들어 내는 데 연구기간까지 해서 13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3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에 독일 이상의 수준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성능의 문제 이런 판단에 있어서도 과거에 방위산업 관련자들, 관련 관료들의 마인드가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겠느냐 하는 의문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라는 것은 늘 틀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성능 문제나 아까 말한 그런 전력화 시기 문제나 경제성 분야 따져 봤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아예 정말 최고의 성능을 가진 파워팩을 수입을 해서 우리가 생산할 거냐, 아니면 미래성이 분명히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R&D 투자를 해 가면서 동시에 초도 양산분 뭐 100대면 100대에 대해서는 우선 빨리 구입을 해서, 그렇게 두 트랙으로 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새 청장이 오셨으니까 새 마음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정의화 위원

그러시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 18일 날 취임해서 가지고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4일에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보고를 하셨던데, 이 개편안은 오시기 전에 대개 정리돼 있던 거였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짧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간에 네 번에 걸쳐서 조직진단하고 이런 보고서가 청 내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현실에 맞

계……

○정의화 위원

그래서 문민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은 양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복지도 앞으로 큰 문제고 안보도 큰 문제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301회-국방제2차(2011년6월14일) 23

주요 현안 사업으로 K-2 전차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2 전차 사업입니다.

국산 파워팩 결함과 관련하여 금년 3월에 냉각팬 성능 결함을 보완하였으며, 10월까지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5월 말 현재 9억 2000만 원으로 정산 시 최종 금액을 계상할 예정이며, 관련 책임자는 지체상금 부과 시점에 문책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개발시험평가를 한 후에 성공 여부를 판정하며 2012년까지 운용시험평가 및 규격화를 완료해서 13년부터는 전력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국방제2차(부록)(2011년6월14일) 11

○K-2흑표전차 엔진을 만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70억 원 부당청구 사건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 여부, 접수 시기, 사전 인지 여부, 관련 예산 등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두산인프라코어의 70억 원 부당청구 사건 관련 조사 결과(의결서)를 지난 5월 31일 받았 습니다.

* 이첩 주요내용 :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일부 인정되므로 대검찰청 수사 및 방위사업청 자체조사 후 부 당이득금 환수 등의 관련 조치요구

○동 사건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내부자 신고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극비리에 조사한 결과로서 사전에 인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K-2흑표전차 엔진개발 사업예산은 두산인프라코어 자체 투자금 133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1억 원(정부투자금 378억 원)입니다.

- 정부투자금(378억 원)은 14차례에 걸쳐 303억 원(90%)이 집행되었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 '11. 6. 10일부터 검찰(인천지검)에서 수사 진행 중

○두산인프라코어의 70억 원 부당청구사건 관련 방사청의 입장

- 조치내용 및 검찰 수사개시 여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검찰수사(인천지검)

는 '11. 6. 10일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에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및 부당 이득금 환수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① 두산계열사 사장 등 8명이 사법 처리된 것 이 맞는지?

② 원가부정행위방지법 등이 있었다면 두산인 프라코어는 어떻게 되었겠는지?

③ 범죄를 저질러 나오는 이득이 벌칙보다 크 기 때문이 아닌지?

④ 원가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 법은 무엇인지?

① 업체에 확인 결과 2009년 해군 고속정 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두산계열사 임직원 8명이 사법 처리되었음을 확

인하였습니다.

② 원가부정방지법이 있었다면 2009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상 당부분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③ 원가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 부정행위가 적 발되었을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 상당의 과징금 징수, 삼진아웃 등 이득보다는 벌칙이 크다고 생 각합니다.

④ 원가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 법은 가능한 경쟁 계약을 확대하여 시장기능이 작동되게 하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 해서는 원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02회-국방제1차(2011년8월18일)

○수석전문위원 권기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K-계열 무기의 전력화사업 검토 문제입니다.

K-계열 무기의 전력화사업은 결함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요 군에 인도 후 실제 운용 과정에서도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먼저 K-2 전차사업은 엔진과 변속기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K1A1 전차사업은 10년도에 예산현액 2300억 원 대부분을 집행하였으나 10년 초에 감사원이 변속기의 내구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납품 중지가 되었고, K-21 장갑차사업은 수상 도하 중 침수사고로 10년도 인도물량 중 절반이 납품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사업은 전력화 이후 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K-11 복합형소총사업은 10년도 양산 준비 과정 등에서 화기 부분과 사격통제장치에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하여 계획된 물량 대부분이 납품 중지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계열 무기의 국산화 정책이 총체적으로 결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소요 군이 요구한 작전운용성능을 구현해 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검독수리-A 전력화 지연 문제입니다.

고속정을 대체하는 검독수리-A사업은 10년도에 국내 개발된 워터젯 추진기의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함정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직진 안정성 개선을 위해서 조항버킷 형상을 변경하여 이를 교체하였고, 직진 안정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금년 6월에 함정을 소요 군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베어링의 윤활유에서 철 성분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함정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303회-국방제6차(2011년11월2일) 1

○김장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목하고액수만 이야기합니다.K-2 전차는 파워팩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최종결정하게 돼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결정되더라도 K-2 전차는 가게돼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요. 그게 결정이,국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하고 관계없이 가도록돼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외제를 쓰느냐, 우리 국산 개발품을 쓰느냐 그 문제지.그런데 요구 예산에 비해서 연부액을 왜 그렇게 적게 편성했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할 때는 하청업체한테 필요한 돈 정도까지는 들어갔다 그렇게됩니다. 원청업체한테 필요한 돈은 아직 덜 들어갔지만 중소 하청업체에 들어갈 돈만 넣어 있다.이것도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

다.

○김장수 위원 어차피 양산은 늦춰서는 안 되는거니까 연부액을 한 500억 정도라도 더 추가해서최초에 국방부에서 요구했던 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KHP 후속 양산도 연부액을 왜이렇게 적게 편성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지금 필요성은 알지만다 그게 재정 상황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장수 위원 그러면 선 투자한 업체들은 어떻게 하라고?(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위사업청장 노대래업체들이 그러니까……하여튼 선 투자한 업체들은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업체들은.

○김장수 위원 국가가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손해 안 보도록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K-2 전차 양산을 멈출 수가 없다면.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구체적인 것은 소위에서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K-2전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계셨고 존경하는 김장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3월과 4월에 K-2전차와 관련돼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그때 첫째는 우리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해야 되고, 둘째로는 K-2전차의 양산에참여하는 1200개 업체의 가동률을 유지해서 경영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세번째는 성능이 검증된 해외도입 파워팩을 적용하고 연도별 물량을 조정해서 계획된 전력화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 300여 개의 파워팩 개발 참여 업체의 경우 향후 개발시험평가기준과 운용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초도양산 이후 전력화 사업에 참여케 하는 방안 등으로 도산을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즉 보고를 받아보니까 납품 지연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린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1400개의 K-2전차 협력업체의 재정난이 심각하고 여기 종사자만 봐도 4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납품 지연으로 도산 위기에 내몰려 있는 중소 협력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데서 경영난을 겪고있는 부품생산 중소 협력업체에 현금으로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170억 원을 미리 지원해서20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청장께서도 확인한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1400개 업체에 대해서 200억 원의 협력업체 지원이 현대로템만 가지고는…… 몇 개업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여하튼 부품생산 업체가 1400개이면 이런 부분에대해서 지원 규모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나 또는 현대로템에 선지급이나 이런것을 청장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초도양산도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 초도양산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해외 파워팩을 도입해서라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저희가 한 3000억을 요구했더니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천오백 몇십 억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조금더 넣으면, 지금 2500 이 정도 가지고는 하청업체, 중소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되지만 사실원청업체에 지원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大平 委員 중소기업체가 죽으면 가장 중요한 게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대기업 죽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체줄 것만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증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沈大平 委員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진삼 위원 예를 들어서 탄약, 화학 뭐 이런것 있지요?그러면 독과점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원가 계산도 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 확실히 한다는 것, 시스템…… 그동안 청문회도 하고 많이 했지요, 그런 문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이진삼 위원그것을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없어요.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여러 가지 무기를개발하는 데…… 여러분, 알고 있지요? 지난번에한참 얘기되던 흑표 문제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이것 또 얘기 않겠어요.이것이 파워팩 문제 때문에, ‘파워팩, 파워팩’해 가지고…… 나는 이것이 참, 현장도 가 보고전부 했는데 파워팩 이것이

나는 잊어 버려지지않아. 언제쯤 잊어버려도 되겠어요?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언제쯤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확실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마 지금 이번, 어제까지 1차 개발시험평가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이제 내년 8월까지 운용시험평가를 하는데일단은 내년…… 겨울, 동절기에 한 평가 가지고최종 판단을 내려고 그러합니다. 내년 3월이면 다끝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3월, 3월 하는데 3월은매년 돌아옵니다. 이게 언제쯤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내년 3월입니다.

○이진삼 위원 선수끼리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다음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징수 문제가 연마다 상당히 다른데 금년에도, 퍼센트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해 놓으면 업체에서 우리도 억울하다고 방사청 상대로도 거꾸로 소송이 들어오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이진삼 위원 그래서 자꾸 지연되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이진삼 위원 그러면 방사청에 법률 문제를 다루는 해당 변호사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군법무관들이 많이 있고요, 한 20명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의 변호사도 필요한 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법무관도 법무관이지만 지금 법쪽의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경제 전문가……하도 경제사범이 많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 데려다가 검사.판사 시켜요.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낫지 괜히 법 쪽만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해 가지고요,이 문제는 명확한 사람들을 한번, 법률 자문을받는 저거를 해 주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진삼 위원 제가 문졌는데요, 현 정부나 정치권과 관계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나요, 방산업체 중에?

○金鶴松 委員 예.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 제가 질의를 조금 추가해서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K2 관련해 가지고 3000억 요구를했지만 한 466억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金鶴松 委員 제가 길게 이야기드리지 않겠습니다.흑표사업은 군과 방사청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애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처음에 K2전차를 개발할 때 처음에는 상당 숫자가 되었다가 이것이 국회 심의 과정이나 정부 예산 반영에서 줄어들었다가 이것이397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또다시 지금 현재 206대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예, 206대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렇게 자꾸 줄어드는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이 파워팩에 대한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중소기업체들이거든요. 관련된 1400여 개의 중소기업체들이 제 이웃한 지역에 다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삭감된 예산 이번에 같이 증액을 좀 시켜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를 함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내에서개발한 것 성공을 해 가지고 해외에 수출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산업에도 수요가 계속장기적으로 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서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표 위원 수고하십니다.본 위원이 내년 K2전차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K2전차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지금 개발시험이 10월말까지 하는데 하루가 지체되어 어제까지인가 개발시험이 끝났습니다.

○서종표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전체 개발시험 할 때 검사항목이 48개인데 3개가 기준이 약간 미달이 됐는데, 기준이 미달됐다고 그래서 '불합격' 이렇게바로 처리하는 건 아니고 이게 보완될 수 있는사항이냐 이렇게 더 논의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아마 분석을 해서 11월 중에는 최종 시험 결과를 판정을 해서 불합격이면 해외 파워팩으로 가는 거고, 합격이 되고 또 내년 3월에 운용시험평가 결과도 합격이 돼야 됩니다. 1차 합격은 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연기가 되면서 국방위가 있을 때쯤 돼 가지고 최종시험평가 결과가

나온다, 공교롭게도 계속 한 3년 그랬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 한 달 정도 참으면, 기다리면 되겠구나' 했다가 또 1년 넘어가고, 또 조금 며칠, 오늘이 11월 2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상당히 신뢰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파워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은 파워팩, 다른 개발시험평가 다 했더라도 결론적으로 파워팩이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그것이?(김동성 간사, 원유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러니까 파워팩을 개발해 가지고 차량에다 탑재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된 파워팩이 차량에서 얼마나 더 부합되어 가느냐 이걸……

○서종표 위원 글썄, 그러니까 파워팩 개발 기간이 내년 몇 월이지요? 내년 3월입니까, 내년 3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예,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OT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서종표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서종표 위원그러니까 다른 부품이 다 개발완료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양산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서종표 위원 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서종표 위원 그 뒤에 맞아요? 어느 분……그렇다면 금년에 방위사업청에서 3000억을 요구를 했는데 466억 원이 삭감됐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삭감된 것을 보니까 주 장비에서 466억 원이 삭감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서종표 위원 그러면 이 주 장비에서 466억 원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서종표 위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66억 원이 삭감됐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서종표 위원 그러면 방위사업청에서 계획했던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466억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중소 하청업체들한테 부품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서종표 위원 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중소 하청업체들한테 갈 돈은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을 해 놔줍니다.

○서종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하는 말은 우선 466억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내년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기느냐, 또는 차질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내년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서종표 위원아니지요. 방위사업청에서 300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466억 원을 삭감했다 이겁니다. 맞지요? 뒤에서 누구……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맞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3000억 원을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계산해서 3000억 원이 요구가 됐을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예.

○서종표 위원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다면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데, 466억 원을 삭감했다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하면 어떤 사업 차질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걸 내가……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연부액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연부액이 그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하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결국 깎인 만큼 13년도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력업체의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466억 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양산하는 협력업체의 경영하는 데, 또 양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466억 원이 대부분이 협력업체에 나갈 돈입니까, 이것이?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아까 청장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2500여억 원이 전부 다 협력업체에 대부분이 있고, 지금 체계업체인 로템 이런 데 있는 필요한 돈이, 466억 원은 체계업체에 주로 필요한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글썄, 그러니까 466억 원이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에다 줘야 될 돈입니까, 내년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아닙니다. 하청업체는 2500, 지금 현재 예산에 요구돼 있는 그것이 주로 하청업체들로 가야

될 돈입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466억 원이 삭감이 됐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서종표 위원 그러면 요구액보다 삭감이 됐으니까 삭감이 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안 그러면 어떤 분야에 지장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거다 이거예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로템이 부담을 어느 정도 안아야 되는데 연부액을 줄였으니까 결국에는생산량이 줄 겁니다, 그만큼.

○서종표 위원 생산량이 줄어든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서종표 위원 466억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내년도 생산량이……

○서종표 위원 생산하지 않잖아요, 전차를? 양산을 하지 않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 내년에 생산할 걸내후년으로 돌리는 거지요.

○서종표 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전체 206대라면 내년에 100대 생산할 것 있으면 내년에 한 80대 생산하고, 내후년에 나머지를 생산한다 이거지요.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생산 대수만 차질이 생긴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서종표 위원 466억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금년에 466억 원을 추가로 보충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위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안 해 줘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양이 주니까 그만큼 전력화가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서종표 위원 전력화야, 그거야 엔진도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뭐 전력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 엔진은 안 되면 해외 걸 도입해서라도 이렇게……

○서종표 위원 도입하더라도 전체 대수를 다 한꺼번에 도입이 안 되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15대만 도입하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내년 연말까지는……

○서종표 위원 많이 생산을 해 놔도 엔진 구입을 하든지 또는 여기서 양산을 하든지, 엔진의 숫자에 맞춰서 전력화가 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겁니까, 466억 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저희는 2500 이것만 반영을 해도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액을 안 해 줘도 되겠군요. 그리고 하나, 지금 협력업체들이…… 지금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돈을 받지 못 해 가지고 자꾸 연장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던데, 양산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협력업체는 정상적으로 돈이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로템에서 이미 발주가……

○서종표 위원 아니, 로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여튼 결론적으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발주가 된 건……

○서종표 위원 협력업체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도 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요.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양산이 안 되더라도 양산을 생각해 가지고 협력업체에다 일정한 금액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상 없이 지불되고 있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발주가 안 나갔으니 돈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양산을 위한 발주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돈하고 같이 나가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발주가 안 오니까 협력업체들은 공장 문 열어 놓고 지금 생산할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예를 들어서 국산 파워팩으로 장착할 것이냐 또는 외국에서 구매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서종표 위원 그래서 만일 국산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 외국에서 구입을 한다면 그 예산은 있

습니까, 구입할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예, 지금국산 파워팩……

○서종표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자고요. 구입할 돈이 있냐, 없냐……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500억 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데요.

○서종표 위원 몇 대를 구입하는 데?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100대입니다.

○서종표 위원 엔진을?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예.

○서종표 위원 엔진을 만일 외국에서 구입을……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국산 파워팩보다 해외 파워팩이 한 4.6억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한 100대분 하면……

○서종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지요, 여기에 태워져 있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만일 내년에 외국 무기를, 엔진을 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이 든다 그랬잖아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그러니까 외국 파워팩을 구입을 하더라도 그게 12년, 13년에 예산이 가기 때문에 내년에 좀 부족한 것은 협상을 통해서 13년에 보전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하고 부족액은 13년에 보전을 한다?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변형균 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계약을 내년 3월 달에 우리가 주문을 해도 실제 도달되는 건 내년 말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나가는 내후년에 그건……

○서종표 위원 그러면 하청업체도, 협력업체도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받을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게 아닙니다. 이제 엔진은 놔두고 나머지 건 조립을 해야 됩니다. 차체에 대해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차체 하청업체들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내년에 초부터 차체는 조립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조립하는 게 아니고 주문을 해서 생산하려면 거기도 내년 하반기까지 또 가는 거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품 와 가지고, 조립은 내년 말에 엔진이 오면 거기에 최종 조립해서 나올 수 있게 미리 준비가 되어……

○서종표 위원 발주가 안 되면 돈을 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방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요. 발주는 내년에 해도, 발주해서 자기들이 제작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도 계속 기성으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가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청업체들은 그걸로…… 문제는 해외에서 엔진을 도입을 하면 엔진 하청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그 엔진 하청업체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엔진 하청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가 될 텐데, 해외에서 도입하니까 엔진 하청업체들은 납품할 길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엔진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우리가 써 줘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 엔진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그 하청업체를 도와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하역튼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계속 지연을 했다가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못 합니다.

○서종표 위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456억이 삭감했는데 '대수가 좀 조정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해 주시면 좋지만 재정상황 때문에 한참 실랑이를 했었습니다.

○서종표 위원 재정이야 정부에서 걱정해야지 쓰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합니까? 쓰는 사람은 잘 써야지요. 바르게 쓰고 잘 쓰면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쓰는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도 협의하면서 재원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서종표 위원 아니,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하실 말씀을 우리 방위사업청장님이 하시네요. 좋습니다.

○위원장 원유철 김학송 위원님!

○金鶴松 委員 아까 서종표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K-2 전차 문제. 지금 현재 전체 중소기업 업체는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엔진하고 변속기 관련에 따른 것이, 파워팩에 따른 게 한 300개 업체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1100개 업체는, 엔진, 강압기 없는 1100개 업체는 수입을 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엔진과 변속기에 관련된 300개 업체는 어차피 개발이 다 된 거, 이거 같이 국산화시켜서 하자는 게 중소기업들의 서로 의견이 갈린 부분입니다. 그렇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金鶴松 委員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청장께 다시 물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파워팩이 우리가 생각하는ROC 요구에 근접을 했고 지금 현재 탑재해서시험운용평가를 하고 있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 탑재 운용시험평가에 지금 문제점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저희가 큰 문제는아니고요. 무슨 기준을 달성했나 미달했나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보면 평가하는 항목이 전체44개 항목인데, 기준이 41개는 완전히 충족을 했고요. 3개가 충족을 못했는데, 그 3개 내용 보면어떤 데서 RPM이 5300이 돼야 되는데 5260이나왔다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鶴松 委員 알겠습니다.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 3월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수 입대체를한다 그랬을 때 물건은 내년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후내년 예산에 반영되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아까 쪽 하시는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을 자꾸전제조건으로 놓아 놓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그래서 가능하면 청장의 입장에서 우리 국산화가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 그게 맞습니다.

○金鶴松 委員 그러나 만에 하나 안 되었을 때는 내년 3월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어디 가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제가 답변이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소 미달되더라도 치유될 수 있는 미달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잘 가고 있습니다.

14 제303회-국방제6차(부록)(2011년11월2일)
 ◆[증액] K-2 전자

○K-2 전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파워팩 개발 지연에 따라 466억 원을 감액한 2533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제48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파워팩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13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2년 지연됨에 따라 업체의 경영 여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09~'11년 예산은 742억 원으로 계약 연부액(1709억 원의 4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09~'12년 예산은 3196억 원으로 연부액 대비 예산부족 비율이 57%→28% 감소하지만 연부 액(4402억) 대비 여전히 1224억 원(28%) 부족합니다. ○따라서 466억 23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구분		
파워팩 국산화	12년 3월까지 개발 정상 진행시	초도양산에 국산적용
	11년 10월까지 개발시험 평가 기준미달시	초도양산에 해외적용
	11년 12-12년 3 기간중 운용시험 평가 중대한 결함 발생시	

FY2012

2012년 8월 24일.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K-2전자 관련해서 기동화력사업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기동화력 사업부장 최진해 부장입니다. K-2전자 파워팩 해외 도입 관련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금년 4월 2일 57회 방추위에서 초도양산분은 해외파워팩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여서 4월 4일 날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면서 선발주 및 계약 지시를 하여 국내업체와 해외 제작사 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회에 보고 전 계약 체결이 불가피했던 사유는 전력화 시기 추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발주 및 업체 간 조기 계약을 추진하여 체계업체 및 부품 업체의 생산일정 차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려하였습니다. 방추위 의사 결정이후 업체 계약 체결 전에 국회 보고 기회를 모색했으나 실기하였습니다.

추진 간 문제점을 평가한 결과 11년 국정감사 결과는 국산 파워팩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 파워팩을 적용 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인데 이를 예산 증액까지 용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K-2전차 사업은 예산 추가 증가액이 적지 않은 만큼 계약 전 국회 보고를 했어야 하나 통상의 국내개발 실패 부품의 해외구매 전환 사례로 인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사전보고 없이 계약을 추진한 것은 절차적으로 온전치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총사업비 증액소요 판단한 결과입니다.

방추위 당시 총사업비 증가액을 단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련 부대비용을 미고려하여 약 450억원으로 판단하였으나 계약원가 증가액을 판단한 결과 약 619억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비 성격인 해외 파워팩 ILS 3·4계단 구축을 위해 60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679억 원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기획재정부는 국방위 보고 후 승인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재부 최종 조정 협의 완료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해외 파워팩 선급금은 12년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국회 사전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일정한 한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대상, 사업, 기준, 절차를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초도양산 세부 원가증감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K-2 문제에 대해서는 저부터 질문할 게 많습시다마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311회-국방제6차(2012년11월5일) 1

(10시11분 개의)

K-2전차 파워팩에 관한 논의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등 관련 기관과 생산업체인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S&T중공업의 관계자가 참석하셨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이흥구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대로템의 권정원 방산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S&T중공업의 박제석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파워팩과 관련해서는 육군의 전력부 기획처장과 시험평가단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김진표 위원 김진표 위원입니다.

방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들이 K-2전차 파워팩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를 방문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의 신뢰도와 내구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또 이것이 단기간 내에 개선.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독일산 파워팩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방사청의 지금까지 입장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난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올릴 때 상정된 안건이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방사청의 입장을 우리 국방위원들이 신뢰했었는데, 국감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계속 이어지는 보도 그리고 해당 업체의 항변, 이런 것을 들어보면 그 문제 제기가 결코 터무니없이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여기 이 자리에 업계 대표도 함께 나와 계신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S&T중공업의 누가 나오셨나요, 박제석 사장 나오셨나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제석 예.

○김진표 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국일보 11월 2일자 보도를 보면 ‘독일산 파워팩도 엔진 시동 불량, 연료분사장치 고장 등 11건의 중대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국산과 독일산을 면밀히 검토 비교하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A준장이라는 사람이 독일산 파워팩 결함 축소 보고서를 올려서 의사결정이 왜곡됐고, 이러한 내용이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나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업계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제석 보도 나온 것은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찰 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보안 관리 규정상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통보를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청장!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진표 위원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방사청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게 저희로서는 11건의 중대 결함,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해외 파워팩 도입할 때 그것은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결과는 저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김진표 위원 이어지는, SBS 무슨 취재파일인가요, 보면 이 11건의 해외 파워팩의 결함이 단기간에 시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나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방사청에서 확인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저희 방사청보다도 ADD,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확인을 합니다.

○김진표 위원 오늘 ADD위원장님 나오셨나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김진표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확인하셨나요, 독일산 파워팩 11개의 결함이 가볍게 시정될 수 있는 결함인지 아니면 설계, 제작 결함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산 파워팩은 지금 현재 시험 중입니다, 현재, 아직 시험이 안 끝났고 시험 중이고, 시험 중에 저희가 총 고장이 124건이 있었습니다. 그 리고 이제……

○김진표 위원 국산 파워팩 얘기는 나중에 하고 독일산 파워팩으로만 집중해서 알아보자고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124건 있었고, 124건 중에서 지금 51건이 저희가 이제 보완이 필요한, 물론 사소한 보완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 하고 있고요. 독일 파워팩의 경우에는 전체 시험 중에서 34건의 고장이 있었고……

○김진표 위원 몇 건이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34건이 하여튼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고장도 있지만, 그중에서 11건을 저희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과제를 종료하면서 이리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건을 저희가 13건을 났습니다. 13건은 11건의 보완 사항 플러스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클러치 높이가 좀 높다든지…… 11건 전체가 저희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고장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방사청장이 K-2 파워팩 기준 미달 평가 3개 항목 과 관련해서 '100점 만점에 99점은 되는 것 같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음날 'K-2전차 심장, 국산화' 이래 가지고 전 언론에 보도가 났단 말이지요. 그런데 2012년 3월 14일 날 방사청이 '오늘 연속 8시간 가동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시험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개발된 것이 지금 ADD 원장께서 말씀하신 몇 십개의 결함이 나왔다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업계 관계자들은 연일 과속으로 시험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언론에 나온 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SBS '취재파일'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과속으로 시험 운영을 하느라고 차체와 파워팩의 피로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방사청에서 시키니까 8시간 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로 연일 계속된 과속 주행으로 엔진오일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가혹한 시험을 한 결과 엔진의 메인 베어링이 손상되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것이 업계의 항변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이것에 관해서 먼저, 현재 로템이 엔진과 관련한 책임을 맡고 있었지요? 현재 로템에서도 누가 나오셨나요? 권정원 본부장님!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예, 나왔습니다.

○김진표 위원 발언대에서 좀 말씀해 보시지요. 2012년 3월 8시간 연속 가동시험이 어떤 상태에서 해 졌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결함이 지적이 되었다고 회사에서는 믿으십니까?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예, 저는 현대로템의 방산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권정원 본부장입니다. 동 시험은 군과 업체와 함께 합의해서 만드는 시험 절차에 의해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시간 연속 가동과 100km 연속 주행 시험에 대해서는 수입 파워팩과 다 르게 시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입……

○김진표 위원 수입 파워팩과 다른 조건하에서 시험이……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예, 그렇습니다. 수입 파워팩 기간 동안에는 군에서 실시한 동계훈련에, 전술 훈련에 참여해서 시험조건을 만족했었고요. 국산 파워팩 시험기간 동안에는 그런 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규정을만들어서 업체와 시평단과 합의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S&T 중공업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수입 파워팩이 100km 연속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훈련을 들어가면 군 훈련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하루에 저희가 국산 엔진변속기 해서 100km 연속 주행시험하고, 그 가동 시험하고…… 8시간 연속 엔진 가동시험은 중단 없이 100km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도 8시간 동안에 잠시라도 시동을 끄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시험이고, 수입 파워팩을 가지고서 테스트한 내용은 그런 전술훈련에 들어갈 경우에는 낮에 한 20km, 30km 주행하고 저녁 때는 주행을 하지 않고, 작전을 전개하지 않고 다음날 또 주행하고 해서 누적거리가 100km 이상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방사청장께 물겠습니다. 지금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산 파워팩과 수입 파워팩이 성능조사를 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어느 쪽의 결함은 과소 집계되고 어느 쪽의 결함은 과다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가지요. 그런 점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문제, 지난번 해외수입 파워팩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하고 또앞으로 도입한다고 그러면 국산 파워팩에서 제기됐던 문제도 똑같이 수입 파워팩에 적용을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파워팩을 도입해서 2014년 3월부터 전력화하도록 되어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국내 파워팩이 연구개발이 완료되고 전력화 시기를 맞출 가능성은 방사청에서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이 문제는 다 방사청이 아니고 국과연입니다. 파워팩 문제는. 그래서 아마 그 기술적인 문제는 국과연에서 답변을 듣는게,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표 위원 지금 우선 S&T 중공업 사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2014년 3월까지 전력화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결함을보정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저희가 보기에 수입 파워팩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 계약 상황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측 분석할 때 2014년 3월에는 수입 파워팩은 전력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산파워팩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만 내려 주신다면…… 이미 작년 12월 달에 두산인프라코어랑 저희 S&T 중공업은 엔진과 변속기에 대한 임시규격화를 추진하라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공문을받고 관련 기관들하고 4차례에 걸쳐서 임시 규격화를 금년 3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 이거지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들이 확인해 주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은 다른 네 가지 제목 쪽에 관해서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K2 파워팩 관련해서 업체 세 분을 모셨기 때문에 K2 파워팩 문제가 나오면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방사청장께서 지금 맥시멈 있을 수 있는 게 1시까지, 오찬을 늦게 하더라도 1시까지 할 수 있 으니까 최대한 그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파워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방사청장님, 지난 국감 시 파워팩 관련해서 우리가 S&T 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S&T 중공업은 변속기의 중대 결함은 전혀 없고 초기 결함 모두 개선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굉장히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이 정도구나'.

그런데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변속기는 2011년 11월 8일부터 12년 8월 31일까지 실시한 시험평가 기준으로 보완이 필요한 결함이 38건이나 발생했고 우리가 시찰을 갔다 온 이후에 10월 26일에도 결함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완벽히 개발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글썄, 저희도 국산 파워팩이 개발이 빨리 돼서 완벽하게 됐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뢰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이 무기를 쓸 때 전쟁 과정 중간에 이 파워팩 때문에 세워 놓고 고쳐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좌우시간 빨리 해서 국산 파워팩이 개발이 되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S&T 중공업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들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변속기며 베어링이며 문제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벽히 했다고 그리고 운용시험평가 90% 이상 완료됐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파워팩 운용시험평가 목표 거리가 5440km인데 3322km만 시험했고, 그래서 66%에 그쳤고, 내구도 시험이 42%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평가가 90% 이상 완료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기준도, 평가기준이 지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고 왔는데 다시 와서 점검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S&T 중공업에서는 그냥 우리에게 당장만, 국회의원들한테 완벽하다고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 말을 한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육군시험평가단에서 K-2 전차 운용시험평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용 96일 중 50일만 실시를 했어요. 46일은 시험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미실시 46일, 변속기 결함으로 인해서 시험을 하지 못한 날이 24일이나 돼요. 그래서 전차 결함 18일, 엔진 결함 4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속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날 짜가 맞지 않지 않느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 잘하면 금방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기간만 넘기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산 파워팩을 적용해서 완벽한 국산 K-2 전차를 만들기 위해서 방사청과 업체 모두수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산 파워팩의 개발 지연, 가장 중요한 육상 전력인 이 K-2 전차의 전력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이 대당 80억이나 들어가는 K-2 전차를 국산 파워팩의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은 또 전력화를 해야 되는 이런 큰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철저히 이 K-2 전차 전력화를…… 서로대화하고 이것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큰 사고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함을 찾아내서, 두 기업 자체가 마찬가지로 평평…… 이쪽은 아니다, 이쪽은 기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더 보류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사청장님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군은 신뢰되는 군을 가질 수 있고 S&T 회사는 회사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S&T?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예,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22일 저희가 시찰 때 보고드린 이후에 10월 26일 날 냉각기능을 구동해 주는 구동계 쪽의 베벨기어의 나사산이 뭉개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 1차 분석 결과, 최종보고서는 따로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변속기 외부의 차체 유압온도가 이상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결함들, 이런 문제들이 추후에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청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들한테도 정직하게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들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없다. 완벽하게 다 90% 됐다'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잘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시니까 파워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과 손인춘 위원님이 질의한 K-2전차 파워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파워팩은 원래 올해 2010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2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딜레이됐습니다.

○김형태 위원 속된 표현으로 지금 사업청하고 S&T가 견해를 달리하면서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뭐 그런 것보다도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를 않아서……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S&T의 주장과 사업청의 주장이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S&T나 사업청이 학생이고 제가 교사, 선생이라면 정말 둘 다 불러 가지고 종아리를 아주 세게 때리면서 꾸짖어도 부족할 정도로 하는 행위를 보면 아주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김형태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S&T 대답 좀 해 보세요.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뭐니까? 우리들을 뭘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김형태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시험 조건과 방법들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DT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찰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이 전혀 하지 않는 자체 전차가 내구수명이 9600k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600km 파워팩 내구도 시험 들어갈 때 차체의 누적거리 수는 1만 222km입니다, 9600km

수명을 넘어서서.

○김형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엄청난 진동과 인터페이스상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장갑차라든지 K-9 자주포 개발할 때 신차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 관계는 육군 시험평가단하고 ADD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간단히 좀 답해 주세요. 누가 답할 수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렬 ADD 소장입니다. 국산 파워팩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국산 파워팩을 쓸 거냐, 안쓸 거냐 하는 결정은 시험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구도 시험이 아직 반 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군 운영시험은 육군의 시평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렬 그 시평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사실 파워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안다는 게 좀 불가능한 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좀 간단하게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같이 섞어서 파워팩이 구성되는 건데,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 트랜스미션은 S&T로 넣고 그것을 나중에 결합을 해서 그 원래의 용도에 맞는 형태의 파워팩이 나와야 되는데,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이 문제없이 생산이 되었는데 결합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두 업체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을 해서 가지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시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좀 잘못된 것은 이게 2개의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2개를 묶어 가지고 결합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합하는 과정이 하나씩 만드는 것에 못지않은 새로운 과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 번째 결합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처음부터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나로호 발사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마는 고무링 하나 조그만 것이 잘못 끼워져 가지고 그 큰 나로호가 지금 발사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하나의 개별적인 기계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그 어셈블리(assembly) 과정, 그것을 생략하거나 그중요성을 등한시한 것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방위사업청 출범 전부터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2개의 서로 다른 체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해 놓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체계인데 두 계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합하다 보니까 중간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됐어요.

○유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굉장히 걸릴 테고 영원히 풀리지 못할 미스테리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한을 정하고 당장 우리가 국산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 파워팩을 납품을 받아서 K-2전차 사업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독일 엔진, 독일 파워팩을 수입을 해서 막 하겠다고 해서 또 일이 오히려 더 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때는 차근차근 기본을 밝아 가지고…… (중략)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의사결정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건데, 국산 개발도 계속하고 1차적으로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100대 분에 대해서 해외파워팩을 도입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진행이 자꾸 지체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ADD에 저희가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ADD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서로 같이……

○유기준 위원 결정의 문제는 물론 기술적인 평가가 그 안에 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놓고 방사청장께서…… 물론 의논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주셔야지 그것을 이 사람 책임이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 문제는 결국 해결이 안 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그런 쪽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지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 현재 있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한 건데……

○유기준 위원 그러면 각 업체 두 군대를 만나서 설득을 하셔서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런 부분들은 좀 당 신들이 말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아울러서 같이 가져야지 저런 반발이 많다고 해서 이걸 안 하기도 곤란한 것이고, 그렇지요? 또 그 반발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곤란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우선 시험평가가 끝나고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래서 지금 평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도 다 안 하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좀……

○유기준 위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 K2 전차 파워팩 문제인데요. 청장님 오늘 즉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청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를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워팩에 관한 한 내가 보니까 청장님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네요. 왜냐하면 자꾸 'ADD에서 한다' 또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한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의견을 통합하는 역할을 청장님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 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쪽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차피 안 되면 책임은 방위사업청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추위 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험 평가가 끝날 때쯤 되면 결국 최종 판단은 또 방위사업청이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는 군의 적기 전력화 이런 요구하고 또 현재 차량업체들의 하청업체들 이런 요구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파워팩 국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ROC 요구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하도록 합참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업체가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 주면 좋겠다, ADD도 그렇고 개발업 체도 그렇고 협조를 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 해결 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시험평가를 하는 주체는 그렇지만 시험평가 과정에서 또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상호 충돌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청장님이 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물론 최종적으로는……그래서 저희가 몇 번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 가 자꾸……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사실은 깨끗하게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되는데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장님, 그 점을고려해서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委員長 劉承旼 많이는 못 드립니다.

○백군기 위원 지난 방추위 때, 사실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국내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 언론의 기조였거 든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서 방추위에서 '국산 파워팩 중대 결함 아니다, 그래서 8 대 5로 그것이 우세했다'라는 SBS 보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 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게 맞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게 맞다면, 4월 달에 방추위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보도까지 됐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지요. 그러니까 밑에 기술검토위원회에서는 그때 뭐 하나 깨진 것만 가지고 8 대 5라고 나온 것이고 방추위는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지요. 그것 한 팩트만 가지고……

○백군기 위원 그러면 그 부속 하나에 대한 것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지요.

○백군기 위원 그러면 그 부속 하나가 상당히 핵심 부속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도 핵심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백군기 위원 하여튼 그때 당시에 중대 결함이니까 방추위에서 의논이 됐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난 것이네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방추위 전에 실무 검토위원회에서 8 대 5로 나왔다 이것이지요.

○백군기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연초에 청장님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결함사항도 방추위 전에 8 대 5로 이것은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의견 결정이 됐는데 갑자기 국 외 개발로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초가 그 이후로는 국외에서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기본적으로 무기가 파워팩이 탑재가 돼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서서 엔진을 다 들어내서 공장으로 가서 고칠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전쟁을 수행하다가 어떻게 엔진을 떼어서 공장에서 고쳐다가 전쟁을 수행하느냐,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 그 현장에서 엔진을 탑재한 상태로 고칠 수 있게는 돼 줘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두 번이나 엔진을 떼는 사태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전방 전력화가 빨리 돼야 되겠다 하는 의도하에서 지난번 국감 때도 어찌됐든 전력화가 빨리 가는 방향으로 해외 도입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S&T 공장을 갔다 와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방위산업체가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야말로 아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 내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관련된 3개사 모든 분들을 놓고 한 대 여섯 시간 끝장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조금, 조금 질의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게 안 풀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해외 도입 100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백군기 위원 그러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외 파워팩을 우리가 100대를 도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옛날에 해외 파워팩을 탑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증을 했었지요. 그래서 검증 데이터도 다 있고……

○백군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제기를 하는 것은 검증한 것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조건에서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때하고 달라진 조건이라면 그것은 들여올 때 다시 다 검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그런 미진한 분야가 있어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미진한 분야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100대를 들여오는 의사결정을 해야지 완전히 퍼펙트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100대를 들여오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검증을 해서, 우리가 개발한다면……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부터 해외에서 전체를 다 구매한다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어느 부품 하나가 안 돼서 구매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체 차체나 이런 것들에 결합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2005년, 2006년에 해외에서 파워팩만 도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탑재해서……

○백군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전체 체계에는 그것을 결합 안 시켜 봤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요, 결합을 시켜 봤지요. 그때 테스트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필요하면 이쪽……

○백군기 위원 얘기해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지금 독일 파워팩을 써서 한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이미 다 시험을 끝내서, 육군 시평단에서 시험을 해서 합격한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S&T……

○委員長 劉承旼 마무리하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렇게 한 것이고요.

○백군기 위원 잠깐, 그것은 됐어요. 길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S&T 사장님, 지금 이미 해외 도입 부분이 차체 개발까지를 다 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체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시험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K2 자체에 대한 DT.OT는 수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력으로 썼던 독일 파워팩은 지금 국산 파워팩과 같은 동일한 DT.OT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ADD 답변해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DT.OT를 한다는 것은 육군 시평단에서 받아서 내구도 시험을 다 뛰어야 되고요, 독일 파워팩으로. 그다음에 OT를 해 가지고 나온 그 최종 결과가 아까 11개의 보완사항을 해서 합격을 시킨 것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지금 S&T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백군기 위원 S&T 사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존경하는 여러국방위원님들 앞에서 하여간 여러모로 송구스럽습니다. 국산 엔진.변속기들을 좀더 관련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해서…… 국방위에까 지 이렇게 와서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는 1500마력 변속기 연구개발 주관 기관의 대표이사로서 죄송하고요.

○백군기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위 원장님이 경고하시려고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하세요.

○委員長 劉承旼 사장님, 핵심을 이야기하세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지금 자꾸 이렇게 논쟁이 되는 형태로 가서 여러모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민.관.군이 함께 협력해서해야 되는 이 사업에서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부 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위원님들이 와서 시찰을 하셨듯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1500마력 엔진.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전차에 넣기 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다이너모(Dynamo) 시설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 변속기 또는 독일 엔진과결합된 독일 파워팩에 대한 기본적 테스트들을저희 다이너모실에서 국과연의 의뢰로 테스트를했습니다. 그 테스트 방법들은 지금 국산 변속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km 연속 주 행이라든지 8시간 엔진 연속 가동시험이라든지 전차포 발사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서로 다른 조건들에서, 그 시기에는 국산을 개발하고 있어서 독일 엔진.변속기에 대한 검증시험이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들이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사청하고 갑과 을의 관계니까 을이 여기 와서 얘기하기가 참 곤혹스러울텐데요.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 여하튼 지금 내가 봐도 동일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S&T에서, 직접 S&T 공장에 가서 시험평가를 했다고한다면 그 공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알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의 사소통이나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문제에 관련돼서……

○委員長 劉承旼 다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지난 국감 동안에 방위사업청장님, 그다음에 사업관리본부장님, 기동화력 사업부장님 답변이 각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청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K-2 파워팩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이 상당히 지금 블랙홀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도 방사청이 갑 입장이고 업체 가 을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에서도 여러각 사장님들이 주눅 들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왜 시험평가 할 때 다른 조건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엔진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게 처음에 할 때는 독일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시험평가를 한 것이고 지금 국산은 개발시험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시험평가하고 개발시험평가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독일제를 들여온다고 그러면 우리 국산 파워팩 개발하면서 나온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추가로 다 테스트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1개 사항인가, 결합 그것도 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독일에 이미 리스트를 줘서 보완하기로 했으니까 보완이 됐는지 확인시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그동안에 우리 방사청에서 는 청장과 사업관리본부장, 모두 국산 파워팩이완벽하다, 조금 전에 김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 다시피 냉각팬, 속도제어, 시험, 최대출력, 가속성능 등 미달된 점에서 95점을 주고 싶다, 또 청장은 왜 이렇게 점수를 짜게 주냐, 99점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면 이 의미는 100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왜 갑 자기 금년 초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 그 사이에……

○안규백 위원 안이고 바깥이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얘기 좀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 오태식 사업관리본 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95점, 99점 건은 국산 파워팩이 개발시험(DT)을 마치고 운용시험(OT)에 진입하기 전에 나온 시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3개 항목 이 성능이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산화해 왔던 노력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미달이지만 운용시험으로 진입을 시키자는 것이었지 국산 파워팩을 양산에 적용하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운용시험에 진입을 시키고 나서 운용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양산에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 시에 95점, 99점은 DT에서 OT 갈 때 얘기입니다.

○안규백 위원 작년에 방사청에서 국산과 국외구매, 그러니까 독일제 구매와 관련한 입장이 바뀔 때 업체대표, 어디입니까? 인프라코어하고 S&T하고 로템하고 세 군데 업체대표를 불러서 한 번이라도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 오태식 언제 적 말 쓰하시는 건가요? 금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안규백 위원 금년에.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 오태식 금년에는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 안이한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입장이 바뀌었으면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 오태식 그 당시에 는 저희가 그동안에 시험평가 했던 결과를 국과 연하고 시평단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업체 간 간 담회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6대 중에서 100대는 독일제로하고 106대는 지금 국산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제 100대가 시험평가에서 검증된바도 없고 후속조치로 106대가 들어온다 하면 그전자의 100대는 후속 군수지원 문제나 부품 문제 그것을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지금 최근의 이런 사태를 안 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100대 결정을 할 때도 고민을 똑같이 했고 국산이, 국산화포를 써서 군에서 운영을 할 때 가면서 엔진이 선다든지 퍼진다든지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으면 되는 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청장님 소신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나까 저희도 헛갈려요. 그런데 뒤의간부들과 지휘부들은 얼마나 헛갈리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규백 위원 청장님 소신과 철학이 확실히 서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지금 최근에도 파워팩에 문제가 자주 생기고 이 런 게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규백 위원 감사원에서 지금 그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어디 모 신문을 보니 감사원에서 군 지휘부에 잘못 보고한 A 준장을 검찰에 보고한다는데 A 준장이 누구입니까? 그 보도 내용 보셨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봤습니다.

○안규백 위원 누구예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글썄, 그거 뭐……

○안규백 위원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신문에 내고 얘기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산을 빨리 당기는 게, 지금 군에서는 빨리 조기 전력화를 요구하고 또 하나는 차량, 로템도 있지만 거기의 하청업체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 난국을 해결하려면 사업이 계속 가면서 국산 파워팩, 어느 정도 개발은 많이 됐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마지막을 조금 조정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K-2 전차 전력화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마 방추위에서 우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방추 위하고 반하는 것이 있으면 방추위에서 최종적으로 또 결정을 해야 될 겁니까?

○안규백 위원 감사원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아시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청장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 그게 옳은 지적이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요. 그 지적이……

감사원이라는 데가, 우선 존중을 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두산인프라코어의 이흥구 부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두산인프라코어부사장 이흥구 예, 나와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방사청이 지금까지 이렇게 죽 나 온 것에 대해서 귀 회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전혀 업체와 방사청 간에 한 번도 업무협조가 없었다 그러는데,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인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산인프라코어부사장 이흥구 두산인프라코어 의 이흥구 부사장입니다.
일단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제 차량을 떠나서 일반적인 개발단계로 보면 엔진과 파워팩을 결합하고 그 파워팩이 된 것이 다시 차량에 들어

가서 평가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첫 번째 과업은 국과연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엔진단체 시험을 일단, 엔진이나 변속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계약되어 있는 31개 항목을 전체 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변속기 업체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파워팩을 꾸미고 전차를 개발하는 데 충분히 지원하라, 이런 게 기본적인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팩을 만들다 보니까 껍질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요, 실제 보완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어차피 OT, DT를 거쳐서 도 입 파워팩도 보완사항이였고 저희도 지금까지 군 운용시험 하면서 보완 할 사항들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보완 내용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초기 상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청장님, 말씀 들었잖아요? 같이 아닌 을 입장에서 저렇게 국산화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206대 중에서 독일제가 100대가 들어오고 우리가 계속 연구개발 해 가지고 106대가 국산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안규백 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나로호 예도 들었고 손원일함 예도 들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비행기를 보더라도…… 외국제 비행기를 들여오면, 미국 보잉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벨트 하나까지도 다 허락받아야 되고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100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후속 군수지원 문제가 더 큰 부분이고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100대가 독일제가 들어오고 106대가 우리 국내산으로 양산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K2전차 운용 문제에 있어서, 그것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 고민을 정부도 다 했습니다. 방추위에서는……

○안규백 위원 고민하는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한기호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방추위에서 결정을 할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차량 부분의 개발 속도하고 파워팩 개발 속도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우선 이 속도를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군에서 지금 조기 전력화 문제도 있고 현재 지금 개발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저 파워팩을 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썼을 때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최고의 대안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청과 4개 업체가 만나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결과를 볼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시고, 오늘 외국은 무슨 외국을 갑니까, 이렇게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는 데?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해결하고 나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하여튼 대화를 자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평소에 대화를 잘하시는 분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기피하세요?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다음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방사청, 고민이 많습니다.

K2전차,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0대를 도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수리하고 이것에 따르는 군수지원체계, 이게 참 걱정이야 말이지요. 그것도 동감이고, 지금 업체 쪽에서는 14년 전력화 자기네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100대를 먼저 방사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도입하고 나머지는 국산으로 할 때에 그 시차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 오태식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우선 국산 파워팩이 2차 양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험평가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결론만 얘기하세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 오태식 문제는 그 시험평가가 언제 통과될지가 미지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답변드리

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시험 평가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면 100대 들어오는 것이, 시험평가가 잘못된다면 그다 음 나머지도 계속 독일산 파워팩을 해서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산이 실패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실패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관련 업체는 14년까지는 된다고 그러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지금 방추위에서 결정해 놓은 것은 2차 양산은 국산을 개발한 후 에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정희수 위원 국산, 그것 얼마 시간이 걸리더 라도?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걸리더라도 좀…… 그래서 시기를 언제로 못 박지는 않고 국산화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파워팩 문제는, 1500마력이 K2전차용에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산업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로 여러 가지 엔진으로 변형도 되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K2전차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생각해서 이걸 개발을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렇다면 전력화시기를 만약에 14년이 아니고 15년까지 늦춰도 관계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량 부분의 하청업체들이 1100개인가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쪽이 이제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욕구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전력화를 딜레이 하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군에서 이걸 가지고 기계화부대에서 K2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해 줘 가지고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정희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당초 계약 보다도 늦어지게 되면 관련 업체에 페널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정희수 위원 그러면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당초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김대식 계약관리본 부장입니다.

만약에 제때에 납품이 되지 않으면 하루하루 지체상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결국 방사청은 계획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시네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개발을 확실히 해서 2차 양산부터 적용하고 다른 무기체계 또 우리 건설중장비 이런 데에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산업이 나가려면 이걸 당 연히 국산을 해서 계속 안정적인 엔진 파워팩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가 언제 나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 나오는지……

○정희수 위원 나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이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얘기를 수렴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파워팩 논란, K2전차 사업에 관한 예산 936억 원 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936억 중의 내역으로는 해외 파워팩 도입비용 679억 원하고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현대로템 이윤 70억 원, 기타 187억 원 포함해서 일단 이걸 다시 조건부 로 우리 에 결소위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

○委員長 劉承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K2전차에 대해서 제가 2010년도 부터 이 문제를 보았던 사람인데 우선 해외 파워팩을 적용해서 08년도에 전투 적합 판정이 끝났었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한번 제가 되짚어 보려고하는 게 2011년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에 내년, 그러니까 금년도 3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일에서 구매해서 넣는 것으로 그때 의사결정이 얘기가 됐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금년 3월까지 안 되면 독일제를 넣기로 이미 얘기가 된 것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미 의사 결정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한기호 위원 또 감사원에서도 시험평가를 똑바로 하라고 또 감사가 지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과정은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과정이 그런데 그것이 전부 생략되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평단 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육군?

○委員長 劉承旼 시험평가단장님 안 계십니까?

○한기호 위원 김영교 단장님, 나와 보세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시험평가단장입니다.

○한기호 위원 시험평가 언제까지 할 계획이지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시험평가는 최 초 계획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연 연장해서하고 있다가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시험평가할 것인가는 사업 추진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국산 파워팩에 대한 것을 지금 가는 것이 언제까지 시험평가할 겁니까?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현재는 시험평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엔진이 다 깨져 가지고 추가 시험을 하다가 현재 시험평가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 최초 계획은 8월 말에 다 OT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변속기가 최초로 고장난 것이 783km, 두 번째 고장난 것이 변속기가 아니라 엔진이었습니다. 이때는 1600km, 세 번째 변속기가 고장난 것이 1880km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누적거리를 더 해서 OT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몇 km를 할 것인지 이것도 다 다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그렇습니다. 누적거리를 해서 해야 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최대한 해 봐야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8월까지의 시험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추측하잖아요, 그렇지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예상이 그 령게 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내년 8월까지 다시 시험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그러면 시험평가 끝났다면 보완사항이 또 나오겠지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보완사항 나온 것을 다시 시정하면, 시정해서 들어간다면 양산하는 것은 또 얼마나 걸려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사업 추진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 내년도 8월까지잘해서 OT가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규격화하고 목록화하고 보완사항 보완하고 하다 보면 최소한 16년도 이후로 아마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도저히 2014년도에 안 된다는 게,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꾸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을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것도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액센트 해서 고집을 피우고 계시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S&T에 갔다 온 다음에도 또 문제가 생겼지요, 그렇지요? 제가 문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해서 터키가, 지금 시험 평가하고 있고 이것은 독일제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전자 출고 가, 행사까지 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독일제 제품을 가지고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성능적으로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닌 터키에서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전혀 조건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원론적인 것을 자꾸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따진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야전에서 이미 1500 마력 엔진에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분사 방식이 PLN이나, CRI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터키에 이미 들어가 있고 시제전차도 만 들어져 있고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따진다면 몰라도 지금 물리적으로 국산은 갈 수 없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감사합니다.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한기호 위원 말씀하세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시험평가에는 시험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럴 게 무한정 시간을 준다면 어떤 업체도 개발시험이나 OT에서 불합격하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요군에서 요구하는, 야전에서 요구 하는 전력화시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고 최초로 준비할 때 TRR(Test Rediness Review)이라고 해서 시험평가 최종검토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것을 업체들한테 다 공개 하고 이러한 내용을 평가하는데 당신들 서명하느냐, 협조하고 동의하느냐 다 해서 저희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시험평가를 하고 매일 시험평가를 하게 되면 일일단위, 주간단위 매일 서명을 받고 주간 단위 매주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임의로 바꿀 수도 없고 저희들 강하게 중간에 임의로 더 강하게, 가혹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없고, 시험평가는 반드시 어떤 특정 기한을 두고 시험평가를 해야만이 무기체계 전력화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호 위원 고맙습니다. 앉아 주세요. 현대 누가 나오셨지요?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로템에 지금 이 전자 때문에 협력하는 업체 종 업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판단은 정확히 어렵습니다. 약 4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지금 3년씩 딜레이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업체들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상당히 경영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왜 S&T는 국방부에 가서 시위도 하는데 현대로템은 이 종업원들이 시위도 안 합니까?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저는 대학로 풀려고 방위사업청과 관련기관에 저희어려움을 호소드리는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호소한다고 누가 듣습니까? 너무 로템이 무책임하고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하야튼 위윈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극한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하세요. 지금 4만 명의 종업원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게 문제가 되고 기업이 망할지 모르는데 왜 로템은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제 방에도 기업체 대표들이 몇 번씩 찾아온 것을 벌써 2010년도부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만 쫓아와서 그래서 됩니까?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차트를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말씀해 보세요.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맨 위에 그림이 저희 전자공장의 조립공장입니다. 조립공장에 전차가 조립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텅 비어 있고 그 긴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립공장 도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저희가 공장을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전자 구조물을, 다시 얘기하면 전자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를만들어서 지금 조립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밑에 보면 저희 협력업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품업체에서는 부품 제작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워팩 입고시기가 불안정해서 로템한테 납품을 지금 못 하고 있고, 더군다나 로템에서 자금을 집행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수급한 자금은 1158억원 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의 14%는 일단 저희가수금을 했는데요, 기간상으로는 지금 저게 43%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1759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 로템 자체적으로도 579억 원의 자금부족을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그것을 계기로 해서 K2 파워팩 문제가 좀 정리되어서 전자 생산업체인 로템과 협력업체들이 정말 안심하고 전차를 생산하고 또한 군에서는 전력화 일정에 맞춰서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 가서 시위하세요. 그다음에 청장님은 돈 안 주고 있는 것 주세요. 거기 협력업체들이 제 방에 세 번이나 왔다갔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날 정도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내년도 예산, 예산 연부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봐서 기획재정부에서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S&T 얘기만 들으면 S&T에 쏠릴 수도 있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가 시험평가에 대한 것도, 지금 착수도 못 하고 있어요.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내년8월까지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매달려서 늦어지면 안 됩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전체 물량이 600대 이상 나중에 가기로 되어 있고 S&T도 나중에 국산화되면 납품이 됩니다. 지금 고집해서 군 전체를 발목 잡는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군대를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S&T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윈 우선 청장께 하나 확인하지요.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면 2014년부터 전력화가 가능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 지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죽 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

니다.

○진성준 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 틀림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글썽, 지배적이라는 것은…… 아침에도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했는데요. 지금 계약만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 2014년 3월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지금 K2전차 1차 양산계약서를 보면 납품일자가 2013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진성준 위원 그때까지 납품이 가능합니까, 1차 양산분이?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면?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현대로템에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업체하고 엔진, 변속기 계약을 했고요. 엔진의 경우에는 내년 7월 달에 입고가 되고 변속기의 경우는 내년 9월 달에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기품원에서 주관하는 최초 생산품 시험을 마친 후에 2014년 3월에 전력화 13대가 가능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납품시기는 조정해야 되겠네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3월로 지금 조정을 해놨습니다. 방추위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할 때.

○진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국방기술품질연구원장 나와 계신가요?

○국방기술품질원장 최창곤 예.

○진성준 위원 기품원의 입장이 뭐니까? 국산 파워팩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품원 입장입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최창곤 그 부분은 개발이 완료돼서 저희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판단이 되어야지 저희들은 그 양산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 파워팩을 써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도입품을 써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역으로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 좀 물어보지요. 해외 파워팩은 적용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최창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여기서 관련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전자 체계 개발할 때 도입 파워팩을 차량에 탑재 해서 DT, OT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최종평가가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난 상태이고 다만 지금은 국산 파워팩을 국내 개발해서 탑재한다면 단품상태 또는 파워팩 조립상태, 차량에 탑재한 상태에서 어떤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것이냐를 아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군수 유지면에서는 낮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성 여부가 아직 미지수라서 이렇게 논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올 4월 달에 해외 파워팩 도입방안과 관련된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 워크숍에서 기품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연, 즉 ADD는 해외 엔진과 변속기가 검증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명확한 입증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요. 워크숍에서, 그래서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시됐습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최창곤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워크숍에 참석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고 서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계 장비로 탑재해서 성능이 검증됐다 고 보는 측면과 또 우리 개발시험과 같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일부 또 시험성능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저희 판단에는 도입 파워팩이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국내 파워팩 개발하는 시험절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험을 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국방기술품질원장 최창곤 예.

○진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험평가단장이라고 그러셨나요? 청장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할 적에 왜 신차에 탑재해서 테스트하지 않고 1만km 정도를 주행 한 체계에다가 탑재를 해서 시험평가를 했지요?

○委員長 劉承旻 시험평가단장이 왜 안 계십니까?

○진성준 위원 원래 신차로 시험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시험 평가단 기동시험과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최종 성능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모두 신차로 해야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왜 현 차로 했어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그 당시 시제가 별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제품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초 시작할 당시에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 체계의 이른바 수명주기, 주행의 수명주기가 1만km입니까? 맞습니까?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궤도차량은 9600km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9600km예요, 수명주기가?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당시에 테스트했던 체계,그 체계가 9600km 수명주기에 도달했던 것이지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개발시험평가를 한 차량은 9600km를 도달했지만 운용시험평가를 한 차량은, 그 당시 운용시험평가는 3200km정도를 시험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9600km……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각각 다른 전차입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예요. 두 번의 시험평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수명주기가 도달한 차량을 가지고 했고……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개발시험평가라는 DT가있고 운용시험평가라는 OT가 있습니다. 개발시험평가는 9600km 주행 테스트를 했고, 운용시험평가용 차량은 3200km 테스트를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 테스트할 때 차량의……그러니까 작년 11월입니까?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예.

○진성준 위원 느닷없이 최고의 속도로 8시간동안 운행하라고 하는 시험평가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산 파워팩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점이 지적된 것 아닙니까? 올 초인가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느닷없이 한 게 아니고 아까 저희 단장이보고드렸듯이 본래 시험평가계획서를 사전에 만들면 업체하고 합의를 합니다. 거기에 8시간 연속 주행과 100km 연속 주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 공문을 시험평가 후에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따질 것은 아니고요, 아까 김진표 위원께서 상세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시험평가를 할 때 사용했던 체계가 수명주기에 거의 도달한, 이미 9600km를 뚫은 그 체계를 가지고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아닙니까?

○육군본부시험평가단기동시험과장 김현수 예, 운용시험평가용 전차는 최초 K-2 체계 시험평가할 때 3200km를 주행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운용 시험평가용은 거기서 추가해서 또 3400km를 시험평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국 과연의 5본부장 김인우입니다.

지금 저희 국내 개발 여건상 K-2 개발은 도입 변속기를 써 가지고 다 끝냈고요. 국산 개발하는 시점에서 전차가 새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때 썼던 시제품을 가지고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9600이 됐던, 실제 DT를 하고 있는 차량은 3200 정도 뚫은 차량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궤도라든지 현수장치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전부 창정비 개조로 오버홀을 해서 쓸 수 있는 차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하면 새것을만들어서 했겠지만요.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 S&T 사장 계시지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이 말씀 맞습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아까 시평단에서말씀드렸듯이 OT 차량은 3200km대에 받아서 지금 6500km 정도를 뚫고 있는, 차량 누적거리가그렇습니다. 그리고 DT는, DT 내구도시험 작년12월 달에 들어갈 때……

○진성준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요. 방금 설명하신 뚫은 차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지만 오버홀해 가지고 계속 바꿔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맞느냐고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그런데 원론적으로 K-9 자주포든 K-21 장갑차든 모든 지상무기체계의 DT, OT는 지금까지 신차로 해 왔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K-2 국산 파워팩 DT, OT만 현 차로 하게 하는 시험 방법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성준 위원 왜 현 차로 했고, 오버홀 했다는 데 그것은 문제없습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오버홀 부분들을 했다고 해도 지금 실제 전차를 보시면 수평이 유지가 안 되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계속 현수장치를 다시 고치고 해도, 변속기는 궤도랑 바로 붙어있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많이 뚫은 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지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그렇습니다.

-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준 위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 이번에 현장 시찰을 국정감사 중에 갔다 오면서 엔진과 변속기가 패키지가 아니라 엔진 따로 변속기 따로 구입하거나 도입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 진성준 위원 확인됐지요?
- 그런데 왜 엔진과 변속기를 모두 다 독일에서 가지고 와야만 합니까?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분리는 할 수 있지만 그게……그것은 로템에서……
-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로템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기술적으로는 해외 엔진과 국내 변속기 또는 국내 엔진과 해외 변속기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입, 획득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 진성준 위원 아니, 획득을 왜 별개로 생각해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데? 그것 그렇고요. 두 번째로……
-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시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획득해야 되는데요, 해외 MTU 엔진회사에서 한두 대, 예를 들어 열 대를 팔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 진성준 위원 이미 100여 대 이상 계약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만약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100여 대 중에서 뺀다 그러면 모를까, 100여 대를 중단하고……
-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네요. 알겠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해서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게 가능하지요?
-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기간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입증기간이 필요합니다.
- 진성준 위원 앞서시고, 그 뒤에 얘기해 보세요.
-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크게 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독일 엔진, 우리 국산 변속기를 붙여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제반 시험평가에 신뢰성과 내구성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만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 진성준 위원 어차피 시험평가 해야 되니까요.
-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 진성준 위원 더 질문이 있는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 委員長 劉承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김성찬 위원 파워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 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국내 연구 개발하는 방위사업 중에 이러한 행태의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지요? 쉽게 말해서 개발하는 업체와 주관하는 정부기관 간에 이렇게 욕심각신하는 이런 일들이?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알기로는.
- 김성찬 위원 청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누구하고 회의를 직접 주관하신 적 있습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 김성찬 위원 간단하게…… 있습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여러 번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 김성찬 위원 누구하고 같이 만났습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관련 업체……
- 김성찬 위원 관련 업체 누구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업체 사장들하고 몇 번만나고……
- 김성찬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청장님이 직접?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간부들을 돌아보며) 서너 번 하지 않았나요?
- 김성찬 위원 청장님이 직접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세 번인지 네 번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 김성찬 위원 세 번, 네 번이다 이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찬 위원 이게 수년간 보니까 매일 국정감사 때마다 국방위원회 할 때마다 나오는데, 저는시각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주……이 차제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첫째,제가 이것을 들어 보니까 S&T 입장에서든 되게 공정치 못하고 또 정부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압박하는 것 같아서 할 말도 다 못 하시는 이런 모습도 아까 있었고요. 또 정부기관장님들께서는 잘하고 있는데 뭘 또 이러냐 하는 모습에 서 볼 때, 존경하옵는 김형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말이지요……S&T 사장님 계시지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예.

○김성찬 위원 만약에 S&T에서 제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번 차제에, 국가기관의 신뢰를 전 세계적으로 땅에 떨어뜨리게 된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방위사업에 손 떼고야에 물러나실 그런 각오도 돼 있지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그런 각오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찬 위원 물러나셔야 된다 이것이지.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예, 각오돼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정말로 이게 이 정도라면.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진실이 아니라면 각오돼 있습니다. 저희는……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S&T가 요구하는 것이 과하고 부당하고 또는 일방적인 이런 편협된 내용 같으면 S&T는 방위사업에 손을 떼고 앞으로 사업을 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S&T가 제기하는 것이 합리성 이 있고 정말로 공정치 못하고 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강압하고 하는 게 있다면 청장님, ADD소장님 또 관련된 책임자들은 다 사퇴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 나 진짜…… 저도한 30년 전력증강사업 해 봤지만 이런 것 처음 봤어요. 좀더 이 분야에서는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엔진과 트랜스포머를 따로따로……앉으십시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체계 통합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엔진과 변속기를 두 개 다 해 가지고 성능이 나오도록, 체계 통합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계약서에는……

○김성찬 위원 안 돼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ADD가……

○김성찬 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수정계약을 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 요. 관급장비를 따로 따로 해 주니까 나는 성능 이 제대로 하는데, 아가도 31개 성능이 제대로 난다 그랬잖아요. 나는 책임 없는 데…… 1분만, 30초만……나는 책임 없는데 엔진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발뺌할 수 있는 일들을 청장도 잘 아시잖아요. 수정계약을 해서라도 돈을 좀더 줘서라도 S&T에 주든지 두산에 주든지 ‘체계 통합 총괄책임은 당신이다’ 아니면 ‘현대로템이 다’ 해서 계약적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애매하게 ‘체계를 통합했을 때 성능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어떻게 거기에 계약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계약본부장님, ‘체계를 통합했을 때 성능이 나와야 된다’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소리 하나하나 한 그것을 가지고 책임이 있다 없음을 판정할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장 김대식 그렇게 할수 없고 계약할 때는 책임……

○김성찬 위원 확실하게 한 후에 체계통합 책임은 S&T다, 을이다, 갑이다 해서 해야지 뭘 쉽게…… 그것을 법정 가서 소송해 가지고 할 정도 그렇게 계약행위를 애매하게 합니까?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장 김대식 그 계약할 당시는……

○김성찬 위원 수정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뒤라도? 계약 당시야 2006년, 2007년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 않으면그다음 발견되었을 때는 수정계약을 해서 예산을더 줘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장 김대식 그래서 그것은 ADD에서 계약을 했는데 원가 문제하고 계약 문제가 아무래도 ADD에는 전문성이 없어서앞으로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는 좀ADD에서 원가 문제하고 계약 문제에 전문성을 좀 제고시켜야 되겠다 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오후에 또 있지요, 질문할 기회?

○委員長 劉承旼 예.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劉承攸 아까 말씀 도중에 K-2 파워팩, K-2전차 2차 양산은 국산 파워팩 개발이 성공하면 그때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방추위의 결정이 그 령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劉承攸 그러면 2016년 이후에 106대를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국산 파워팩 개발 성공을 전제로 하신 겁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요.
- 委員長 劉承攸 그렇습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 委員長 劉承攸 그러면 국산 파워팩 개발이2016년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2차 양산은 없는 겁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2차 양산은 국산 파워팩 이 개발된 다음에 검토를 해야……
- 委員長 劉承攸 그게 방추위의 방침입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방추위의 의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劉承攸 그 말은 국산 파워팩 개발은 성공할 때까지 무한정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 의지가 있고 사실 지금 파워팩이 어느 정도 옛날 문제는 많이 해결됐는데 최근에 또 자꾸 문제가 터져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 委員長 劉承攸 독일제 전력화는 2013년 3월에 확실히 된다고 그러셨지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14년 3월에.
- 委員長 劉承攸 2014년 3월에 확실히 전력화가 됩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지금……
- 委員長 劉承攸 제가 국방위원을 2008년부터 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K-2 파워팩 문제 가지고 방위사업청이 역대 청장님들, 간부님들이 국방위 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 3월에는 확실히 됩니까? 돼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 지금 로템하고 새로운 계약, 이번 예산 심의가 연부액이 되어 주면 바로 계약을 수정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추진에, 그 시기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
- 委員長 劉承攸 문제없다?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아까도 로템……
- 委員長 劉承攸 여기 방위사업청장님하고 간부들 다 직을 걸고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확인을하시는 겁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러니까 연부액 내년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그렇게 가능합니다.
- 委員長 劉承攸 그러면 '감사원에서 국산 파워 팩 개발책임을 진 군 장성을 고발했다' 이것은사실입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직 그 결과를……
- 委員長 劉承攸 모릅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모릅니다.
- 委員長 劉承攸 고발할 예정인지 아닌지도 모릅니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 委員長 劉承攸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 까?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 委員長 劉承攸 그분이 누구예요? 시험평가단 장입니까? 모릅니까? 감사원은 같은 국가기관인데, 지금 그 11건의 결함이 아까는 경미하고 독일제 파워팩 전력화하는 데 문제없다고 그러시는데 감사원은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 국회가 감사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알아야지 예산을 태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주무책임 기관장으로서 파악을 좀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감사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국산 파워팩 개발할 때의 평가하는 기준하고 해외에서 도입하는 하는데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해외에서 도입할 때는 해외 도입 절차에 따른 거고, 다만 저희가 국산에 탑재를 할 때 국산 파워팩 개발 과정에 나왔던문제는 해외도 다 똑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외 파워팩이 들어오면 그때는 최종 우리 검수과정에서 시험할 것 하고 다 이렇게 할 겁니다.
- 김형태 위원 오전에 이어 가지고 파워팩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찬 위원님의 질의에 S&T는 '자기들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업계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고, 방위사업청에서도 '만일 사실과 다르면 우리가 문책을 받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틀릴 텐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도 됩니까? 우리 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어쨌든 이 사안 자체는 일정한 국내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 사안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가 나오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 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틀린다면 관련자가, 책임자가 문책을 받고 그리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사업청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반대 쪽에서는 S&T도 자기들 주장이 틀린다면 업계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양측의 한 측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는데, 아니 방위사업청에서 이렇게 끝까지 극단적으로 가도 되겠느냐 말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시험평가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최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김형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방위사업청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방위사업청에서 S&T측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도순이 있고 과잉 요구였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청장, 차장 그리고 관련자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의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런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핵심이 밝혀진다면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 위원 S&T 사장님,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S&T 측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면 책임을지겠다고 하셨지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민간군이 협력해서 국가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지난 7년간을 해 왔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건 충분히입니다. S&T의 노력을 알고 있는데……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사업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런 각오를 갖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서 꼭 국산 엔진.변속기가 초도 양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오전 질의에서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양측이 하는 행태를 보면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염소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밀고, 한쪽이 물러날 줄 모르고, 그래서 둘 다 어찌면 떨어질지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남만 탓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방위사업청은 '갑'의 관계였고 그리고 S&T는 '을'의 관계입니다 다마는…… 우리 S&T 사장님!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예.

○김형태 위원 생활필수품이나 소비품을 생산하는 소비자와 기업체의 관계를 따지면 갑이 어디 입니까? 소비자가 갑이 되겠지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고객입니다.

○김형태 위원 예, 고객이지요. 그러면 고객의 기호를 맞추는 것이 생산자의 임무 아닙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고객 만족이 최우선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렇지요?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비위가 좀 상하고 경우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소비자, 그 리고 갑의 요구에 부응하고 순응해야 하는 게 일 반적인 일 아닙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혹시나 '을'이 '갑'에게 지 나치게 우리의 주장을 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 습니까?

○S&T중공업대표이사 박재석 저희가 과도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에 기술적인 측면 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절 차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희가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 게 시험평가라든지 각종 진행이 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방위사업청을 두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지금 양측이 다 투는 모습을 보면 상식에 반한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했고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S&T가 선수 자격으로 심판을 심판한다 하는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의 관계에 있는 방위사업청하고 보다 좀 대화를 간밀하게 하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아니하 도록 하고, 또 방위사업청도 갑의 관계에서…… S&T가 살아야 밀의 하청업체도 다 살고 그럴것 아닙니까? 우리가 독일에서 파워팩 수입해 오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 가지고 우리 기업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측을 편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정말 좀 슬기롭게, 슬기롭게 잘 좀 해결 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수 위원 이번에 우리가 K-2 국산 개발하는 데 지금까지 정부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700억 정도? 700억 좀 넘게 투자했습니다. ○정희수 위원 700억?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정희수 위원 1700억이예요, 700억이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그냥 700억……

○정희수 위원 700억.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정부만 그렇습니다.

○정희수 위원 정부만?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정희수 위원 그러면 민간은 얼마나 돼?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민간은 300억 정도 될 겁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한 페널티는 얼마나 돼요? 나중에, 뭐 많이 지연됐잖아요. 완전히 성공되었다고 했을 때에 늦어진 이 페널티는 얼마나……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원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금의 1000분의 1.5를 곱하게, 1일당.

○정희수 위원 전부 다 얼마나 돼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완성이 되었다 치면?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저희……

○정희수 위원 아니, 결론만, 답이 딱 나오는 건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현재는 지체상금을 전체 계약에 대해서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아, 지금 안 물려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정상적으로 1년씩 2회에 걸쳐서 시험평가가 늦어지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고 전체 사업기간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개발 업체는 페널티는 없네요? 지체상금은 없다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에서는? S&T나 두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살아 있는 한은 뭐 그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계약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연장을 해서 하지 않는이상……

○정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을 때에 핵심기술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ADD도 개발하고 업체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정부 투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ADD가 다 갖는것이 현재 우리 방산의 R&D 규정이고, 이 케이스는 업체 주관으로 업체에서 투자한 분이 있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국가위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돼서 해외로 수출할 때 이익금이 생겼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고, 또 나중에수출돼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투자 금액의, 700억 투자했고 300억 민간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누나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현재 본 사업은 최초로 업체가 주관해서 공동투자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제도를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방사청이 생긴 지도 오래됐는데 모든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따른 투자를 했을 때 그 R&D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어떻게 갖느냐,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해외 수출할 때 이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나눌 거냐,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방사청은?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지금 저희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공동투자를 하더라도 양산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업체에 대한 개발비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러면 기술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거기에대한 라이선스 피(License Fee)라든가 그걸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그렇지요. 라이선스에 대한 실시권을 업체한테 주는 방안이 있고……

○정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런 게 만약에 정립이 안 되었다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제대로 해야 방산업체가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 또 방산업체를 도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의 파워팩 문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하여간 책임과 권한, 뭔가가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분명하지 않으니까 서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 나 중에 하다가 적당히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대통령 주제로 민·군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 기업이 투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일부 할애해 주거나, 통상 실시권을 많이 이전해 주는 이런 대책을, 후속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래서 유출 우려가, 실컷 잘했는데 밖으로 빠져나 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잘해서, 그게 꼭 기존의 대기업체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걸 역량 있는 벤처, 중소 강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법이라든가 그것이 분명하게 잘 되어 있을 때 기업도 그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했을 때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제 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만드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파워팩 문제는 오전에 내가 질의 했으니까 감사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나 모든 것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제발 이 모습은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정부 차원, 민간 차원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잘 좀 상의를 해서 서로 윈 윈, 상생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분, ADD 소속이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委員長 劉承旼 전자사업담당장이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5 본부장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5본부장이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委員長 劉承旼 '연구개발 지연에 따른 지체보 상금 문제를 지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방사청이 연구개발 완료 시점을 연기해 줬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러셨지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계약의 주체는 ADD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ADD가?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청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委員長 劉承旼 그렇게 조치하셨으면 앞으로도 연구개발이 실패하고 그래도 지체보상금을 부과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현재 부분적으로는 납기가 도래했는데 납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S&T중공업 같은 경우에 상당 액수의, 한 25억 정도 규모인가요? 이렇게 지체보상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요, 지체보상금을 부과를 안 했다면서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속에 납기가 도래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 최종 터미널이 될 때 전체 납품을 저희가 받으면서 하는데 그 납기 자체가 부분적으로 먼저 계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구성품에 따라서. 이쪽 부분이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것은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안 됐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계속 지금 지체상금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委員長 劉承旻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길게 할 생각 없으니까, ADD가 파워팩에 대해서 지체 상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부과 안 하는 것이 뭐, 뭐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 다 드시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김재윤 위원님 먼저 하세요.

○委員長 劉承旻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차장님, 오늘 파워팩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파워팩을 국산화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방위사업청이 요구하고 있는 성능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평가 하는 중,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국산화를 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옳다고 보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김재윤 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ADD 소장께서……

○김재윤 위원 그러면 누구 전문가가 나오셔서 가지고……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기본적으로 지금 국산 파워팩은 아직 시험이 안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나지 비로소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김재윤 위원 그러면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고……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시험이 끝나지 완전히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어떤 걸 보아야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김재윤 위원 아니, 그러면 시험도 끝나기 전에 해외에서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해외 파워팩은 원래……

○김재윤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정된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예정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런 시험을 해보고 그게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국산화를 하는 것이고, 그게 성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외 파워팩을 수입해야 되는데, 아직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서 파워팩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러니까 원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해외 파워팩을 사용해서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험해 가지고 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산화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해외 파워팩으로 해 가지고 양산을 갖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은 뭐였냐? 국산 파워팩이 성공하면 국산 파워팩을 사용한다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산 파워팩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이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달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받은 독일 파워팩을 사용하겠다고 방추위에서 결정한 겁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받은 독일 파워팩을 사용하고, 받은 또 국내에서 생산한 파워팩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중적인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국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것은 아마 우리 선택의 문제인데, 제일 좋은 것은 국산 파워팩이 되어서 한꺼번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전력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충안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시험평가를 한 것은 뭐, 뭐를 했고 뭐, 뭐가 아직 안 돼 있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험평가가 OT, 운용시험하고 내구도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까지 내구도시험하고 군의 운용시험을 끝내게 되어 있었

는데 아직까지 끝내 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운 위원 평가한 것 중에서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건 뭐고, 충족하지 않은 것은 뭔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우선 군 성능 입장 에서는 DT 때, 그러니까 지금 OT 말고 DT 때 세 가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속성능, 냉각성능, 그다음에 팬 제어 속도에 관한 세 가지가 지금 성능 측면에서 미흡 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4월 달에 해외 파워팩 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 시험을 하는 과 정 중에서 고장이 많았습니다. 고장이 많았기 때문에 내구성 문제,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를 확인

해야지만 국산을 쓸 수 있겠다는 기술적인 판단 이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ADD에서 방위사업청에다 제안 한 건 뭐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어떤 측면에서……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가기간을 더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국산화를 위해서 ADD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 안한 게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저희가 청에 계속 건의한 것은 하역턴 이것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 까 이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사실은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했고……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ADD에서는 사업기간 을 연장해서……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성공시키겠다고 했던 거였는데 벌써 4월 달에 했을 때는 금년 8월달까지 시험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ADD 입장은 뭡니까? 국 산화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더 연장해서 성능을 더 보완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국산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 파워 팩을 써 가지고 빨리 전력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 는 겁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의 입장, 또 여러 가지 전체를 생각한다면 그러 면 지금 반 정도를 해외 파워팩을 써서 하는 것 은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요……

○김재운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물어볼게요. 그럼 전문가로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군이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성능,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저희가 DT 끝나고 나서의 판단은 금년 8월까지 문제없이 시험이 끝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실제 그 이후에 시험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 던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 최소한 내년 8월까지의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기간의 문제니까 전문가가 볼 때 지금 국산화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 기간이 있으면 군과 방위사업청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나 이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저희가 청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 안 해 주면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사업기간 연장 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업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업체가 성 공시키면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의견은 최소한 1년 반 정도를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하역턴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반만이라도 국산화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반이면 성공 할 수 있다고 본다면,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군 이 해외에서 파워팩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겠네 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러니까 1년 반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나서 어떤 보완을 도출하는 데까지 1년 반이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보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규격화하고 하는데는 아마 좀더 시간이……

○김재운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걸리냐는 말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앞으로 아마 지금에 서부터 한 3년 정도 더……

○김재운 위원 3년 정도요? 그러면 결국은 초도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그렇게 저희 연구원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방위사업청 차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첫 번째는, 지금 국산화가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국산화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산화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문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1100여 중소기업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제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력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국산화를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국산화를 통해서 전력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반 하느니, 만약에 이것이 충분히 소화 가 능하다면 국산화 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여쭙 보는 거거든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저희도 그래서 몇 번 기회를 줘서 국산화가 됐으면 이것을 같이 해서 전력화했을 건데, 전력화 시기라는 것도 또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력화 시기 문제하고 국산을 쓰는 것하고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어서 방추위에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파워팩을 2차 양산 시까지 개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아마 방추위의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파워팩은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개발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일단은 수입 파워팩을 쓰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청와대나 또 어떤 제3의 손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회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ADD 소장님하고 5본부장님이 계속 지체상금 가지고 헛갈리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연구 개발이 만약 나중에 실패로 끝날 경우, 성공할 경우 다 지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아주 원론적이고 간단한 질문을 저 K-2 전차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산화 나중에 실패했다, 그다음에 독일 제도 들어오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 왔다. 그러면 분명히 전력에 차질이 발생하지요? 그때 대책이 무엇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저희가 들어오는 파워 팩은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데가 그 회사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차 K-2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파워 팩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우리 국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두 개 중 하나인데 그게 두 개 다 해결이 안 되면……

○송영근 위원 쉬운 얘기로 K-2가 못 간다 그 랐을 때 그러면 전력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때 대책이 뭐냐……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근 위원 이것 해야 됩니다. 못 가면 K1A1을 모디파이(modify)해서 쓴다든지 대책을 해야지 가지 못하고 나중에 전력 공백 딱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검토해서 가지고 관계관들 와서 저한테 대면보고 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 하신 대로 K-2가 원래 개발되면 저희가 K1A1 전차를 배치 전환하기로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K1A1 성능 개량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대 비해서……

○송영근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하니까 와서 별 도로 보고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백 손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군기 위원 K-2 전차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 인 원천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글썽, 저희가 어디가 원천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기술개발이 저희가 기술개발을 했던 사업기간 내에……

○백군기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시험평가가 다 되었다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최초에 이것이 해외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적합시험까지 완료됐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런데 갑자기 2010년도에 국내 개발로 바꾼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또 해외로 가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이런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서 정책 과정은 필요한 정책 의사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백군기 위원 자꾸 탄소리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여기 업체도 와 있고 모든 사람이 와 있는데 자기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방사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저는 이 정책결정은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백군기 위원 방사청이 하여튼 방추위 결정을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왜 뒤를 빼요?
그러면 08년도에 전투력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국내 개발로 바꾼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파워팩에 대한 국내 개발을 지시했지요, 그렇지요? S&T한테는 했을 것 아니예요, 국내 개발로 간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 해라? 이것 시간 다……

○위원장대리 안규백 참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뒤를 돌아보며) 답변 하시지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백군기 위원 아니, 그것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시를 했으니까 S&T가 했을 것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간단한 답변을 유도하는데 왜 답변을 못 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말씀하신 대로 2010년 10월 46 회 방추위 때 잠정 국산 파워팩 적용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을 근거로 양산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국산 파워팩 개발은 핵심기술로 별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별도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지시를 했을 것 아니예요? ‘너희들, 파워팩을 개발해라’……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그전부터 그것은 지시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5년도부터.

○백군기 위원 2005년도부터 했지만……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맞습니다.

○백군기 위원 이제 방침이 완전히 국내 개발해서 그쪽 두 트랙으로 간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정식 지시를 했을 것 아니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그런데 여기 단서조건이 하나 붙은 게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 개발 불투명하거나 일정 차질 시 해외 파워팩으로 전환한다’라는 것도 같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포함되어서.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백군기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의문이 가는것은 그게 08년도에 적합 판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금 체계 종합을 하는 로템 있잖아요. 로템에게 우리 이제 2010년도에 국내 개발로, 파워팩 아주 중요한 핵심 부위가 국내 개발로 가는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그 당시에는 해외 도입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는 해외 도입한다는 전제를 깔고 한 겁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해서 금년도 몇 월까지 시험평가를 하는데 그 중간까지 지는 지금 파워팩을 도입하는 것 고려 안 한 것 아니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금년 4월 달 이전까지는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아닙니다. 11년 3월에 보시면 48회 방추위가 열립니다. 그때 변속기 결합 문제로 해 가지고 전력화 시기를 또 한 차례 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산화를 계속 시키는데 여기 도 역시 조건이 붙은 게, DT기준 미달 또는 OT 중 중대결함 발생 시……

○백군기 위원 좋아요. 그것은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내가 볼 때는 일단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조금 쉬어라, 중지 해라,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중지는……

○백군기 위원 그렇지 않으면 로템에서 벌써 2010년도에 계약을 했어야지.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2010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차 양산, 생산하는 것은.

○백군기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파워팩을 가져 오라는 것을.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파워팩은 국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가져오는 거고요.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워팩을 결정한 것은 '2010년도에 국내 개발로 가겠다', 국내 개발로 가겠다 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전투력 적합판정을 했잖아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백군기 위원 그러면서 10년도에 국내 개발로 가니까 잠정적으로 너희 파워팩을 도입하는 것은 하지 마라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니야?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그것은 로템에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백군기 위원 아니요, 방사청에서 그것을 얘기 를 했어야 되겠지.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로템의 권정원 본부장입니다. 방사청으로부터 해외 도입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은 2011년도 가을입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 가을까지, 2010년부터 2011년 가을까지는 어떤 스탠스에 썼느냐 이거지.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계약에 있는 내용과 같이 국내 개발이 되면 적용을 하고안 되면 수입한다라는 그 정책을……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문시되는 게 그거예요.

2011년 가을까지 새로운 의사결정이 되기까지는 체계통합을 하라는 지시는 안 받았을 것 아니야. 그렇지요?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그 체계종 합이라 하면 다른 의미 같은……

○백군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거기에 따른 다른 전차의 다른 어떤 파트들 이것을 개발하라는 얘기는 안 받았을 것 아니야?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그렇지 않 습니다. 2010……

○백군기 위원 그렇지 않아? 그러면 방사청에서는…… 이게 참 질문이 하다가 말아지는데, 방사청에서는 그러면 2008년도까지 전투력 적합 판정을 해서 좋다, 가도 좋는데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다려 보자, 그래서 2010년도에 '그래, 국내 개발을 해 봐라'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10년부터 11년 가을 언제예요, 마지막거 한 게? 그 가을까지 1년 한 반 동안 근 2년동안은 로템한테 '아직은 그것 결정이 안 됐으니다른 부품에 대한 것은 생산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다면 방사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저희는 국 내 개발 파워팩이 들어오는 시기를 가정을 했었 고요. 그 가정에 따라서 전차 나머지 부분을 생산하고 있었고 저희는 전력화 준비를 하고 있었 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여튼……

○위원장대리 안규백 자, 정리해 주세요.

○백군기 위원 국내 개발이 됐든 도입이 됐든 간에 어느 하나가 결정이 되어야 나머지 라인을 돌리도록 지시가 될 텐데, 지금 2010년도부터 2011년 말까지는 국내 개발이나 해외 도입이나 하는 것이 아직 완전히 결정이 안된 상태란 말 이예요. 안 됐는데 다른 라인을 돌린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예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수입을 하든 국내에서 사오든 간에 그것은 전체 중에 규모로 보면 한 15% 정도밖에 해당 안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산을 해야 됩니다.

○백군기 위원 사업본부장님, 알아보세요. 대답 이 뻘한데, 그러면 15%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핵심 부품인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나머지 꺾데 기는 그냥 다 만들어라,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시 아니야?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그런데 공정상으로 봐 가지고 저희 가 일정을 전부 짜거든요. 그래서 파워팩이 장착 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파워팩은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그전엔 공정에서 생산 이 되어야 되니까 로템에서는……

○백군기 위원 아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상 식으로는 2010년부터 2011년 말까지 근 2년간은 내가 볼 때는 그런 지시를, 방사청에서 '파워팩에 관계없이 생산과정을 돌려라'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무리한 지시다…… (안규백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중요한 부품이 결정이 안 났는데 '나머지 것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볼 때는 방사청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이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 또 중간에 끊기면……

어떻게 할까요?

○委員長 劉承旻 예,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백군기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은 10년부터 11년 말까지의 그 과정이 조금 나는 애매해요. 앞으로이게 법적 문제까지를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청에서 근 2년 동안 로템한테 나머지 공정은 돌리라고 했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템에서 지금 일반 업체에서 4만 명이 그거하고 생산부품 공장들 난리이고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최소화, 아직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안 일어날 텐데 왜 그게 일어났을까 하는 데 내가 의문을 가지고 이것 접근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K-2전차 논란이 되고 있는데 K-2 전차 지금부터 기술개발하면 몇 년 후에 사업화 할 수 있습니까, 시험평가까지?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파워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태 위원 예.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도 몰라? 그러면 아는 게 뭐 있어? 사업총괄본부장이 연도 판단하면 기술개발하고, 회사에서 시연했잖아. 시험평가하고, 3년 반 아닙니까? 3년 반 후에 전력화할 것이냐……

좀 대답을 확실히 하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 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인격적 모독이 될까봐 안 하는데 대단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운 이 걸려 있는,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전력화입니다. 이게, 대충 와서 질의하고 대충 와서 답변하고 답변 끝나고, 그게 아니예요. 06년도부터 시작해 아직 도 못 가, 내년도에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갖고 나 몰라라 하고, 핵무기 개발했다는 데 06년도에 긴급히 소요 제기해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재원도 모르고 있고, 위력도 모르고 있고, 가격도 모르고 있고, 협상도 모르고 있고, 본부장이 뭐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문성, 전문성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한 줄 알았지요? 저 군대생활 40년 하면서 GOP 경제시험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 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뭘 알고 있구나' 이야기 하고 대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단장할 때 시험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뭐국회의원이 허수아비입니까, 지금? 방사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능력 없는 것을 방사청이가지고 있지 말고 국방부 줘라. 그이야기가 고깝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 능력 없는 걸 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이 사업이 뒹국박죽이 되려고 하나 이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려면 군인과 민간인과 끌고루 놓고 청장, 차장, 사업총괄본부장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차장하고 본부장하고 있으니까, 군대 이야기하니까 안 통하잖아.
 내가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감정 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방사청을 위해서 인적 전문성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이걸 제가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걸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기호 위원 자꾸 일을 키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 장군 입장에서 국산 파워팩 추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국산 파워팩은 57회 방추위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현재저희들은 국산 파워팩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 달에 사업이 종무가 됩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시험평가가 종료된 그 상태를 보고 지금판단하고 있는데, 12월 달까지는 향후 국산 파워팩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방추위에 보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지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8개월째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정상입니까?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그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기호 위원 문제가 있는 사람 없어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팀장이…… 정신과 치료받고,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걸 사실 이렇게 되면 감사원도이제는 방사청을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되고,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상태로 만든다면 방사청장이 나서서 이걸 수습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차장님, 꼭 방사청장한테 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박청원 예.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백군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깐 내가 다짐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아까 2010년 파워팩을 국내 개발로 한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로템에 명확한 지침을 줘야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로드맵에 보면 10월 12일 날 소위 말한 양산 지시를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서 그런 과정에서 양산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방사청 입장에서는 어떤 변명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우선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해외 도입을 했을 때9월 달까지 들어오면 우선 아까 기품원장님께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그리고 하겠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기품원장님?

○국방기술품질원장 최창곤 예, 차후에 그런 부분은 검증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리고 지금 S&T 사장님은 '국산 파워팩과 같은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의견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컨대 감사원 감사 결과와 또 검증 결과를 예측했을 때, 사업본부장님, 확실한 답변 해 주세요. 2014년 3월 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지금 국회에서……

○백군기 위원 3월까지 가능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또 감사원 처분 여부가……

○백군기 위원 아니, 가능하냐고만 물어봤어요. 가능합니까?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예,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보고 있다고 하지 말고, 가능해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가능합니다.

○백군기 위원 내가 내년도까지는, 14년도까지는 이 자리에 있어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알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거 책임질 수 있지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책임지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체계 종합하는 로템 책임자 일어서 보세요. 누구 지시로 계약을 했습니까?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방사청과 로템이 2010년 12월 24일 날 계약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파워팩을 해외 도입하는것을 누구 지시로, 지금 해외 도입에 대한 계약을 하셨지요?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예, 계약 체결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런 계약 한 것은 누구 지시로 하셨습니까?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백군기 위원 방위사업청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방추위 결과를 통보하는 문서에 '해외업체와 계약 추진' 이렇게 지시를……

○백군기 위원 나는 중간중간 방사청 간부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내가 보니까 갑과 을의 차이 예요. 사업본부장님, 지시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방추위 결과를 통보하면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지시하셨지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예.

○백군기 위원 그걸 확실히 하자고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백군기 위원 로템에 지시했지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예.

○백군기 위원 '계약해라' 하고?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예.
○백군기 위원 이제 오늘 정확한 답변을 내가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워팩이 만약 결정이 안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 검증 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위약금 문제 가 나오는데, 로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현재 해외 파워팩 계약을 취소……
○백군기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얘기 하세요.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계약금의 최대 100%를 물어줘야 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 예요?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저희는 1차적으로 유럽 회사에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배상액 금액은 정부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백군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템이 체계개발하는 업체로서 한번 간단하게 10초 드릴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현대로템(주)중기사업본부장 권정원 저희는 국내 개발 파워팩이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정부와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국내 개발 파워팩 지연으로 인한 사항인데, 그로 인해서 앞애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템과 협력업체는 극심한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알겠어요. 극심한 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오늘 길게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러는데, 그래서그 계약 지시를 지금 방사청에서 10월 12일 날'로템은 파워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양산체제로 돌입해서 해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
○백군기 위원 아니, 그걸 꼭 둘이 타협해야 돼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제가 그때 계약을 직접 체결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괄계약입니다. 그래서 로템한테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파워팩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는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10월 달에는 파워팩이 안돼 있지. 왜냐하면 그게 국내 개발하고 해외 개발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되어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지, 그게 되어 있다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10월 달인데……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아닙니다. 예산에 다 들어 있었고요……
○백군기 위원 아니, 2010년도에는 파워팩 자체가 국내 개발할 것이냐, 국외 개발할 것이냐에서국내 개발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조건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군기 위원 조건부로? 그러면 종합적으로 2010년도에는 로템에게 '라인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했네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그렇게 그 내용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방사청에 책임이있네요? 업체에서 그거 할 때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 대리 오태식 계약관계는 그때 분명히 방추위 결정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백군기 위원 추가질문 좀 주실 거지요?

○委員長 劉承旻 예.
○백군기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旻 2012년 4월에 방추위 결정 이후에 현대로템한테 독일제 파워팩을 계약하라고지시하셨다고 그랬지요?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방추위결과를 통보하면서……
○委員長 劉承旻 전화로?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예, 각기관별로 해야 할 임무 분담하는 가운데 로템에게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 계약을 하라고 공문예딱 명시했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3차 질의 하실 분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성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재윤 위원님 하십시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4차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2012년 올해 4월 2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제 파워팩으로 1차 양산을 결정한 그 방추위 직후에 방사청이 현대로템에 계획을 지시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AD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상금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산 파워팩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성공하지 않을 경우 각각 지체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공식답변

장비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할 때에는 시험평가 기준이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K2 전차 개발을 할 때, 이미 구매해서 사용해 본 해외 파워팩의 시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업체와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8시간/100km 연속 가동'이라는 시험평가 기준을 2009년에야 마련한 것입니다.

해외 파워팩의 시험평가는 2008년에 K2 전차 시험평가과정에서 K2 전차에 탑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성능과 품질 검증 차원에서 앞으로 도입하는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도 '8시간/100km 연속가동'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2012.12.)]

일부 언론에는 해외 파워팩의 변속기 관련 결함이 24건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해외 파워팩 시험평가 시 발견된 신뢰도 고장은 총 11건이며, 국회에서는 운용시험 시 발생한 결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운용시험평가 시 발생한 결함 6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해외 파워팩에서 발생한 신뢰도 고장 11건은 보완조치 후에 납품해야 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매듭지었으며, 보완여부 검사는 품질보증 활동과 초도양산 시험을 통해 철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 파워팩은 개발에 성공하면 관련 계열 전차 뿐만아니라 민수용 중장비의 부품 등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미 방위사업추진위원회(2012.12.17.)는 초도 양산 100대에 대해서는 우선 해외 파워팩을 사용하되, 국산 파워팩 개발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K2 전차의 전력화가 지연되어 그로 인해 우리 군의 전차 전력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970년대 초반에 도입된 M48계열 전차가 K2 전차의 생산 지연으로 도태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운용중에 있습니다.

낡은 무기로도 싸울 수는 있지만, 전투력이 떨어져 쉽게 끝낼 수 있는 전쟁도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한 낡은 전차를 운용하면서 생기는 정비소요와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K2 전차의 양산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차 생산과 관련된 중소기업만 1,400여개, 종업원도 4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들의 생계가 문제되고, 계속 지체되면 우리 전차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됩니다.

14 제309회-국방제4차(2012년7월25일)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K-2전차를 2010년 12월 달, 그 당시에 뭐라고 결정하셨느냐 하면 국산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불투명하거나 일정 차질이 클 경우에는 해외도입을 추진한다고 2010년 12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한기호 위원

결국은 구매를 하지 않고 국산을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가다가 결국은 2014년도 3월 달에나 K-2전차가 양산돼서 배치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왜 고객인 국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3년이 늦어지면서 지금 야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획된 것이 3년이 늦어지니까 어떤 부대는 지금 전차는 없는데 전차부대로 편성된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리고 오늘 질문하는 것 중에 아마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 힘든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뒤에 배석하신 분께서 부담 없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바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K-2 전차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이렇게 논의되어 가지고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논의됐던 것 말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계약관리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관리본부장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외 도입 파워팩에 대해서 도입 계약이 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난 4월에 계약을 한 것으로, 4월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는 해외 도입 파워팩 때문에 450억의 예산을 지금 증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증가하지도 않은 것을 계약을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게 지금 전력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김성찬 위원

아니, 시기가 맞물린 것은 맞물린 거지만 지금 절차를 묻는 거예요. 회사는 정부에다 해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미리 다 조치는 하고 이게 뭐 맞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 조건이 국산 파워팩이 안 되면 해외 파워팩 도입을 해라 그런 단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김성찬 위원

아니,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정은 다 이해를 한다 이거지. 아니,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절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방위사업청과 로템이 계약할 때 K-2 전차에 연구개발한 파워팩을 탑재하는 것으로 계약 안 했습니까? 대답이 안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맞습니다.

○김성찬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방사청과 로템이 계약할 때는 연구개발 파워팩을 탑재한다고 계약을 하였고, 수정계약도 하지

않고 해외 도입 파워팩을 이렇게 계약해도 됩니까? 아니, 답변해 보세요, 제일 잘 아시는 분.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현재 12년도 것은 연부액으로 되어 있고 13년도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김성찬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방사청과 로템이 계약할 때 연구개발한 파워팩을 탑재하는 것으로 계약했잖아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예, 그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체계업체인 로템하고 저희들하고는 현재 수정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수정계약도 안 하고 로템이 해외 파워팩을 도입한다 계약해도 됩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그래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국내 파워팩이 개발이 안 되면 독일로부터 수입해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김성찬 위원

그것은 방사청 내부고, 그것을 국방부, 국방위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일 날 방추위를 했는데 그다음에 상임위나 또는 이런 것이 좀 저희들이 보고하는 체계에 대해서 좀……

○김성찬 위원

이것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450억 예산 추가해 달라고 했잖아요. 해외 도입 파워팩이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는 ILS라든지 정비 등등 해서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예상도 아직 판단도 평가하지 않고 그냥 덜렁 해외 파워팩을 그냥 지시해 가지고 업체가 계약을 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것 눈덩이 같이 불어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원가를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계획까지 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파워팩을 해외 도입하면 얼마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까? 450억이 아니고 더 많을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저희들이 현재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약 721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면 800억을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지 450억만 달라고 그러고, 또 이것 눈가림하고 말이지요. 그 뒤에 또 300억, 400억 들어가는 것은 또 슬쩍 들어가고 이럴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업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김성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받았지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예, 질의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끝나시면 결과를 우리 국방위에 좀 설명하시든지 제가 관심 있으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들어가십시오.

터키 알타이 사업이 2015년에 끝나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찬 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터키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한 기술을 가지고 자체 전차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우리가 승인하지 않아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알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뭘니까?

나와 주세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방산진흥국장입니다.

○김성찬 위원

터키가 앞으로 2015년 되면 우리 승인 받지 않고 알타이 사업으로 만든 터키 전차를 주변국에 다 팔잖아요. 팔 수 있지요?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예, 그렇게……

○김성찬 위원

그러면 우리 K-2 전차는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 또 경쟁 되겠지만. 이것 우리가 준 기술 이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승인 없이 마음대로 터키가 해외 수출해도 됩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터키 기술 수출할 때 터키가 수출하는 권한까지 포함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런데 ADD는 왜 로템과 할 때 승인받도록 하고, 로열티 5% 받도록 이렇게 또 다시 계약합니까?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그것은 기술자문 용역으로 해서 ADD가 로템에 기술자문을 해 주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면 그것 안 되는 겁니까? 터키가 우리 승인 없이는 해외 수출이?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 김철수

터키의 기술 수출료에 터키가 수출하는 것도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다음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위원

오늘 날씨가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현안질의로 디지털 군복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날이 아주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형 군복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파워팩 2차 연구개발 하실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각 관련 업체하고, 정부는 국산화를 꼭 성공을 시키는 게……

○김성찬 위원

하실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면 또 얼마 돈이 든다는 부분이 평가 나왔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직 그것은 안 나왔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것 하실 때 정말로, 지금도 1000억 들어갔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찬 위원

또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또 그것도 될 건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잘 판단해서 가지고 수정계약 하기 전에 그 부분도 국회에 좀 보고를 하시고 수정계약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310회-국방제1차(2012년8월24일)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K-2전차 관련해서 기동화력사업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부장입니다.

K-2전차 파워팩 해외 도입 관련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배경은 생각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금년 4월 2일 57회 방추위에서 초도양산분은 해외파워팩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여서

134월 4일 날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면서 선발주 및 계약 지시를 하여 국내업체와 해외 제작사 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회에 보고 전 계약 체결이 불가피했던 사유는 전력화 시기 추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발주 및 업체 간 조기 계약을 추진하여 체계 업체 및 부품 업체의 생산일정 차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려하였습니다. 방추위 의사 결정 이후 업체 계약 체결 전에 국회 보고 기회를 모색했으나 실기하였습니다.

추진 간 문제점을 평가한 결과 11년 국정감사 결과는 국산 파워팩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인데 이를 예산 증액까지 용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K-2전차 사업은 예산 추가 증가액이 적지 않은 만큼 계약 전 국회 보고를 했어야 하나 통상의 국내개발 실패 부품의 해외구매 전환 사례로 인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사전보고 없이 계약을 추진한 것은 절차적으로 온전치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증액소요 판단한 결과입니다.

방추위 당시 총사업비 증가액을 단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련 부대비용을 미고려하여 약 450억 원으로 판단하였으나 계약원가 증가액을 판단한 결과 약 619억 원 증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비 성격인 해외 파워팩 ILS 3·4계단 구축을 위해 60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679억 원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기획재정부는 국방위 보고 후 승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재부 최종 조정 협의 완료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해외 파워팩 선급금은 12년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국회 사전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일정한 한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대상, 사업, 기준, 절차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초도양산 세부 원가증감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K-2 문제에 대해서는 저부터 질문할 게 많습시다마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K-2전차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무엇 때문에 받고 계시는, 어떤 부분을 감사받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사업 과정 전체인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한 체계인데 둘로 나뉘졌느냐에서부터, 지금 방위사업청이 국산화 개발을 했는데 왜 방추위에서 해외 파워팩 도입으로 이렇게 가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을……

○委員長 劉承旼

이 감사는 언제 종료될 예정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감사원에서 언제 끝날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679억 원, 파워팩의 해외구매 때문에 679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그렇게 기재부에도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委員長 劉承旼

기획재정부는 국방위가 이것을 승인하면 예산을 태워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승인보다 국방위에 보고를 해서 접수가 되고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기재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게 헌법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방사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오늘 갖고 온 보고서에는 마치 사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이 서류를 작성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에는 분명히 '의결'이라고 되어 있고 '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방사청에서는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아직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현실적으로 현행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지금 가 있는 예산의 연부액으로 담아서 예산 승인을 할 때 승인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딜레이 시킬 수는 없고,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워낙 하청업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2013년 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국방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약을 지지하고 한 것은 전부 방사청이 한 거거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한 문제

나, 방사청 표현으로 보고가 안 된 문제에 대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총장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해외업체하고 구매하라는 계약을 지시한 것은 청장이 하신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이제 방추위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청장은 알지를 못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지요. 그것을 해외 구매하라고 계약한 걸 청장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지금 파워팩 이 문제 때문에 K2 전차 개발이 몇 년간 지연되어 오고 18대 국회 내내 문제가 되어 왔던 사업인데, 청장께서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절차를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부하직원 중에 누구한테 경고를 하고 누구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사실 방추위에서 결정할 때 해외 파워팩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절차는 실무적으로 밑에서 밟았는데, 업체 간에 계약한 것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委員長

劉承旼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청장이 몰라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그것은 청장이 모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여기에 누가 누구를 엄중 경고하고, 누구를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합니까? 제가 이게 하도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최진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요, 됐습니다. 됐고요.

20 제310회-국방제1차(부록)(2012년8월24일)

- K-2 전차사업은 2009년부터 양산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11월에 핵심 부품인 파워팩에 결함이 발견되어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음.

□현 상황/ 문제점

- 파워팩 개발지연에 따라 차세대 주력전차인 K-2 전차의 전력화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향후 주요 전력의 도입이 지체되지 않도록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연구 개발일정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K-2 전차사업(2010~2016, 총 사업비 1조 9709억 원)은 한반도 미래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차세대 주력전차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반영된 예산 중 86.4%인 35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55억 1500만 원을 불용하였음. K-2 전차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2008년에 완료하였으며, 동 사업은 연구 개발된 무기체계의 양산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고 있음.

- 파워팩 시험평가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1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산 파워팩을 계속 개발하여 최초 양산 시 적용하되, 국산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외도입으로 전환하고, K-2 전차는 2013년 말부터 전력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런데 국산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은 2012년 4월에 K-2 전차 1차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파워팩을 사용하기로 최종결정 하였고 전력화시기도 2014년으로 재차 순연하였음.

<K-2 전차 사업 주요추진 경과>

1992. 5 K-2 전차 소요제기 및 선정

2008. 9 K-2 전차 개발완료(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 해외 파워팩을 장착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

2009.11 엔진 개발 지연에 따른 양산사업 순연 결정(2011→2012)

2011. 3 파워팩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판정

2011. 3 K-2 전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파워팩 결함으로 전력화 순연(2012→2013)

* 국산 파워팩을 계속 개발하여 초도 양산 시 적용하되, 파워팩 기준미달 시 해외도입 전환

2012. 4 K-2 전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초도 양산품에 한하여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되, 2014년부터 전력화

* 2차 양산부터는 국산 파워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완 추진

- 당초 계획에 따르면 K-2 전차는 2011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었으나 파워팩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순연되고 있음.

- 파워팩에 대한 최초 결함이 보고된 2009년에는 사업기간을 1년 순연하여 2012년부터 전력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이 순연되어 최종적으로 2014년부터 전력화하기로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육군 기갑부대 전력증강계획에차질이 예상되는 등 육상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질의

☞K-2 전차사업은 2009년부터 양산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었으나, 2009년 11월에 핵심부품인 파워팩에 결함이 발견되어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음.

☞파워팩 시험평가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1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를 개최하여 “국산 파워팩을 계속 개발하여 최초 양산 시 적용하되, 국산 파워팩에 대한 시험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외도입으로 전환 하고, K-2 전차는 2013년 말부터 전력화”하기로결정하였음.

☞그런데 국산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은 2012년 4월에 K-2 전차 1차 사업 에 대해서는 해외 파워팩을 사용하기로 최종결정 하였고 전력화시기도 2014년 으로 재차 순연한 바 있음.

☞결과적으로 최초계획 대비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지연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계속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문제일 뿐 아니라, 기갑부대의 전력에 크게 공백이 생기게 되었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이 K-2 전차의 전력화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파워팩 연구개발 일정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 인함.

☞1500마력 디젤 파워팩 기술의 경우 독일 등 일부 국방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 국내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력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한 해외에서도 파워팩 개발에 통상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당초 계획한 6년의 연구개발 기간은 사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였는가?

☞여러 차례 순연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4년 전력화하기로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순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청장은 2014년 전력화가가능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구성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현실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구개발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때 국산화 품목과 해외도입품목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핵심부품의 개발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순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그렇게 하겠는가?

-핵심부품인 국산 파워팩 개발 지연으로 K2 전차 전력화가 최초 계획대비 3년 지연되어기갑부대 전력공백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최초 파워팩 연구개발 일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개발업체 및 국과연의 국내 기술력 예측에 문제가 있었고, 핵심기술 개발과 체 계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상 문제가 있었다고 봄니다.

* '05년 개발계획 승인 시 K2전차 초도양산 적용을 목표로 일정계획 수립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핵심기술과 체계개발을 분리해서 선 핵심기술 개발 이후 무기체계에 적용하도록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규정 개정 완료

개정전 :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133호, '10. 12. 20) 제173조

㉔ 무기체계 적용(신규 및 현용)을 목표로 하는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획, 계획, 사업관리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군사용 적합판정” 획득 또는 규격화된 연구개발결과물(개발품)은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후 :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 139호, '11. 2. 25) 제173조

㉔ 무기체계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군사용 적합판정” 획득 또는 규격화된 연구개발결과물(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운용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국외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 중인 개발품을 구매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디젤 파워팩 기술은 첨단기술로 시행착오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해외에서도 파워팩 개발이 통상 10년이 소요되는데 당초 계획한 6년의 연구개발은 사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였는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개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했고,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기대로 다소 무리한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청장은 2014년 전력화 가능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전차 생산일정과 해외 파워팩 제작 및 공급 일정을 보고 2014년 3월부터는 초도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전력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부품의 개발지연으로 사업전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그렇게 하겠는가?

○예.

○무기체계 적용을 전제로 핵심기술을 개발할 경우에 선 핵심기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만 무기체계 양산에 적용토록 하고,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선후가 바뀌어서 사업전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관련규정도 이미 개정하여 제도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

○관련규정 개정 완료

개정전 :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133호, '10. 12. 20) 제173조

㉔ 무기체계 적용(신규 및 현용)을 목표로 하는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획, 계획, 사업관리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군사용 적합판정” 획득 또는 규격화된 연구개발결과물(개발품)은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후 :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제 139호, '11. 2. 25) 제173조

㉔ 무기체계 ~추진하여야 하며,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군사용 적합판정” 획득 또는 규격화된 연구개발결과물(개발품)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운용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국외에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운용 중인 개발품을 구매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제311회-국방제6차(부록)(2012년11월5일)

◆K-2 전차사업의 지연은 파워팩 개발문제에 비롯된 예산낭비!

□K-2 전차사업에 대해 노대래 방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K-2 전차사업은 북한의 기갑전력의 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의 미래전장 환경과 전력구조에 적합한 주력 전차

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년부터 '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9758억 원임.

○이 사업의 '13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주장비 초도양산 중도금으로 2390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차 탄약 및 수리부속 등 종합군수지원에 필요한 예산 141억 원이 반영되는 등 총 25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92년 소요결정 당시에는 K-2 전차의 파워팩(엔진+ 변속기)을 해외 구매하여 국내 개발한 흑표전차 차체에 체계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03년에 파워팩도 국내개발을 추진하되 '1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92년도에 K-2전차사업 시작했고, 그 이후에 03년도에 파워팩 개발을 포함시켰는데 계획완료 시점인 2010년에서 무려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 답변 바랍니다.

○그러나 '10년 말까지 국산화를 계획했던 파워팩이 '12. 11월 현재까지도 개발에 실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K-2 전차 전력화 물량을 축소하고 초도물량에 대해서는 해외 파워팩을 우선 도입하여 '14. 3월부터 전력화에 착수하고 후속물량에 대해서는 국산 파워팩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12. 4)하여 추진하고 있음.

☞결국 현재까지도 파워팩 개발은 실패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이제는 국방부에서 K-2전차 전력화 지연에 따라 해외파워팩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① 전력화 추가 지연 가능성

정부의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14. 3월 전력화를 위한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내업체와 독일 업체 간 엔진 및 변속기 납품계약이 체결(엔진 : '12. 4, 변속기 : '12. 6)되었음.

☞정부가 해외파워팩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납품을 전력화 시점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내업체와 해외업체 간 계약내용에 명시된 선수금도 지불 안 된 상태인데, 이는 결국 사업지연을 자초하는 일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해외 파워팩 도입으로 인한 총 사업비 증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2 전차 초도 물량에 대해서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파워팩 단가 상승에 따른 총 사업비가 약 67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총 사업비 증가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 파워팩 도입에 따른 사업비 619억 원과 해외파워팩 종합군수지원에 필요한 6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환율을 1유로(€)당 1,403 원으로 적용하고 있어 환율이 이보다 상승하는 경우 총 사업비는 추가로 증가될 것임.

☞결국 개발실패로 인한 손실과 해외 파워팩 도입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03년도 부터 추진된 국산 파워팩 개발은 어떻게 처리되 니까?

또한, 총 사업비 증가 내역에는 제조원가 증가로 인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체계업체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약 7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체계업체는 파워팩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사업관리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체계업체에 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국산 파워팩 개발 문제

K-2 전차에 탑재하기 위하여 국내 개발 중인 1,500마력 파워팩 운용시험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2. 6월에 해당 업체가 형상관리 책임기관 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TCU(Transmission Control Unit : 변속기조정 제어장치)를 변경하여 엔진이 파손됨으로써 시험평가가 중단되었음.

정부는 K-2 전차 후속물량에 대해서는 국산 파워팩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12. 11월 현재 파워팩의 당초 개발 완료 시점인 '10. 10월보다 약 2년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부계획처럼 '00년부터 K-2 전차 후속물량에 대한 전력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14. 8월까지의 국내 파워팩의 개발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업체의 TCU 임의 변경으로 인한 엔진파손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결함보완 및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치는 경우 국내 파워팩 의 개발 완료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1)

업체가 임의로 TCU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보면, '1500마력 엔진/변속기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르면 '운용 시험평가 기간 중 시험평가 대상 장비의 수리부속 정비 및 교환 등이 필요시에는 시험평가관 건의에 의거 시험평가반장이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이 평가계획서 위반 사실만으로는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

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계약 특수조건에 미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파워팩 개발 지연에 따른 K-2 전력화 지연

○사업기간 연장 후 실시한 시험평가에서도 '12년 2월에 변속 시 록업 클러치 압력저하가 발생했고, '12년 3월에는 메인베어링 손상으로 인한 엔진오일의 압력저하가 발생했음.

☞(S&T중공업) '08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10년 12월에는 양산계약이 체결된 K-2전차가 파워팩의 개발 실패로 인하여 2차례나 전력화가 지연된 것에 대해 파워팩(변속기) 제작업체로서 또 다시 전력화지연이 수반되는 국내 변속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S&T중공업) 계속되는 전력화 지연으로 K-2 전차 1100여 개 협력업체, 4만여 종업원들이 납품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이미 투입된 개발 비 및 자재비 등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2년 4월에 실시된 제57회 방추위 이후 개발 중인 파워팩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및 내구도 시험 간 변속기는 속도/방향 조정기 스위치 결합, 주차제동밸브 고장, 록업시일링 교체 2회, 출력축 하우징 볼트 결손 등 10여 건의 결함이 발생했음.

○특히, 운용시험평가 간 시험평가 대상장비의 정비 및 교환 등은 시험평가관의 건의에 의해 시험평가반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S&T 중공업은 변속기 TCU를 무단으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른 엔진의 영향성을 검토하는 시험준비 중 엔진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음.

☞(S&T중공업) S&T중공업 시찰 간 대표는 초동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은 보완이 완료되었고, 차체 노후화로 인해 변속기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음.

K-2전차는 향후 30년간 운용되어야 하는데, 차체가 노후되어 변속기에 결함이 생긴다고 하는것은 역으로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S&T중공업의 입장은?

○시험평가 완료 후 규격화, 부품생산/조립 등 양산가능 일정을 제출하라는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두산인프라코어(엔진)는 약 30개월이 소요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S&T중공업은 일정을 미제출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생산지시를 하면 14년 말에 변속기의 납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시험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변속기에 대해 정부가 생산지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판단됨.

☞(S&T중공업) 현재 시점에서 정부에게 생산지시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시험평가가 완료된 후 변속기의 최초 납품 시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S&T중공업 시찰(10.22일) 이후 10.26일 내구도 시험용 변속기에서 또다시 변속기 과열경고등 점등 및 냉각팬 속도 이상이 발생했으며, S&T중공업의 원인 분석결과 냉각팬 구동계의 베벨기어 손상이 원인임이 밝혀졌고, 베벨기어 파손에 대한 원인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함.

☞(S&T중공업) 시찰 시 초기결함이 보완되어 이상 없다고 주장하는 변속기가 아직도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S&T중공업에서 제작한 변속기가 아직도 양산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 뿐인데, 이에 대한 S&T중공업의 입장은 무엇인지?

☞(ADD) 개발에 착수한 이후 두 차례 개발기간 순연으로 전력화가 2년 늦어졌는데, 이번 결함으로 또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위사업청) 파워팩 개발 지연의 책임이 업체에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개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서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며,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추가적인 계약 보증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 보증금상당액(연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

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 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K-2전차 파워팩 개발 않고 수입, 군 장성 고발키로” 보도(한국일보 11.2) 관련 방사청의 입장>

○K-2전차 초도양산 파워팩 적용방안에 대해 제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12.4.2)에서 의결하면서 국산 파워팩은 2차 양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개발하고 이를 위한 개발업체 지원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병행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국산 파워팩 개발은현재도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산 파워팩의 일부 성능이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해외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결정했다는내용과는 달리, 국산 파워팩의 개발시험평가결과 (DT), 일부 성능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시험평가(OT)로 전환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국산 파워팩의 신뢰성·내구성에 대한 확신이 곤란하여 초도양산에 한해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산 파워팩의 시험평가 결과, 11건의 보완요구사항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간단한 설계변경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며, 이 또한 양산 시 보완 후 납품하는 조건으로 해외업체와 협상이 완료되어 방위사업추진위 원회에 보고 및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국산 파워팩 개발완료 시점인 2010년에서 무려 2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는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산 파워팩의 경우, 완벽하진 않지만 개발 목표에 근접하는 발전적인 성과는 달성하였다고 봅니다.

-국산 파워팩 개발 실패 원인을 파악했는가? K2전차 전력화 지연에 따라 해외 파워팩 도입을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가?

○국산 파워팩 시험평가 간 발생한 주요 결함과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 파워팩은 K2전차 체계개발 시 전차에 장착하여 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시험평가 간 발생한 11건의 경미한 결 함은 보완하여 도입할 예정이므로 성능상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해외 파워팩 도입 시 전력화 시점에 맞출 수 있는가? 해외 업체에 대한 선수금도 지불이 안 되었는데 사업지연을 자초하는 일 아닌가?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 정상적으로 사업관리가 가능할 경우 전력화 시점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해외 업체에 대한 선수금은 '13년에 지급하기 때문에 납기 및 전력화시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업체 자체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업체 자금순환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파워팩 예산을 제외한 '12년 예산에 대한조기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해외 파워팩 선금금 미지급 시 정상 사업추진 제한 우려

• 해외업체는 지급 지연 시 납기준수 불가, 가격 재협상,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요구

• 선금금 지연 시 해외 원제작사 생산 및 납품일정 지연 등 해외 파워팩 납기준수 제한 및 전력화 일정 추가 순연이 불가피하며, 극단적 경우 업체 간 계약파기 시 K2전차사업 장기 표류 가능

-해외 파워팩 도입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 아닌가? 국산 파워팩 개발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전력공백 방지 및 K2전차 생산 협력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파워팩으로 의사결정 하였으며,

○K2전차 전력화시기 순연이 되면 인력/설비 유지비, 이자 부담 증가 등 기회비용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국익에 부합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국산 파워팩 개발에 투입된 예산,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고, 국산 파워팩 계열화와 민수 파급효과 등의 기대효과와 현재 개발 진도를 분석할 때 국산화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산 파워팩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은 12월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백군기 위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청장님 고생하십니까라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 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 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하고 그다음에 방사청에서 지난 번에 국감 때 논의된 것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 주세요.

감사원에서는 지난번에 전투력 적합 판정을 위 해서 독일 파워팩을 K-2전차 시제품이 탑재해서 운용했던 것은 그것은 소위 말한 국내 개발 파워 팩을 장착한다는 전제하에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 파워팩에 일부 문제가 발생 하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냥 바로바로 새로운 부속품으로 교체해 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DT나 OT를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것 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DT.OT를 처음부터 다 시 해야 된다 하 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방사청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은 전투력 적합 판정을 통해서 일부 우리가 판정을 했기 때문 에 그때 결함요소로 나타난, 그때 열한 가지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열한 가지입니다.

○백군기 위원

열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국내산 파워팩을 시험할 때 객관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800km 지속……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8시간 100km요.

○백군기 위원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감사원 주장과 지금 그때 청에서 얘기한 것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독일제는 저희가 구매이기 때문에 수락시험을 해 가지고 수락시험 합격하더라도 우리가 국내 개발한 차체에 얹혀 놓고 그래서 DT.OT에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T.OT 할 때도 모든 항목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문제로 제기된 거 11개가 중점이고 그리고 특히 국내 파워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시간 100km 이게 굉장히 아주 강한 테스트라고 하니까 그것은 필 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감사원 얘기는 DT.OT를 할 때는 우리 국내 개발에 대한 DT.OT 했 던 조건표, 그런 요소 이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중점을 어디에 두든 간에 전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견해 거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저희가 국내 개발한다면 단품까지 다 국내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우리 가 해외에서 구매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자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게 많이 있고, 그렇 지만 통상 우리 국내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이것은 확인을 해서 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얘기는 그게 양산품일 경우에는 적합 판정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양산이 아니고 시제품이기 때 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예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마 독일도 개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터키가 지난 15일 날 시제를 처음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엔진이 터키 전차에 양산을 해서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런데 터키 것하고 비교하는 것은 소위 말한 터키에서 지금 DT.OT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거의 준용한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예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ADD 소장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저희가 K-2전차를 2008년도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시험을 다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산 파워팩 그 문제만 없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절차에 따라서 그냥 양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따로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추가한 시험은 지금 국산 파워팩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견해 차이니까요. 감사원의 얘기는 그때 전투 적합 판정을 하는 시험 때는 예를 들면 파워팩의 어느 한 부속품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다른 부속으로 교체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것을 DT.OT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당시에 K-2전차 개발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거고요.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지금 현재 파워팩도 마찬가지이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품을 교체해서 고장 난 것은 수리해 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정상적으로 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느 부품이 고장이 나 가지고 하면 그것 교체해서 계속 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중대하지 않은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상당히 핵심적인 중대한 부속품이 마모가 되어서 또는 파괴되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중대한 사건 아니에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다 종합해서 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사항들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완이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아마……

○백군기 위원 여하튼 간에 국가의 아주 주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그때의 전투적 합 판정한 내용을 DT, OT의 일부로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게 견해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하하튼 저희가 국방 개발은 항상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K-2전차 개발한 것은 체계개발을 해서……

○백군기 위원

그러면 왜 감사받을 때 그런 것 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지 못했나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저는 그 점이 문제 됐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절차상으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있는 절차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판정 을 했을 것이고, 그때 법적으로 적합판정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그 적합판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한 무기체계의 전체 체계상의 운용에 대한 것을 시험한 것이지, 파워팩 한 가지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한 DT.OT가 아니다 그 얘기에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지금 우리가 무기체계 계를 개발하게 되면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부터 우리가 제작해서 하는 부품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체계개발해서 성공하면 모든 부품이 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로 그런 무기체계를 별도로 DT.OT 하는 것은 우리가 수입할 때 그 것에 대해서 단품 레벨에서 시험하는 거고요. 무기체계에서 확인이 됐으면 그것으로 사실 개발이 끝난 거고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것이고, 소위 말한 어떤 파워팩에 대한 DT, OT를 하는 것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다 하는 것 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마무리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방추위에 다시 회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간단히 얘기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감사원의 지적은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저희가 방추위에 다시 이리이러한 감사원이 지적한 것을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군기 위원

방추위에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백군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무기체계에 대한 전투력에 적합하고, 부품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사업관리본부장이 지금 설명을……

○백군기 위원

그게 지금 견해가 감사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설명을 듣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위원장님.

○委員長 劉承旻

예,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 하실 때요, 지금 감사원 주장에 따르면 해외 독일제 파워팩으로 하면 전력화가 2015년 1월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평가 다 거치고 하려면, 혹은 시험평가 다 거치고 하려면 2015년 1월이 되어야지 전력화가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면 내년 K-2 전체, 파워팩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야 될 판이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우선 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파워팩은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전차는 무기체계지만 파워팩은 무기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파워팩 자체로 해서 저희가 DT.OT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품에 대한 시험은 당연히 합니다. 하고 나서는 차체에 얹어 가지고 전차 무기체계에 대한 DT.OT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감사원과 약간 개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제품이기 때문에 양산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시제품이 과거에 양산품 한 450대 정도 생산한 양산품과 부품에 있어서 약 90% 정도가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분사계통만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양산품과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답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에서 '2015년 1월' 하는 얘기가 해외 파워팩을 장착을 해 가지고 국내 파워팩 시험기준과 동일하게 했을 때 아마 그런 계산으로 나온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국과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파워팩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 2008년 당시 시험기준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험을 다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었던 100km, 8시간 연속주행 또 저희가 방추위에서 보고드렸던 11가지 보완사항에 대한 확인 등등을 하면 되기 때문에 15년 1월까지 갈 필요가 없고 저희가 14년 3월로 납품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거기에 연관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예, 정리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아까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연료분사장치 이것이 바깥에 따라서 다른 모든 부품들의 60%가 그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한 10% 정도밖에 영향을 안 받고 90%를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백군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방사청과 감사원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이 왜 좁혀 지지 않고 그렇게 지금 결과가 보고되고 우리한 때까지 그렇게 얘기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60%라는 얘기는 2001년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에 MTU에서 CRI방식을 개발할 초기 단계에서 그 과거 엔진하코의 부품 호환성을 갖다가 검토할 때 그쪽 엔지니어가 ADD에 와서 두 페이지 파워

포인트 자료로 보고한 내용 중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추위 하고 나서 저희가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MTU로부터 10월 달에 받은 편지에 의하면 90% 정도를 갖다가 공용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CRI 방식에 대한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서한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도 충격적이었지만, 오늘 감사원의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방위원들이 상당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체계 도입에 따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생겼어요.

먼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방사청이 K-2전차 관련해서 해외 파워팩 도입을 사전에 결정하고 걸치레 편파 시험평가를 통해서 공문서 조작까지도 사실상 이루어 가면서 이게 혈세를 낭비하게 하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한 그런 행위로 감사원은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방사청과 감사원의 견해가 180도로 다른데, 방사청장 앞으로 감사원의 이 결정에 그대로 승복을 하고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재심청구를 해서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감사원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낸 게 통보입니다. 그래서 통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추위에 다시 올려서 이렇게 심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은 개별적으로 재심청구를 하든 일용 조치는 가야 될 것입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청 입장에서 기관으로서의 재심청구할 생각은 없고, 개별적으로 관련 공직자들이 자기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에 대한 개별적인 재심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그런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전력화 시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사청에서 보고하기는 해외 파워팩을 도입할 경우에는 2014년 3월…… 방사청이 국산 파워팩의 경우에는 부품 생산과 조립 및 자체시험 등에 소요되는 기간 21개월을 포함하면 2015년 12월이나 전력화가 가능하고,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면 2014년 3월에 초도양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기에 해외 파워팩이 시제품이고, 부품 중에도 지금 방사청 실무자 얘기는 90%가 뭐 양산한 것과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감사원에서는 60% 이상이 다른 부품으로 쓰여졌다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제품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K-2전차에 올려서 모든 성능을 종합해서 해 보려면 국산 파워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흑색기 흑한기를 거치려면 2015년 1월이나 전력화가 가능하고, 국내 파워팩의 경우에는 2014년 1월이면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이런 결론을 낸 데 대해서도 의의가 없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사해야 될 게 국산 파워팩 개발하는 것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아니, 그 얘기 알겠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 내 모두질문으로 기관으로서 재심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다 적시를 해서……

○김진표 위원

감사원 결정을 그대로 승복하려면 해외 파워팩의 경우에도 국산 파워팩과 동일한 조건과 내용의 성능검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전력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견해인데 그것을 받아들일겠다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통보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객관적인 절차,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모든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 나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위원들의 심의를 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방사청의 실무 책임자 말씀은, '해외 파워팩이 양산실적이 없는 시제품으로 K-2전차에 처음 적용된 것이다'라는 감사원의 견해에는 동의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진표 위원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장 좀 나와 보시지요.

2012년 4월 방추위 때 해외 파워팩과 같은 계열 엔진의 양산실적을, 해외 파워팩과 같은 계열 엔진의 양산실적을 방추위에다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산품으로 잘못된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게 감사원의 의심인데, 이렇게 유도한 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방사청이나 국방부와 협의를 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우선 그렇게 유도한 적이 없고요.

○김진표 위원

그러면 그때도 거기에 시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제 기억에는 그것에 관해서는 방사추위 할 때 특별히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사실 그대로 방사추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때 방추위 때 이것이 양산품이 아니고 시제품이라고 보고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보고했습니다. 정확하게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시제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쓰이는 부품의 뭐 90%가 양산실적이 있는 다른 파워팩에서 쓰인 적이 있다고 보고했습니까? 기제가 되어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아마 보고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파워팩하고 다른 점이 연료분사장치만 다르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90%가 같건, 60%가 같건, 아니면 전혀 새로 개발했던 사실은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완전히 새로 개발했어도 그 파워팩을 써서 시험한 거였거든요. 당시……

○김진표 위원

지금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해외 파워팩에 대하여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고 하는 기술자문위원들의 자문의견 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청에서는 해외 파워팩의 11개의 결함은 중대한 결함으로 간주했고, 반대로 국산 파워팩의 경우에는 2012년 4월 방추위 때 국산 파워팩의 연속시험 결과 중대결함이 아니라는 의견이 8 대 5로 많았는데도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이것은 어느 의견에 따랐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런 사실은 없고요,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 중대결함이나 아니냐에 관해서는 당시에 의견이 있었었고, 그때 저희 국과연 의견은 이게 중대결함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결함이라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리고 감사원 실무 책임자의 얘기는 방사청에서 해외 파워팩을 적용해야 한다고 선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 결론에 맞는 공문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내도록 요구했다는데, 방사청장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얘기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사실 이 사업의 관리주체는 국과연인데요, 국과연에서 이것이 의견이 온 게 데이터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결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관리 주무기관이 국과연이기 때문에 국과연의 책임있는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한 거지 그것을 뭐 국과연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닙니다. 데이터만 가지고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석한 결과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김진표 위원

감사원이 보기에는 방사청의 요구에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방사청이 요구한 대로 심의자료의 내용을 기재해서 결국 방추위에서 해외 파워팩으로 가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국산 파워팩의 결함이 중대결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 방사청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당시에 민간기술검토위원회에서는 검토하다가, 무슨 테스트하다가 뭐가 하나 큰 하자가 생기면 그 아이টে에 대해서 이게 중대한 결함이나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고요. 우리 방추위에서는 이 엔진을, 파워팩을 탑재했을 때

과연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판단하고 전체적인 판단하고, 개별적이어서 문제없다고 그래서 전체가 문제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파워팩의 개별 부분, 파워팩하고 전체 K-2전차를 종합해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국산 파워팩을 없었을 때는 가혹한 조건에서 가혹하게 보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목살해 버리고, 해외 파워팩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것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데도 그것을 목살하고 거꾸로 해외 파워팩을 유리하게 본 것은 국방부든 방위사업청이든 누구인가가 아예 선결론을 해외 파워팩으로 하도록 미리 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방추위를 절차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게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결정한 데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혹이고, 감사원 실무자들도 오늘 두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강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委員長 劉承旻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저희 연구소가 기술적 의견을 내는데 청이나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낸 내용은 저희가 청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믿는 바를, 저희가 판단한 자료를 정확하게 냈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거기 계세요, 그냥 ADD 소장님, 거기 그냥 계십시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업체와 밀착했다든가 또 어떤 금전이 오고 갔다든가 하는 부조리에 대한 것이 적발된 게 있습니까, 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소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저희는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부조리와 관련된 것은 없었다……그러면 두 번째, 지금 예산이 가지 못하는데, 감사원에서 얘기한 절차를 다시 하라 그러면 이 절차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안 가는데?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불가능합니다.

○한기호 위원

불가능하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한기호 위원

결국은 예산이 가지만 절차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절차를 하라고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시에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했는데, 국산 파워팩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 문제는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 검사를 지금 한 게 아니고 2007년, 8년 그때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을 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 하는데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를 하는 대상에서 포함했냐 안 했냐 그겁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감사 하는 대상에서요?

○한기호 위원

국산 파워팩에 대한 문제는 따졌나 안 따졌나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한기호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하고 국산 파워팩은 냉혹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졌나 이거예요, 감사원에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

아니, 감사를 하는데, 실무자들이 매일 보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 이것 했습니다. 저것 했습니다’ 보고 안 받으세요? 저도 감사 다 받아봤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 그렇게 냉혹하게 따졌다 그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 이번에 했나 안 했냐를 묻지 않습니까? 국산 파워팩은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국산 파워팩, 해외 파워팩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과정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감사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파워팩은 감사원에서 냉엄하게 하고 국산 파워팩은 손도 안 댄 것 아닙니까, 감사 자체를? 그것을 묻는데, 무슨 대답을 그렇게…… 그다음에 해외 파워팩이 지금 실제로 미션하고 엔진하고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션은 지금 양산품입니까,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양산품입니다.

○한기호 위원 양산품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한기호 위원

엔진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엔진이 이번에 우리에게 맞게 시제품……

○한기호 위원

시제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감사원 감사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 얘기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터키에 가 있는 엔진은 몇 개나 가 있어요? 이 엔진이 가 있다면서요, 터키에?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5개를 아마 지금……

○한기호 위원

그러면 가서 시험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에서? 열한 가지가 해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그쪽 시험에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2300km 주행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ADD에서 직원이 나가 있지요, 터키에?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나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2300km 주행에서……

○한기호 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문제가 있대요 없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방사청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2300km 뛰어 가지고, 그래서 터키에서는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차량 출고식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출고식을 했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요? 어떻게 됩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양산 단계에 들어가려면 그쪽 나름대로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금 11개 사항이 터키에서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감사 하면서.

그러면 ADD에서 뭐 하러 터키에 나가 있습니까? 놀러갔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저희가 터키에 나가 있는 것은 기술 지원하러 나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기술지원요? 그러면 기술지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된 것을 확인했어야지요.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청장님, 직원들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좀 의외였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내용, 어떤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것이 또 실제적인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하자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너무 구체적인 징계 내용까지를 적시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군의 지휘관이라면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지, 부하는 처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부하가 처벌받든지 말든지 나는 주의만 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

'제 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내 책임이다', 방추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방추위에서 결정할 때 누락되고 한 것이 체크됐나 안 됐느냐…… 지금 방추위의 부위원장 아니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게 누락된 게 청장님 책임이지, 왜 부하 책임입니까? 밑에는 강등 당하고 청장님은 주의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책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기자회견하세요. 해서, '부하들을 처벌하느니 내가 차라리 옷을 벗겠다, 우리 부하들 잘못 없다', 왜 못 합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여기 감사한 내용을…… 여러 가지 나오지요.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변명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도 군 생활 하면서 감사를 받아봤지만 1일보고를 하잖아요.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문제가 있으면 청장님이 하나씩 따지면서 '이것은 아니다, 다시 확인해 봐라. 이것은 아니다, 확인해 봐라' 이 얘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 다 받아봤어요. 제가 부장 하면서 다 받아봤습니다.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 따지고, 아니면 '이것은 아니다. 다시 확인해 봐라. 이런 면이 있다' 매일 체크하면 그게 해소가 다 돼요. 전혀 안 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감사원 감사하는 동안에 왜 안 했습니까? 안 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 절차에서 생략한 것,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분과위를 생략할 수 있다', 내가 방추위 규정을 보니까 생략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적사항에 들어갑니까? 내가 생략하라고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왜 이게 지적사항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장님이. 청장님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도 커버 안 하고 넘어왔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청장님, 오늘 감사원이 국회에 와서 국방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기 위해 방사청의 편향적 결정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무리하게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가 지나칠 만큼 편향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산화를 위해서 계속 했는데, 그래서 DT에서 문제 있는 것을 OT를 가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추진했는데 나중에 엔진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것 가지고 전차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군에서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전력화 시기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해외 파워팩, 국산, 이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48회 방추위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이 정도면 더 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방위사업청이 무리하게 해외 파워팩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오히려 사업 추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 문제는 지금 방추위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실무적으로 방추위 결정대로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예산조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낭비되는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저희가 에이전트 피(agent fee) 문제나 나머지 일반관리비 축소나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감사원의 지적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검토위원회에서 국내개발 파워팩이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기술해서 방추위에 보고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 아이템에 대해서는 중대결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파워팩을 가지고 전체 없어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그 판단에서 도저히…… 가다가 중지를 하면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방추위에서 결정할 때는 이 파워팩으로 과연 갈 수 있겠느냐, 극복 가능하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윤 위원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요, 기술검토위원회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 하나, 그때 문제가 됐던 이 하나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방추위는 전체를 탑재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김재윤 위원

그런데 감사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파워팩이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 방위사업청이 오히려 중대결함이 있는 것으로 기술을 해서 방추위가 판단하는 데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됐다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그때 당시에 이게 중대결함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때 문제가 됐던 그 한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추위에 올릴 때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시끄럽기도 하지만 실제 무기를 개발해서 가다가 중간에 서버린다든지 그랬을 때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못 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는 게 전체적인, 회의해서 저희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해외 파워팩의 신뢰도, 고장발생건수가 11건이 있는데,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누락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닙니다.

○김재윤 위원

오늘 보고한 자료에 '해외 파워팩의 고장발생건수 11건을 누락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 쪽에서 약간 기술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해외 파워팩에 대한 국내개발 파워팩과 동일한 성능 검증, 예를 들면 해외 파워팩을 국내개발 파워팩과 동일한 성능 검증을 할 경우, 오히려 국내개발 파워팩보다 전력화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데 저희가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국내해서 개발하는 것하고 똑같이 시험평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저희는 우리 법상 품보협정에 의해 완제품에 수락검사를 해서 탑재를 해서 DT.OT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국내개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부품 하나하나를 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나 이것은……

○김재윤 위원

감사원 지적은요, 해외 파워팩도 양산 실적이 없는 시제품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산 실적이 없으면 검증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양산 실적이 없는 시제품인데 오히려 방위사업청이 양산 실적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양산 실적이 없는 시제품이라도 처음에 2007년, 8년 그때 테스트를 해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그때 보완하라는 사항이 11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보완은 분명히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 후에 국산화 하면서 생긴 문제, 주로 생긴 문제 이것도 같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국내 파워팩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 이것을 중요한 것은 다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여기 매우 놀랄 만한 게 저기 되어 있는데요. '해외 파워팩 도입 시 무기중개상 등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파워팩 도입 시 무기중개상 등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상 개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무기중개상 등이 개입된 사실을 알았습

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처음 안 게, 저희는 국내의 관련 업체한테 무기중개상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래서 중개상이 개입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무기중개상이 간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지금은 중개상 피(fee)를 2% 정도 깎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더 놀라운 지적을 했는데요.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방추위의 결정대로 공문을 보내도록 요구했다',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워팩 개발에 대한 책임관리기관이 ADD(국과연)이기 때문에, 국과연에서 처음에 보내온 것이 데이터만 보내왔습니다. 어떤 숫자만 딱 이렇게 오니까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해석해서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ADD가 책임기관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劉承旻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개발 파워팩을 계속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사전에 결론을 내서 이 결론 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시한 것처럼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방추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김재윤 위원

감사원이 그래도 독립기관이고 이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감사를 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방위사업청과 감사원의 말이 다른 겁니까, 견해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절차적으로 문제를 적시한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즉 다시 방추위에 상정해서 재심의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저희 의도가 이런 거다, 이렇게 한 것들은 저희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분과위를 생략하고 심의 자료를 사전 배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12년 4월 2일 방추위 결정 이전, 그러니까 12년 3월 30일에 해외 파워팩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하나도 알고 있지 않은 감사청구인들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추위 정책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을 감사원이 접수받았다는 것이 절차상 문제 11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단순히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번에 공익감사를 보면 500명 성인이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500명은 한번 확인을, 어디서 했는지 해 보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감사원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주지를 않기 때문에, 뭐 관련 회사는 아니라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손인춘 위원

관련 회사도 아닌데 성인 500명이 어떻게 알고 이런 것을 감사청구를 하는지 깊이 파악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감사결과에 군사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무기개발에 관한 것은 군사기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감사원들은 결과를 우리한테 오픈하지를 않는군요.

그렇다면 감사원에 비밀 해제를 요구할 의사는 없으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그런 문제를 앞으로 방추위에 대비해서 필요한 것들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서 K-2 파워팩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는데, 사실 심각한 것이 아닌데도, 그전에도 국산 파워팩에 불량이 많다는 것을 수도 없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무슨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파워팩을 수입으로 할 것이냐, 국산으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파워팩 K-2전차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것이냐, 아니면 국산화를 기다리면서 전력화 시기를 늦출 것이냐, 사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군에서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와 또 차량에 대한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은 이미 개발해 놓고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고충이, 계속 개발만 하기에는 그런 고충이 따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러면 청장님, 올해 K-2전차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이? 예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460억……

○손인춘 위원

466억 정도 되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손인춘 위원

그렇다면 K-2전차 예산 중 국산 파워팩 개발비용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410억입니다.

○손인춘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K-2전차 관련 협력 업체들이 올해 9월 말까지 생산한 금액이 1976억 원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추가 생산한 금액이 1082억 원인데, 그 중소 협력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K-2전차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올해만 3580억인데 현재까지 예산에서 지급된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6억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다 도산해야 되고 일자리는 다 망가져야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감사받는 대로 그냥 손놓고 계시다는 것은 지금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려고 하시는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그래서 지금 국방위의 부대의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리고 그간에 국산 파워팩 개발 상황 그리고 해외 파워팩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방추위에 다시 심의를 구해서 방추위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계약도 하고, 사실 금년도 미배정 예산이 한 20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정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합니다.

○손인춘 위원

정말 이런 문제로 하여금 지금 중소기업이 너무 힘든데 국방 전력화 문제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는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도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이 문제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면 또 반대 입장에서 자꾸만 수입 대 국산의 대결 구도로 지금 몰고 가면서 해외 파워팩 도입이 무슨 비리로, 실무자들이 무슨 비리로 엮여져 있어 가지고 말 못할 사정까지 있다, 아까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있다……솔직히 기술개발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고, 기술개발이 잘못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 낭비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데 발표는 안 하면서, 너무 심각하다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깐 거기에 얼마나 무슨 큰 리베이트 사건이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오보하게 되고, 언론이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파워팩 국산화 개발 차질로 인해서 K-2전차가 2011년에 이미 야전에 배치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전혀 감이 떨어지고 있고, 국산 파워팩이 전력화되려면 도대체 언제쯤 이게 돼 가지고 전방에 배치되는지, 전방의 것들이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 가지고 전력화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

감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열이 올랐어요. 그런데 너무 편안해 보이셔서 되레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사실 국산 파워팩을 개선을 빨리빨리 해서 추진을 가야 된다, 개발업체도 그렇고 ADD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혼연일체로 가줘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협력 구도가 상당히 와해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11월 말 전에 저희가 또 같이 만나서 앞으로 개발계획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논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다같이 합심해서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러합니다.

○손인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받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하실 것이고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감사 방향이 잘못 가고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향이 잘 갈 수 있도록 했었다면 이런 모든 문제에서-지연되고 또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더 세부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예산이 밀려서 중소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K-2전차가 빨리빨리 개발이 돼서, 전력화를 하는 데 시간이 지연되면 전방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攸

다음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밖에 갔다 온 바람에 지금까지 분위기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방사청 입장하고 판이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원에서 월권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어떤 법 이상의, 임무 밖의 일을 간섭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사청에서는 감사를 잘못된 것은 방사청에서 재감사를 요구를 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이제 면밀히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분명히 팩트가 다른 것은 저희가 적시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심의를 요구하느냐 이 문제는 아직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감사원에서 방위사업청에 이 감사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뭐 시정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통보를 했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방추위의 심의에 올리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어떤 징계 수위를 자체 감사원 기준 가지고, 방사청은 외청이기 때문에 인사가 독립돼 있는데 인사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 방사청장의 고유 권한인데, 감사원에서 징계를 해서 어떤 형량까지 정해 주는 것은 월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지 사기가 있지 이것은 감사원의 어떤 권한만 주장하고 개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공무원의 어떤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한이라든지 방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침해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감사원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제가 봤을 때는, 감사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까 표현됐을는지 모르지만 편견이 있는 그런 감사결과를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시다. 신뢰 있는 국가 기관에서 편견이 있거나,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파워팩에 대한 국산화 기간은 2년이면 되고 외국 거 저거 할 때는 3년 반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분명하게 방사청에서는 그 기간을 예측해서 가지고, 저는 믿는 것이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인 방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력화에 대한 책임은 방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전문기관도 아닌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다가 우를 범하면 남의 혼수에 따라가다가 우리 군이 큰 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방사청장의 어떤 견해,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서 예산을 판단하고 사업이 가야 되는 성격을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방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시다. 저희는 지금 감사원에서 14년 1월까지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조금 문제된 것만 손질해서 간다 하더라도 15년 말까지는 가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까지 하면 17년까지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그제 국방위에서 그 개발업체 와서 얘기할 때도 정부에서 조금 배려만 해 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저희가 임시 규격화나 사전 품보를 조치하려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는 시제품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어 줘야만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기간까지 당길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것을 이제 하셔 가지고, 제가 청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국산화와 해외 파워팩의 전력화 기간을 각각 어느 정도로 판단하신 게 있으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해외 파워팩 도입은 14년 3월까지 가능하고, 국산화는 아마 빨라도 15년 말, 16년 초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14년?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3월이요.

○김종태 위원 14년 3월, 그다음에 15년 말?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15년 말 또는 16년 초……

○김종태 위원 그럼 1년 반 차이 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종태 위원 1년 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2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하고 정반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난번 감사 할 때 여러 가지 저 스스로도 방사청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내용과 방사청을 보니까 저는 방사청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 제시하는 감사원 보도, 참고자료에 대해서 저는 방사청 자료를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감사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감사원에 근무하는 분들과 감사원에 옛날 근무한 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시다. 여기에 대해서 방사청 이런 감사를 한 게 맞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攸

예, 정리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임무.기능이 맞느냐…… 자기네들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리됐으면 좋겠다

세 가지인데 직무감찰 하다 보니까, 직무감찰 이외의 것도 여러 가지 것을 다 파고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고, 감사원에서도 능력 밖의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기관하고 갈등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원 임무.기능을 해야 되지 다른 전문기관에서 하는, 방사청에서 하는 것을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방사청장께서 방사청에 대해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 권한이 아니다. 이것은 내 권한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감사원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잘 자체 검토해서 가지고 이번 기회에 기관과 기관의 같든 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감사원이 할 일과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해 가지고 다시 전력화 사업이, 법에 호소하는데 감사원에서 하고 또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5년, 10년씩 끄는 사례가 없는 그런 법적 근거 내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이제 오래 해 보셨으니까 좋은 토의를 해서 감사원하고 협의해서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방사청이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이 작성한 K-2전차 파워팩 적용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금 방사청이 갖고 온 사본을 소회의실에서 김진표 위원님께서 열람하고 계시는데요, 이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시는 것을 감사원이 동의했고요.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열람을 원하실 경우에는, 오늘 보나 내일 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똑같은 정부기관인,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방위사업청이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는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외 파워팩 결함을 축소.왜곡시켰고, 국내 개발 파워팩의 결함은 부풀리거나 침소봉대시켰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의자료의 생략, 혹은 미제출, 심지어 하급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ADD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린 후에 ADD에서 이리이러한 공문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그러면서 마치 실험 결과는 ADD에 근거한 것처럼 적시해서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ADD에서 기본 측정한 데이터만 왔기 때문에 그 숫자만 가지고는 저희가 해석할 수 없고 그래서 ADD한테 '이것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ADD가 관리책임기관이기 때문에, ADD의 의견을 방추위 안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그럼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는 축소.왜곡을 했고 국내 파워팩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해서 부풀렸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이번에 방추위에서 의결한 것이 해외 파워팩하고 국내 파워팩하고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언제까지 안 되면 해외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옛날에 이미,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지금 검토한 게 아니고 2008년일 겁니다.

○안규백 위원

청장님보다 더 전문가가 감사원에 모여 가지고 네 번의 시스템에 걸쳐서 검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혹한기 혹서기 거치고 그 다음에 해야 빨라야 이게 2015년 1월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번 국내에서 시험평가 할 때 문제가 있었던 열한 가지 점하고, 또 국산 파워팩에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 8시간, 100km 이것을 다 하더라도 2014년 3월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전면 기치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K-2 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전문 획득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국방위 표결까지 거치면서 K-2전차 사업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의 201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를 살펴보니 다섯 번의 합동참모회의, 네 번의 방추위 회의, 이번의 감사원 감사까지 보면 방사청의 설립 목적 인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K-2전차가 우리 군의 최선에 전차가 아니라 정말 수령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전차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K-2전차를 구할 수 있는 구난전차 역할을 하기를 사실상 기대했지만 이견 기대 난망이고, 이것도 지금 수령에 빠져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오늘 보니까 문서 조작, 날조,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책적 혼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청장과 그분들은 이것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하여튼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지금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판단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6개월 동안 그 감사기간에 심층적 입체적으로 했으면 우리 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 사실 이 사업……

○안규백 위원

이런저런 의견들이 중간 중간에 흘러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액션과 리액션,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제야 허둥대고, 이런 결과 갖고 청장이 리더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하고 서로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제가 죽 얘기를 일일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사실 중간 중간에 감사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희 것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 받아 주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던 얘기를 중간에 죽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가 아무리 청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열 발 물러서서 이해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난 5일 날 청장님이 국회에 오셔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원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감사원의 권한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재심의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적극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난번에 15일 날 청에서는 '방사청의 설명이 부족했고 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6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복지부동으로 계신 것 같은데요, 6개월 동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설명하고, 저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안규백 위원

청장님, 지금 각군에서 말이에요, 방사청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비등한, 비난이 너무 비등합니다. 각군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예산을 태워서 해야 되는데 정작 청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각군에서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하여튼 외부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원에도 지금 옴부즈맨 청구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청구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또 설득하고 심의도 청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규백 위원

감사원에서 말이에요, '방위사업청이 자신의 주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허위 보고를 작성했고, 해외 파워팩에서 발생한 다수의 문제점을 누락시키고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조작하고 누락시키고 생략하고, 이것도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청 자체의 존립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감사관이요?

○안규백 위원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청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크게 확대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안규백 위원

청장이 방사청의 의견을…… 만약에 방사청에서 감사원 의견을 수렴한다면 해외 파워팩 전력화 시기와 국산 파워팩 전력화 시기를 지금 언제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각각?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해외 파워팩은 2014년 3월까지 가능하고, 국산 파워팩은 앞으로 보완하고 이게 잘 협조가 된다 그러면,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잘 된다면 빠르면 2015년 12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우리 담당 팀에서……

.안규백 위원

감사원에서는 지금 해외 파워팩이 빨라야 흑한기 흑서기, 여러 가지 OT.DT를 거친 다음에 2015년도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던데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해외 파워팩……

.안규백 위원

뭘 언제, 아까 무슨 설명을 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때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 열한 가지 문제 지적된 것하고, 8시간하고 100km 이것을 우리가 시험 테스트를 한다, 그런 전제로 해서 보면 2014년 3월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 설명을 저희가 다 했었지요.

.안규백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응을 못 했어요. 대응을 못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는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누차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청장님, 감사 기간 동안에 방사청이 감사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주장을 안 받아들였다고 그러셨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감사원이 왜 그랬을까요? 무슨 감정이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글쎄요, 저희가…… 하려면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

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같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도 참 애석하게 생각……

.委員長 劉承旼

질의 순서가 아니신데요.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1차 질의 남았습니다.

.송영근 위원

총장님, 저는 감사원 감사 중에서 가장 잘못했다는 것 중 하나가 '강등'이라고 명시를 해서 방사청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일로 장군이 어느 날 갑자기 대령을 달고 나타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내가 물어본 것은, 어느 날 보니까 별을 달았던 사람이 별 떼고 대령 달고 딱 나타나면 신문 뭐 아주 온통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송영근 위원

인정 분명히 못 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송영근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장군이 대령으로 강등된 사례가 있는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없다고 들었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송영근 위원

참 방사청이, 아주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짓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청장의 입장에서, 중징계에 네 가지 사항이 있지요? 가장 중한 것이 파면,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해임, 세 번째가 강등, 네 번째가 정직, 감사원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처벌의 강도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군인의 명예를 지켜 주기 위해서 청장께서는 강등보다 한 계단 높은 아예 해임으로 결의해 가지고 명예…… 해임이 보직 해임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령으로 안 되어도 되지요, 해임하면? 어떻습니까?

방사청에서 징계위원회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은 강등보다 더 중하다, 그러니 오히려 강등보다 한 계단 높은 해임으로 결정을 해서 했더라고 감사원에 통보하게 되면 장군이 대령으로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글쎄,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고……

○송영근 위원

징계의 결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국방부장관한테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징계가 약하면 이것은 약하니까 강하게 하라고 청장이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심하라고? 나는 법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휘관 할 때 기관장은 징계위원회 했는데 징계 결재 해서 올라왔을 때 ‘야, 이것 너무 미약해. 재심해’ 하고 결재하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장군에 대한 징계 이것은 국방부에서 합니다.

○송영근 위원

좋다. 그러면 국방부에 얘기해 가지고 ‘참 이것 내가 보기에는 강등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 이것을 한 단계 올려 가지고 해임으로 하라’ 하고 장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해임에 해당되는 사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송영근 위원

아니, 강등보다 더 중한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아까 한기호 위원도 한 것처럼 청장의 그런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려는 것 아니에요? 자, 아까 보니까 감사원에서 여기 문서에 한 것에 추가해서 ‘방사청은 해도 해도 지나쳤다는 판단이 든다’, 감사원 기획실장의 얘기입니다. ‘시제품을 양산품으로 둔갑시키고, ADD에 허위보고를 지시하고, 공개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민감한 다른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까도 지금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ADD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그것은 ‘있는 그대로 밝혀라’ 이렇게 한 것이고……

○송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많이 드니까 됐고, 처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미치는 군의 위상과 군의 사기라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강등이 이루어지는 사태는 청장께서 책임지고 막아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다음에, 아까 손인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둘 다 잘못됐을 때에는 전력 공백이 생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런데 청장께서 지난해에 업무보고 했을 때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이 환수되는데 전작권 환수 전에 이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시행을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송영근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개가 실패할 때는 어느 것 하나도 전작권 전환하기 전에 양산이 되지 않고 투입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께서는 돈만 가지고 ‘이것 여기에서 사업이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작권 전환 전에 전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있는 것을 수리해 가지고 더 연장하게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해외 파워팩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

○송영근 위원

아니, 해외 파워팩이고 뭐고 간에 방위사업청장이라면 전력의 공백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들여오고 안 들여온다는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무기체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전력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지금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합참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저희는 최대한 대형 무기 도입사업도 하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015년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아니, 합참에서 대책을 안 수립하면 방위사업청장이 전력의 공백 생기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닙니다.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무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것을 합참에서……

○송영근 위원

청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전력의 공백이 생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예.

○송영근 위원

그것부터 먼저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국산 개발로 갈지, 다음 것으로 갈지 그것은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청장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그래서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서 저희는 해외 파워팩으로라도 해서 그 시기를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다음, 그것도 만약에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 전력에 공백이 생기면 누가 책임 집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되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청장님이 노력한다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가지고 지시하셔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사업을 추진하시라 당부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정말 질의에 앞서서 답답하다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설명 들으면서 지금까지 방사청에 걸었던 기대, 청장님에게 걸었던 기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야 위원 모두가 다 정말 놀란 가슴 어떻게 진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청장께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방사청이 내세우던 투명성 그것도 엉망이었고 효율성 전문성도 없는 정말 한마디로, 대단히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오합지졸이면서 거짓말만 하는 이런 집단인 것으로 감사원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장군의 강등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결국은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 때문에 이러한 징계 요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조사 과정에서 방사청의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형태 위원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질의답변도 정확하게 다 하고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감사원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기관 간에, 감사 당국에 대해서 저희가 뭐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설명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재심을 요청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한데, 방사청이 지금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이대로 감사 결과가 맞다면 청장 지금 물러나야 됩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절차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가 문제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절차적인 문제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김형태 위원

아니,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모든 것 속임수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입니까? 국내 개발 파워팩은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중대한 결함이 아니다,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이었는데 주요 결함으로 기술해서 일부러 국내 파워팩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도 이것을 그냥 액셉트(accept)하겠다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형태 위원

잠깐만, 또 한번 들어 보세요.

아니, 재심을 요청 안 한다면서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재심의를 저희가 사실, 팩트 이것을 분석해서 재심의 요청할 사항의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재심의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것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할 사항을 구분을 해서 요청하려고 그러합니다.

.김형태 위원

그리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방사청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적시를 해 주십시오' 부탁도 했다면서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두 국가기관이 한 기관은 거짓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기 보고 읽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간부석을 돌아보며) 문서 간 것 어떻게 되어 있어? 문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내가 그대로 읽어 줄까요? '방위사업청에서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것으로 먼저 결론 내린 후 국방과학연구소에 이 결론에 맞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위 연구소의 의견에 근거한 것처럼 적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제가 답변드리면, 미리 결론 내린 적도 없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다 저희가 만든 결론에 맞춰서 안을 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은 다 장군이 대령으로 강등되게 되어있고 말이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 다 이렇게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재심도 요청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이미 모든 신문, TV 보도가 다 되어 가지고 방사청이 영 영망인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일단 감사원에서 적시한 사항 이것의 진위를 다 밝혀 가지고 방추위에 다시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게 중요 합니다.

.김형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 잘 하시고. 오늘 정말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굉장히 흥분돼서 고성이나 나올 정도로 감사원을 공격했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방사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 대단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위원들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자기들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은 다소간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큰소리치는데 이것은 결정적인 잘못이 방사청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쓰면서 방사청이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자꾸 이천 몇 년도입니까? 2015년까지는 안 된다고 방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2015년 1월까지의 해외 파워팩은 전력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2014년 3월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2014년 3월이나 2015년 1월이나 1년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2015년 1월이 아니고요, 저희는 2015년 12월, 그러니까 16년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것은 국산 파워팩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국산 파워팩을 쓴다고 하면……

.김형태 위원

해외 파워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워팩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데 차체 만들고 하는 부품 중소기업체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 파워팩으로 일단 중소기업체의 도산을 막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정식으로 재심의를 요청하고 정정당당하게, 표현이 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 가지고 부하직원도 살리고 지금 징계 요청 받고 있는 억울하게 당한, 지금 방사청장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부하직원도 살려야 될 것이고 수많은 중소기업체도,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체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감사원 중앙간부들의 주장을 보면, 설명을 보면 모든 것이 방사청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언론에 그러한 자료를 릴리스(release)하고 설명한다면 모든 언론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다고 그러면 청장뿐만 아니라 전 방사청이 나서 가지고 이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오늘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아직 1차 질의 중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유기준 위원

방사청장님, 방사청이 감사 결과를 받은 게 11월 언제지요, 15일?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그날 바로 방사청 대변인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수용, 설명이 부족하거나 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사안은 추가적인 소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사 결과가 통보됐는데 어떻게 추가적인 소명을 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심의를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재심의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통보로 왔습니다, 시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통보로 온 것은 저희가 이쪽저쪽 상황을 다 고려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해서 다시 방추위를……

.유기준 위원

통보로 와도 일단 감사원의 결정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결정인데, '방추위에서 다시 심의하라' 이런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감사원이 올해 3월 30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무려 7개월 반 정도 감사를 한 그 결과를 지금 방사청에 통보를 해 온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방추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방사청에 대해서 내용을 결정한 것이고 거기 보면, 지금 청장에 대해서는 주의인가요? 그리고 다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강등도 있고…… 이것은 아주 최종적인 결정으로 봐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중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기관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감사원법 제36조를 보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1개월입니다.

.유기준 위원

1개월 이내니까 지금 한 4일, 5일 지났습니다만, 그 기간을 준수해서 재심의 청구사유를 적어서 내려면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방추위에 대한 것이다. 방추위가 나중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보고 또 하겠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 그동안의 예를 보면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 안에 징계요구라든지 관련자에 대한 변상요구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감사원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심의를 하게 되면 인용률이, 재심의에 대한 인용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유기준 위원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인용률이 얼마쯤 되는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상당 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히 변상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인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도 비슷하게 해석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7개월 반 정도 감사를 받으면서 방사청에서 충분히 소명을 못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여기 보면 '관련 참고자료 검토' 해 가지고 답변을 잘 했는데요. 이것이라도 받아들여졌다면 감사원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여기 보면 강등도 나와 있고, 또 뭔가요? 몇 가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본부장 하고 현역 장성에 대해서 계급 강등 그다음에 사업팀장은 권고, 청장에 대해서는 주의, 어떻게 상박하후네요? 청장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죄송합니다.

○유기준 위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라면 좀더 준비를 해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좀 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다시 편법을 동원해서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한 번 면모가 상당히 구겨졌습니까마는 또다시 구겨지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방사청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사청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10년 됐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6년 됐습니다.

(유승민 위원장, 안규백 간사와 사회교대)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뿌리도 못 박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아, 역시 옛날 제도가 좋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방사청이 과연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파워팩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방사청이 지금 면모를 쇄신할 뿐만 아니라 존립근거를 다시 가지고 다음에 후임 청장이 오시더라도,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있고 다른 데서 많이 와서 지금 협동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기에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심의 청구를 하면 결정까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 추진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심의 청구를 바로 하려고 하고……

○유기준 위원

사업 추진이, 재심의라든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그런 감사원의 결정이 행정행위에 어떤 기속력을 가집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만 기속력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됐어요.

행정행위, 아시지 않습니까?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로 인해서 행정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이미 있었던 것까지 흔들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면 그 관계를, 저희가 법률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지금 현재는 징계 이 문제는 재심의 청구를 하되 사업에 대해서는 방추위 심의를 다시 해 가지고 방향을 빨리빨리 정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방사청의 존립근거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한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청장께서 단순한 한 면에만 치우쳐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게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법률적인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규백

1차 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가 있는 분에 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

○김진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사청장 말씀을 들어 보면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니까 방추위를 다시 개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감사원 감사보고서 전문을 청장이 한번 읽어 보셨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봤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지요? 전문을 읽어 보면 '해외 파워팩으로 결정을 하게 된 57회 방추위 심의 자료를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해외 파워팩에는 유리하게 국산 파워팩에는 불리하게 유도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잘못 결정되게 만들었다' 이것이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사청장 생각대로 방추위를 다시 하더라도 적어도 감사원의 주장을 따라서,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명하는 그런 방추위 심사 자료를 제시하여서 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백근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하신 분이 누구지요? 사업관리본부장입니까?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예.

.김진표 위원

좀 나와 보세요.

사업관리본부장이 아까 답변을 하면서 해외 파워팩과 90%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유사한 계열의 양산에 관해서 방추위에 심사 자료를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감사원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K-2에 탑재하려고 하는 것은 CRI 연료분사방식, 소위 Ka501이고 그다음에 방사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PLN 방식의 Ka500인데 이 두 가지 모델은 엔진부품의 60%, 부속장치의 20%가 바뀌었다 이렇게 감사원은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서로 얘기가 다르지요?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2에 적용하는 것은 CRI 방식 Ka501 모델이 맞고요, 그다음에 PLN이 그전 방식인 Ka500 모델입니다. 그 모델에 대해서……

.김진표 위원

그래서 감사원이 제시한 엔진부품의 60%, 부속장치의 20%가 바뀌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90% 같은 것을 썼다는 것이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0%, 20%는 엔진회사인 MTU에서 2001년도에 제시한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90%라고 하는 것은 금년 10월에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90%가 동일한 것이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연료분사와 관련된 부품만 예외다 그렇게 편지가 와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다음에 동 감사원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이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 전투용 적합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은 그때에는 국산 파워팩으로 K-2전차를 개발하는 것이 결정되어서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산 K-2전차에 탑재할 용도가 아닌 해외 파워팩에 대하여 이 정도 결함이 있더라도 보완하면 전투용으로 적합하다고 한 것이지, 육본 시험평가단에서 감사원에 제시한 문서에 의하면 만일 해외 파워팩을 국산 K-2전차에 탑재하려면 국산 파워팩과 동일한 절차,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런 평가를 받지 않고는 탑재할 수 없다, 그것이 육본 시험평가단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방추위를 다시 한다는 것이, 방추위를 다시 한번 열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워팩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한은 지적한 문제들을 완전히 바꾸고 보완해서 심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방추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육군시험평가단장이……

.김진표 위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라고. 방사청장한테 물었어요.

.위원장대리 안규백

누군데, 지명도 안 했는데 지금 발언대에 나와 서 있어요?

.김진표 위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해외 파워팩은 앞으로 그쪽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이미 터키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도입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 그때 시험평가 할 때 미흡한 것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다시 탑재해서 중요한 부분은 다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추위를 다시 해서 모든 자료를 정상적으로 해서 해외 파워팩을 K-2전차에 탑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산 파워팩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면 해외 파워팩은 2015년 1월이고 국내 파워팩은 2014년 1월에는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방위사업청장의 답변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어도 방사청의 파워팩과 관련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2전차와 파워팩을 만드는 데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참여해 왔고 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에 그 중소기업체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지요? 그 사람들에게 이미 지출한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을 못 하는 결과가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요, 저희가 사 주지 못하니까요. 개발하는 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해서 커버해 줘야 되는 데……

○김진표 위원

그러면 파워팩 예산 자체는 450억인가 되니까 파워팩 예산을 분리하고 나머지 K-2전차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 준다면 어떻게 되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파워팩 없이 K-2전차 만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지요.

○김진표 위원

아니, 파워팩은 어차피 해외 파워팩이나 국산 파워팩이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평가를 하고 심의를 해서 나중에, 후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 결정된다고 전제를 하고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해 주면 집행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안규백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안 됩니다.

○김진표 위원

안 되면 예산 못 세우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劉承攸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순서에 의해 김종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제는 보니까 감사원하고 방사청하고 두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은 심대하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자, 감사원에서는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2급비밀 찍었고, 감사 보고할 때 2급 비밀 안 찍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읽어 드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K-2전차 적용 파워팩을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그러면 현재 파워팩은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다시 결정한다 하니까. 현재 결정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김종태 위원

결정되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 말 속에는 해외 것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넣어라, 국내 생산을 넣어라 이런 이야기도 포함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아니고, 해외, 국내를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업체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해외 파워팩을 넣었을 때와 국내 파워팩을 넣었을 때, 양 업체 간의 이해관계는 핵심이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해외 파워팩을 넣을 경우는 국내 파워팩 업체는 납품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김종태 위원

100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또 많은 대수가 추가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 후에 개발에 성공하면 당연히 그쪽을 하겠지만……

○김종태 위원

성공 못 하면 전체 못 가잖아요? 지금 논쟁 되고 있는 것이 성공이 아직 안 되니까 100대는 먼저 가고 나머지는 국산 가자 이런 요지 아닙니까, 국민들 알고 있는 것이?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런 요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한쪽에서 다 하느냐, 국내개발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니면 100대 먼저 가자, 이런 논쟁 때문에 감사원까지 번지고 방사청 가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문제는……

방추위를 다시 하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방추위를 다시 이 결정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그 후에 국산 파워팩 개발하다가 생긴 문제들도 있고 또 국산 파워팩을 내년부터는 어떻게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파워팩을 도입한다 그러면 시험·검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방추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종태 위원

방추위는 해야 되지요.

다음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 징계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의 저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직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많았는데 장군을 대령으로 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월권, 권한 침해한 것은, 장군의 진급 승인권은 누구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대통령……

.김종태 위원

대통령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종태 위원

대통령한테 이것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김종태 위원

모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종태 위원

만약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 문서를 보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침해 안 한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한테 이것을 보고 안 드리고, 이래이래서 강등처리 해야 되겠다는 것을 승인 안 받고 했더라면 이것은 감사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감사원에서 상당히 저는 편중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 방사청에서 제시한 것과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것, '해외 파워팩 도입 시 무기중개상 등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중개상 개입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었고', 만일 이렇다면 문제 있어요.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금년 파워팩 도입을 위한 협상 계약 시에는 국내 에이전트 참여를 못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안 했다는 문서도 보냈어요. 이것은 감사원이 거짓말했거나 방사청이 거짓말을, 명확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관의 신뢰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해외 파워팩 도입 시 에이전트 개입 사실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추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쪽에서 뭔가 하면 절차적 문제로서 방추위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 역시도 감사원하고 방사청이 완전히 대치됩니다.

다음, 100% 독일 생산품을 국내 구매 대행업체를 경유하여 도입할 경우 독일 업체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대책을 안 했다. 그쪽은 뭔가 하면 독일 업체가 한쪽 편을 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독일 업체를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국내 감사원이, 독일 업체를 변명하는 이런 감사원은 심히 잘못됐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자료 주셨는데 국회에다가 정식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방사청의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주실 용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실 때, 감사원에서 모든 것을 평문을 2급으로 했어요. 방사청이 작업해서 가지고 이것은 국민에게, 언론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평문 할 것은 평문 하고 비문 할 것은 비문 해 가지고, 보안적부심사를 해서……저는 평문 할 것만 작업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회와 정부기관이 어느 업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가지고 전력화가 발목이 잡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전력화를 못 하는 것은 통탄할 일인데 예산이 있으면서도 업체 간의 경쟁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지적했습시다마는 기관 문제, 그다음에 기관의 문제 쟁점 되는 것은 평가 문제, 감사원에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부분은 방사청하고 감사원하고 기관이 확실히 들려요. 그 문제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감사원하고 방사청하고 누구 하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것 오면 그대로 기자한테 자료를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잠깐만요.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평문화 해 가지고 달라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됩니까?

○김종태 위원

여기 보면 질의한 내용 이것은 평문입니다. 감사원에서 핵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여 차기전차 운용시험평가를 할 당시 후속군수지원, 100km 및 8시간 연속주행 등에 대한 평가는 미실시했다, 이것은 평문입니다. 평문이니까, 평문에 대한 저 답은 그것은 뭐라 했는가 하면 평가는 08년도에 했고 그 기준은 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평문으로 달라 이 말씀입니까?

○김종태 위원

감사원에 질의한 것을 비문화 해야 될 것은 하지 마시고 평문화 하실 부분에 대해서, 평문화 답장한 것만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문 하실 것은 별도로 비문화 해서 주십시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비문화는 어차피 공개를 못 하는 것이고요. 지금 평문화 하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방사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제가 이해하기는 감사원에서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뿌린 것은 평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해도 평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이 본문의 비문 분류를 잘못했어요. 감사원에서 잘못했으면 새로운 문서 작성하실 때는 보안적부심사를 해서 원문이 비문으로 됐지만 평문으로 작업해도 관계없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래서 평문을 비문 도장 찍은 것은, 원 문서 작성을 감사원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서 평문화, 비문화를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委員長 劉承旼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방사청의 입장을 평문으로 밝히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셔서……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거 검토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劉承攸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청장님 말씀은 감사원이 평문으로 낸 보도자료에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김종태 위원님께서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攸

검토해서 어느 정도로 하실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청장님, 감사원의 지적을 보면 크게 해외 파워팩 결함을 방위사업청이 축소·왜곡했다. 방위사업청이 해외 파워팩 결함을 축소·왜곡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비해서 국내 파워팩 결함은 과장해서 적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결국 방위사업청이 의도적으로 해외 파워팩 결함은 축소·왜곡하고 국내 파워팩의 결함은 과장해서 적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사실 이번에 57회 방추위에서 해외하고 국내를 비교한 게 아닙니다. 이미 46회 방추위에서 언제까지 안 되면 해외 파워팩으로 돌린다 이렇게 당연히 되어 있었고, 그 전에 이미 해외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 이것은 다 진행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있던 것을 그냥 갖다가 옮겨 적은 것이고, 지금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평가된 것을 거기다 기술했는데 옛날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균형이 안 맞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 파워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 위원

해외 파워팩을 적용해서 차기전차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당시에 후속군수지원, 100km 및 8시간 연속주행 등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 운용시험평가 중에도 해외 파워팩에서 전차기동 불가, 시동 불가, 매연 과다발생, 제동장치 고장, 오일 누유 등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파워팩이 연료소모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채 도입되었고, 규격을 벗어난 과출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료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을 다 기재하려면, 전체 의사 결정에 중요한 것만 거기다 기재했지 별로 이게 기재해도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아마 기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육군의 시평단장이 구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육군시험평가단장입니다.

저희들이 해외 파워팩을 적용해서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운용시험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지금 이번에 실시한 국내 파워팩을 적용한 운용시험평가계획과 해외 파워팩을 적용한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다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의 적합성, 전투업무지원, 이 큰 항목을 저희들이 운용시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고 단지 기술적 기동능력 면에서 해외 파워팩을 적용한 것은 해외 파워팩이라는 그러한 것을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는 07년도에 100km 연속주행 그리고 8시간 연속 가동해서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 하는 국내 파워팩은 5년 전에 발전시킨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기초로 해서 더 발전시키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과 미션, 파워팩을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두 가지 항목만 더 들어간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습니까?

감사원이 지금 지적한 것 중에 크게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방사청이 이미 결정된 내용, 그러니까 이미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자료도 요청하고 그랬다라고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김재운 위원

사실입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저희가 개발을 지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저희 의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재운 위원

감사원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것으로 먼저 결론을 내린 이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러한 결론에 걸맞은 공문을 보내도록 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언제 결론을 내리고 한 것인지는 저희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그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근거해서 방추위 안전도, 저희가 낸 의견에 의해서 그 안전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예.

.김재운 위원

그리고 청장님, 민간전문가들이 국내 개발 파워팩을 계속 개발해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국내 개발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그런데 어느 기간 내, 우리가 전력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력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이…… 필요성 얘기하는 것은 뭐 방위사업청도 항상 이가 닳도록 국산 파워팩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김재운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전력화 가능 시기 판단이 부정적했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2014년 1월까지 국산,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투력 적합 판정을 해 줘야 임시규격화나 사전 품목허가가 가능한데 그걸 못 해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제품이 없어요.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원의 서류인데요. '무기증개상의 개입을 인지하고도 형식적으로 대응하였고, 직접구매 등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중간상 개입을 용인하여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지적이 맞다면.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을 실제 하는 건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자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 무기증개상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국내업체가 이런 것은 무기증개인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무슨 회의할 때도 무기증개상 개입을 다 금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런 것과 관계없이 무기증개상하고 독일회사하고 어떤 수수료 계약이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 얘기를 우리가 감사 과정에서 알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누차 얘기해서 지금 그 수수료율도 2% 다운시키도록 하고 있고, 일반 관리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국익을 위해서는 이걸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도지만 그걸 계속 다운시켜서 한 40억 정도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劉承旼

5분인데요. 오늘 질의응답은 좀 플렉서블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한 2분 정도 더 써도 되겠지요?

.委員長 劉承旼

예, 더 쓰십시오.

.송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이 질의와 이것의 핵심에 기동화력처장 최진해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진해 장군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첫 번째, 만약에 지금 전 현역과 예비역들이 강등조치와 관련해서 대단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강등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최 장군께서는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육군종합군수학교병기교육단장 최진해

현재 제가 했던, 이 문서를 작성하고 방추위 심의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의혹도 없고 또 후회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저는 군복을 벗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아주 군인답게, 군인답게 처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육군종합군수학교병기교육단장 최진해

예.

.송영근 위원

다음, 금번 감사원 결과 통보에 대해서 오늘 죽 본 것처럼 감사원의 의견과 방사청의 의견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고 그 중심에 있는 분으로서 과연 이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5분 내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종합군수학교병기교육단장 최진해

감사원 감사결과는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감사원에서 질의서를 적어 청 입장에서 질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또 감사원의 문답진술 시 감사원 질의서대로 진행을 시켜 저희들이 옴부즈맨 의견서를 갖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 질의서도 2급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질의서와 또 청에서 한 답변서 또 옴부즈맨의 의견서를 제가 발췌해서 평문으로 제출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저에게 보안감사를 갖다가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장님이 얘기했던 감사원 보도자료, 참고자료는 사실은 평문으로 이렇게 보도를 전부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참고자료 검토를 전부 다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7회 심의자료 또 회의록에서 각각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제가 제시를 했고 또 제시하지 못했던 근거자료들은 제가 뒷부분에다 전부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57회 방추위 심의 의결은 K-2전차의 파워팩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안건으로 심의한 후 초도양산분에 대해 해외 파워팩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46.48.50회 방추위 결정을 토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K-2전차에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방안은 2010년 12월 17일에 개최된 46회 방추위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48회에서는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기 위한 시기적.내용적 조건은 2011년도 3월 23일 날 개최된 48회 방추

위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5회 방추위에서는 현재 K-2전차의 전력화시기를 다시 1년 연장하면서 국산 파워팩의 중대 결함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서 해외 파워팩 도입을 위한 해외업체와의 협상을 병행하고 국내 개발하고 있는 파워팩에 대한 신뢰도와 내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년도 2월 달까지 시험평가한 결과를 3월 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저는 보임을 받은 것이 2011년도 12월 6일입니다. 55회 방추위의 결정은 국내 파워팩의 신뢰도와 내구도가, 과연 시험평가가 결과가 되느냐는 문제와 협상결과를 갖다가 저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K-2전차에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방안은 46회,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기 위한 시기적.내용적 조건은 48회, 해외 파워팩 도입을 위한 해외업체와의 협상을 국산 파워팩에 대한 시험평가와 병행하는 방안은 55회 방추위가 각 심의 의결한 것이고, 57회 방추위는 이와 같은 이전의 방추위 결정에 따라 해외업체와의 협상결과와 2012년 3월까지 국산 파워팩의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초도양산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초도양산분에 해외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57회 방추위 심의안에 이전의 방추위의 의결 내용, 해외 파워팩의 적용 방안, 적용하기 위한 조건, 해외업체와의 협상 병행의 적정성 내용을 전부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이전에 의결 전제가 됐던 사실관계 중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전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근 위원

청장님, 지금 최 장군 얘기를 들어 보면 최 장군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송영근 위원

자기 임기 받자마자, 그 앞에는 다 결정돼 있는 상태였고 57회 거기에 대해서만 자료를 했는데 왜 최 장군에게 가장 중한 책임을, 문책을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게 분명히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합니다.

.송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안규백 위원

국산 파워팩을 8시간 연속 가동, 100km 연속 주행했다고 하는데 시험조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0분 주행을 하고 10분 쉬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험조건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건 시험평가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육군시험평가단장입니다.

8시간 연속가동주행, 100km 연속주행은 1시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50분하고 10분간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상태에서 휴식하고 그때 전차 관계되는 업체와 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받았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50분하고 10분간 쉬고, 이렇게 해서 연속주행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IOC 전력기준이 07년하고 12년하고 다르잖아요?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안규백 위원

그런데 지금 동일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해외 파워팩을 가지고 시험평가할 때는 하계전술훈련 간에 100km, 동계전술훈련간에 180km를 뛰었고 환경적응성 면에서 5시간 연속가동을 오전과 오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해외 파워팩을 적용한 시험평가 때 했고 5년 전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좀더 발전시켜서…… 국내 파워팩은 개발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DT, 내구도 시험도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화한 기동능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100km 연속주행과 8시간 그걸 한 것이……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군님이 말씀한 그 기준의 내용이 07년하고 12년하고 다른데 지금 동일하게 말씀, IOC 기준이 틀린데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에요, 조금 전 질의 내용에서.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제가 유사하다고 그랬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유사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맞는 것이지요.

들어가십시오.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안규백 위원

청장님, 감사원에서 다시 방추위를 하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한기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현재 해외 파워팩이든 국내 파워팩이든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안규백 위원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법적 근거는…… 저희가 방추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집행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안규백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지난 8개월 동안 감사를 받는 동안에 왜 MTU사에 문의하지 않고 문제된 10월에야 MTU에 문의를 했습니까? 방사청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감사원 결과가 나온 게 아니겠어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건 실무적으로……

.안규백 위원

실무적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장겸KHP사업단장직무대리 오태식

부품 90%에 대해서 말씀……

.안규백 위원

90%가 아니라 8개월 동안 감사원에서 감사 받고 있는 동안에 뭐 했느냐는 얘기로. MTU사에 대해서 직접 항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야지.

.육군종합군수학교병기교육단장 최진해

그건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육군종합군수학교병기교육단장 최진해

저희들이 업체로부터는 에이전트가 관여가 안 났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에서 에이전트 피

(agent fee)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시인을 했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에이전트 피를 갖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안규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저희가 기술검토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을 우리가 중대 결함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기술검토위원회에서 그때 문제가 된 그 1건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방추위에서는 이 무기체계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한 것들 중에서 방위사업청이 뭐 의도적으로 국과연에 이렇게 써 오도록 지시를 했다, 그런데 그건 지시가 아니고 실제 국과연이 책임 기관이니까 안전에 넣을 걸 니네들이 문장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을 저희보고 지시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주 있는 것을 너무 확대 재해석,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청장님, 거두절미하고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장군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하늘의 별 아납니까? 장군에 대해서 군사쿠데타가 아닌 평시에 정책 현안을 두고 '강등'이라는 용어를 적시하고 써 가면서 찍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전례가 있는 일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찍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쪽의 의도를 제가 판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견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것은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건 예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이 문제를 상당히 안이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체계업체와 체계업체의 하청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면서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안규백 위원

파워팩과 예산을 분리해서 세울 수 있는 문제인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안규백 위원

그건 분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안규백 위원

그것 명확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안규백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旻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이석하시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육군시험평가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원하고 간담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듣기를 육군시험평가단의 공식 의견이 해외 파워팩도 시험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맞지 않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이 해외 파워팩 평가에 대한, 성능 검증에 대한 육군시험평가단의 공식 의견은 뭐니까?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해외 파워팩을 적용한 K-2전차의 운용시험평가는 정상적인 규정과 합법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전술, 야전에서 필요한, 전시에 필요한 이러한 모든 성과와 군 운용 적합성,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다 평가를 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조금 애매하게 하시는데 감사원에서는 해외 파워팩에 대해서도 국내 개발 파워팩과 동일한 성능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육군시험평가단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委員長 劉承旼

동의하지 않습니까?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육군시험평가단은 지금 방위사업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해외 구매하는 파워팩이기 때문에 국내 개발하고 똑같이 시험평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8시간 100km 또 지난번에 11개의 결함, 거기에 대해서만 평가하면 된다, 이 입장입니까?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동일한 입장이지요?

.육군시험평가단장 김영교

예.

.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을 안규백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K-2 예산이 2597억 원인데 만약 파워팩 예산 435억 원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머지 2162억 원의 예산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청장님 말씀하셨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것은 파워팩을 같이 탑재를 해서……

.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파워팩 없이 꺾이기만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태우면 같이 태우고 삭감하면 같이 삭감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삭감은, 또 육군 전력화를……

.委員長 劉承旼

물론 삭감은 반대하시지만 만약 파워팩 435억 삭감으로 결론을 내리면 나머지 2162억 원도 삭감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결국에는 저희가 개발하는 게 군의 전력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委員長 劉承旼

물론인데, 제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旵

그러니까 태우면 같이 태우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같이 태워 주셔야 합니다.

.委員長 劉承旵

아니면 같이 삭감이지 뭐 파워팩은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는 이견 맞지 않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건 맞지 않습니다.

.委員長 劉承旵

예, 알겠고요.

터키에서 2300km를 독일제 파워팩, 우리가 수입하려는 그걸로 터키에서 지금 2300km를 시험평가 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委員長 劉承旵

터키에서 2300km 문제없으면 우리는 시험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략할 근거가 됩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우리하고 기준은 다르겠지만 아마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委員長 劉承旵

많은 참고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의 시험평가를 좀더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간소화보다도 독일 파워팩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委員長 劉承旵

시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런 정도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委員長 劉承旵

그리고 방추위 절차를 다시 밟아 가지고 의결을 다시 하라고 통보받으셨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委員長 劉承旵

그러면 그 방추위를 언제 다시 합니까? 결정을 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 잠정적으로 12월 중순 전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旵

12월 중순경에 방추위를 새로, 국방부장관이 방추위원장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旵

국방부장관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12월 중순 정도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걸로……

.委員長 劉承旵

지금 11월, 오늘이 19일인가요? 예산이 걸려있는데 12월 중순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좀 하면 안 돼요? 그거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지난번에도 3월 말로 이렇게 특정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업분과위 여기도 못 하고 결국은 못 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종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권고한 방추위의 절차를 새로 밟는 것을 12월 중순에 하신다면 저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때 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방추위에서 새로 의결을 하기 전에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심사는 해 주시고……

.委員長 劉承旼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다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S&T중공업에 갔고 또 돌아와서 방사청 ADD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감사원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권고한 방추위 회의결과를, 방추위 그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면 만약 국회 전체 예산 프로세스가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만약 예산이 넘어간다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저희들이 방추위에서 어떻게 의결하는지를 보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지요. 늦어진다면, 국회 예산 절차가 늦어진다면 그때 볼 수 있겠지만 미리 결정을 하되 방추위 결과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어떻게 전제를 하지요? 방추위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줄 알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결론에 따라서 그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委員長 劉承旼

결론을 모른 상태에서 국회가 그것을 국회 나름대로 그냥 판단을 해 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제 파워팩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 제품하고 똑같이 시험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8시간 100km 연속주행 그다음에 11개의 결함 거기에 대해서만 한다, 그 입장은 절대 변함이 없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까 여러 가지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징계 이런 것을 떠나서 국회 입장에서 제일 지금 곤란한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제일 곤란한 부분은 감사원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의 전력화가 2015년 1월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2013년 내년 예산은 이제 도저히 예산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사청은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국산 파워팩을 언제 성공을 시켜서 전력화할 수 있나 이것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지금 아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까 뭐 2015년 12월이나, 14년 1월이나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은 독일제 파워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제 파워팩이 방사청이 주장하는 대로 8시간 100km 연속주행과 11개 결함에 대해서 약간 간략화된, 간소화된 평가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국회 국방위원회가 믿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런데 내년 하반기나 2014년 초쯤 가 가지고 독일제 파워팩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게 됩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낼 수가 없으니 방사청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의 구매계획과 그다음에 도입하는 계획과 그것을 시험평가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예산 책정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터키에서 똑같은 엔진을 이미 초도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참고가 될 겁니다. 저희가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터키 사를 보더라도 14년 3월까지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왜 이런 근거를 14년 3월로 보는지 그것은 별도의 설명 자료를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청장님, 국회 국방위원회로서 저희 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여러 가지 주장을 사실은 더 믿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2008년에 K-2전차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때 신규사업으로 144억 정부가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갖고 왔을 때부터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아주 예외적으로 그때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해 가지고 7 대 4로 100억만 통과시켜 주는 수정안이 당시 통과가 됐고, 그때 전액 삭감을 주장한 사람이 저하고 안규백 위원하고 네 분이나 계세요, 당시 국방위원들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파워팩 국내 개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계약 연장을 하면서 방위사업청이 곧 된다, 곧 된다 이러면서 결국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방위사업청 책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2014년 3월에 독일제로 하면 전차가 굴러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일단 저부터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확정을 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오늘까지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직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주시고, 방추위 의결도 가급적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제주해군기지와 또 K-2전차 이 두 건의 예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선거도 있고 많은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갈수록 저조해 지는데 국방위 회의를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기는 것도 저희 국방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야 간사님들께서 그 두 가지 쟁점, 제주해군기지와 K-2전차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 합의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결을 포함해서 다음에 회의를 개최한다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회의는 여야 교섭단체 간사님들 합의하에 위원님들께 회의일정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계속 33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제311회-국방제11차(2012년11월28일) 3

○한기호 위원

'해외 파워팩 도입을 통한 K-2 전차 전력화를 위해서는 수락검사 단계에서 해외 파워팩 11건의 결함을 확인하고, 초도양산 단계에서 K-2 전차 두 대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파워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외 파워팩에 대하여 8시간 연속 가동 및 100km 연속 주행시험을 시행하고, 중대급 단위인 13대 물량으로 전력화 평가-IOC가 되겠습니다-를 거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기를 건의 드립니다.

○委員長 劉承旻

부대조건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대조건에 대해서. 그 부대조건만……

○한기호 위원

우선 지난번 국산 파워팩에 대한 조건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고 한 것 때문에 이 동일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K-2 전차 두 대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파워팩과 동일한 조건인 8시간 연속 가동과 100km 연속 주행시험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다음 전술 단위인 중대급 단위(13대가 되겠습니다)이 물량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전력화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가 가야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旻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대조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委員長 劉承旻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이신 한기호 위원님이 오늘 보고하신 거기에 방금 한기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K-2 전차 파워팩에 대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委員長 劉承旻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윤 위원

이렇게 하면 이거야말로 날치기 처리 아닙니까?

○委員長 劉承旻

그동안 최대한 그걸 했습니다.

조금만 앉아 계셔야 됩니다. 헌법 57조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진 소관 기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동의합니다.

제316회-국방제2차(2013년6월18일)

부대의견은 수락검사 단계에서 해외 파워팩 결함률 시정하고 초도양산 단계에서 8시간 연속 가동 및 100km 연속주행시험과 전력화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전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 상황으로 지난 2월에 초도양산사업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3월에 파워팩 획득방법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독일 현지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11건의 엔진 결함 사항이 보완된 것을 확인했고, 오는 7월에는 변속기에 대한 현지 품질보증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도양산품에 대한 성능 검증은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전력화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잔여물량의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K-2 전차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외 도입 엔진에 대해서는 독일 현지에 가서 품질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기품원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진짜 이상 없어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보고받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누가 보고했어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기품원에서 확인한 것을 우리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미션은?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변속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엔진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변속기는 7월부터 품질보증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국산 파워팩은 지금 어떤 상태에 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지금 국산 파워팩은 지난 4월에 엔진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언제까지 그것을 하실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이번 7월까지 저희들이 원인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결국은 우리의 국산 엔진과 미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원인 분석 다 하고……

.한기호 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 국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한기호 위원

또 터키에서도 우리 국산이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고.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 것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국산 파워팩이 지난번 4월 달에 시험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뒤로 어떻게 돼 가는지,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문제없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 바로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7월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현재 4월 달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4월 달에 문제가 생긴 게 원인 분석도 아직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한기호 위원

아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원인 분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아니, 분석이 안 됐다기보다는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선 대책을 같이 마련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산 파워팩을 얻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 이거지요. 이것은 지금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독일제가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국산 가는 것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방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K-2전차 파워팩 문제, 지금 K-2전차 국산 파워팩의 내구성 시험에서 실린더 파손 문제가 다시 불거졌지요? 차후 시험평가가 언제 진행됩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지난 4월에 우리 국산 파워팩에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지금 관련 기관에서 원인 분석 중에 있고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그 방안을 현재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안 부대의견대로라면 해외 파워팩 역시 국산 파워팩과 동일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현재까지 엔진에 대해서는 독일 현지에서 기술품질원에서 품질보증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7월 중에 다시 변속기에 대해서 저희 또 기술 품질을 합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국내에 도입해 와서 좀 전에 국회에서 부대의견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8시간 100km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다 거친 뒤에 다시 국회에 보고하고 전격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국산과 해외 파워팩 시험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공정하게 해야겠지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전문기관의 통제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